



ETHER LIBRARY

0011

명상록

Tà eîs éautón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Marcus Aurelius · c. 170-180

철학 · 종교

명상록

Ta eis éauton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Τα ἑἰς ἑαυτοῦ (자기 자신에게)

지은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121~180, 로마 황제 재위 161~180)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집필 170년대, 도나우강 전선의 진중에서 그리스어로 쓴 비망록. 지은이가 세상에 내놓으려고 쓴 글이 아니며, 사본으로만 전해지다가 1559년 취리히에서 처음 인쇄되었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리스어로 남긴 《명상록(Τὰ εἰς ἑαυτόν, 자기 자신에게)》을 그리스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J. H. 레오폴트가 엮은 비판본(1908)을 저본으로 삼았고, 그 전자 텍스트는 터프츠 대학교 페르세우스 디지털 도서관(Perseus Digital Library)이 CC BY-SA 4.0으로 공개한 것을 썼습니다. 조지 롱의 영어 번역(1862)과 메릭 카소본의 영어 번역(1634)은 뜻을 확인하는 대조에만 썼습니다. 두 영어 번역이 저본과 다르게 읽은 자리에서는 저본을 따랐습니다.

열두 권 487장을 한 장도 빠짐없이 옮겼습니다. 긴 장은 저본의 소절을 따라 문단을 나누었고, 그렇게 나뉜 원문 533문단을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고 옮겼습니다. 장마다 앞에 붙은 굵은 숫자는 오늘날 널리 쓰는 장 번호입니다. 마르쿠스가 붙인 번호가 아니라 후대 편집자들이 붙인 것입니다.

제1권 끝의 「그라누아 강가, 콰디족 땅에서」와 제2권 끝의 「카르눈툼에서」는 사본에 전하는 짧은 기록입니다. 그 권을 쓴 곳으로 보아 따로 한 줄로 두었습니다.

원문이 상한 곳

사본에서 글자가 빠졌거나 상한 자리가 있습니다. 빠진 자리는 「〈…〉」로 표시했고, 편집자들이 흔히 채워 읽는 낱말을 넣은 자리는 「〈철학〉」처럼 꺾쇠 안에 적었습니다. 읽기가 갈리는 몇 곳은 가장 그럴듯한 뜻으로 옮기고 각주에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본 전자 텍스트의 단순한 오자(악센트, 구두점)는 바로잡아 옮겼고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말투에 관하여

이 책은 황제가 남을 가르치려고 쓴 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잡으려고 쓴 공책입니다. 그래서 마르쿠스가 자기를 부르는 2인칭은 「그대」가 아니라 「너」로 옮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라체로 썼습니다. 「-노라」, 「-도다」 같은 예스럽고 장엄한 어미는 쓰지 않았습니다. 짧은 메모는 짧게, 긴 논증은 긴 호흡으로 두었습니다.

제1권은 원문에 동사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베루스에게서: 너그러운 품성과 성내지 않음」처럼 이름과 배운 것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 사이에 「배웠다」, 「물려받았다」, 「보고 익혔다」 같은 동사를 넣어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로만 옮긴 말

스토아 철학의 낱말은 책 전체에서 한 가지로만 옮겼습니다. 처음 나오는 자리에는 그리스어를 로마자로 옮겨 괄호 안에 적었습니다.

헤게모니콘(hēgemonikon)은 **지도 이성**입니다. 영혼에서 판단하고 동의하고 충동을 일으키는 중심 부분을 가리킵니다.

다이몬(daimōn)은 **신령**입니다. 마르쿠스는 사람마다 안에 신이 나누어 준 신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안에 있는 신령」이라 불렀습니다. 「수호신」이나 「악마」가 아닙니다.

로고스(logos)는 **이성**, 피시스(physis)는 우주를 다스리는 힘일 때 **자연**, 저마다 타고난 것일 때 **본성**입니다.

판타시아(phantasia)는 **인상**, 휘폴렙시스(hypolēpsis)는 **판단**, 도그마(dogma)는 **원칙**, 호르메(hormē)는 **충동**입니다. 「모든 것은 판단이다」의 판단이 이 휘폴렙시스입니다.

프로노이아(pronoia)는 **섭리**, 헤이마르메네(heimarmenē)는 **운명**, 아난케(anankē)는 **필연**입니다. 책에 여러 번 나오는 양자택일 「섭리이거나 원자이거나」는 같은 틀로 맞추었습니다.

아디아포라(adiaphora)는 **선도 악도 아닌 것**, 코이노니코스(koinōnikos)는 **공동체적인**, 폴리티코스(politikos)는 **시민다운**입니다. 마르쿠스는 우주를 하나의 큰 도시로, 사람을 그 시민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시구를 두 번 인용한 자리(제7권과 제11권의 에우리피데스)는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맞추었습니다.

그 밖에

각주 118개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 제1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인용한 시구와 글의 출처, 원문이 상한 자리, 우리말로 살리기 어려운 말놀이만 밝혔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해설은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독자의 몫입니다.

사람 이름은 그리스 사람이면 그리스어 형태(아폴로니오스, 섹스토스), 로마 사람이면 라틴어 형태(루스티쿠스, 막시무스)로 적었습니다.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로 이었습니다.

차례

제1권	8
제2권	19
제3권	26
제4권	34
제5권	47
제6권	60
제7권	73
제8권	87
제9권	101
제10권	113
제11권	126
제12권	137

제1권

1 할아버지 베루스¹ 에게서는 너그러운 품성과 성내지 않는 마음을 배웠다.

2 나를 낳은 아버지²를 두고 전해 오는 평판과 기억에서는 염치를 아는 마음과 사내다운 기개를 가슴에 새겼다.

3 어머니³ 에게서는 신을 공경하는 마음과 아낌없이 나누는 너그러움을 배웠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런 생각조차 품지 않도록 스스로를 삼가는 법을 익혔다. 먹고 지내는 일을 소박하게 하여 부자들의 호사스러운 살림과는 멀찍이 떨어져 사는 것도 어머니에게서 보고 배웠다.

4 증조할아버지⁴ 덕분에 나는 공립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좋은 스승들에게 배웠으며, 이런 일에는 돈을 아끼지 말고 넉넉히 써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5 나를 맡아 기른 가정교사에게서는 녹색파도 청색파도 되지 않고, 작은 방패 검투사(parmularius) 편도 큰 방패 검투사(scutarius) 편도 들지 않는 법을 배웠다.⁵ 수고를 견디고 적게 바라는 것, 내 일은 내 손으로 하고 남의 일에 끼여들지 않는 것, 남을 헐뜯는 말에 쉽사리 귀를 내주지 않는 것도 그에게서 몸에 붙었다.

6 디오그네토스⁶ 에게서는 하찮은 일에 열을 올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기적을 판다는 자들과 마술사들이 주문이니 귀신 쫓기니 하며 늘어놓는

말을 믿지 않는 것, 매추라기를 기르지 않고 그런 놀이에 들뜨지 않는 것, 거리낌 없이 하는 직언을 참고 듣는 것도 그에게서 익혔다. 철학과 가까워진 것, 처음에는 바키오스의 강의를, 다음에는 탄다시스와 마르키아노스의 강의를 들은 것, 소년 시절에 대화편을 지어 본 것, 그리고 낮은 간이 침상과 짐승 가죽 깔개처럼 그리스의 수련법에 딸린 것들을 바라게 된 것도 모두 그의 덕이다.

7 루스티쿠스⁷ 에게서는 내 성품을 바로잡고 돌보아야 한다는 인상(phantasia)을 받았다. 소피스트 흥내를 내려는 열의에 빠지지 않고, 원리를 늘어놓는 글을 쓰거나 사람들을 복돋우는 짝막한 연설을 하지 않고, 수행에 힘쓰는 사람이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인 양 남의 눈을 끌려고 꾸며 보이지 않게 된 것도 그의 가르침이다. 그 덕분에 수사학과 시와 몇 부린 말을 멀리했고, 집 안에서 예복을 걸치고 거닐거나 그 비슷한 짓을 하지 않게 되었다. 편지를 꾸밈없이 쓰는 법도 그에게서 익혔는데, 그가 시누에사에서 내 어머니에게 써 보낸 편지가 바로 그런 편지였다. 내게 화를 냈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쪽에서 돌아오려 하면 곧바로 너그럽게 맞아들이고 기꺼이 화해하는 마음가짐을 얻었다. 책을 꼼꼼히 읽고 대충 훑어 안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것도 그에게서 배웠다. 에픽테토스의 강의록⁸을 만난 것도 그 덕분이다. 그는 자기 집에 있던 것을 내게 나누어 주었다.

8 아폴로니오스⁹ 에게서는 자유로운 마음과, 무엇 하나 요행에 맡기지 않는 흔들림 없는 결단을 배웠다. 잠시라도 이성(logos)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 것,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식을 잃었을 때도, 오랜 병중에도 한결같은 것을 그에게서 익혔다. 한 사람이 더없이 맹렬하면서도 느긋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라는 살아 있는 본보기에서 똑똑히 보았다. 가르칠 때 짜증을 내지 않는 모습도 보았고, 철학의

원리를 전하는 경험과 솜씨를 제 장점 가운데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분명히 보았다. 친구들이 베푸는 이른바 호의를, 그 때문에 비굴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심히 흘려보내지도 않으면서 받는 법도 그에게서 배웠다.

9 섉스토스¹⁰ 에게서는 따뜻한 마음씨를 배웠다. 아버지처럼 다스리는 집안의 본보기를 보았고, 본성(physis)에 맞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꾸밈없는 위엄, 친구들의 형편을 살뜰히 헤아리는 마음,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깊이 따져 보지도 않고 의견부터 내세우는 사람들을 참아 주는 너그러움도 그에게서 보았다. 그는 누구와도 잘 어울렸다. 그래서 그와 나누는 이야기는 어떤 아침보다 듣기 좋았으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와 마주한 사람들은 그를 더없이 우러러보았다. 삶에 필요한 원칙(dogma)들을 정확히 짚어 내고 차근차근 찾아내 질서 있게 세우는 힘도 그에게서 배웠다. 그는 화나 그 밖의 어떤 격정도 내비친 적이 없었고, 누구보다 흔들림이 없으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정이 깊었다. 남을 칭찬하되 요란하지 않았고, 아는 것이 많되 내세우지 않았다.

10 문법학자 알렉산드로스¹¹ 에게서는 남의 흠을 들추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는 누가 틀린 말이나 어법에 어긋난 말,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더라도 꾸짖듯 덤벼들지 않았다. 대답하는 듯이, 맞장구치는 듯이, 혹은 낱말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두고 함께 따져 보는 듯이, 아니면 그와 비슷하게 던지시 일깨우는 다른 말로, 마땅히 했어야 할 바로 그 표현만 솜씨 있게 들려주었다.

11 프론토¹² 에게서는 폭군의 시기심과 간교함과 위선이 어떤 것인지 눈여겨보게 되었다. 우리 사이에서 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딘지 정이 메마르다는 것도 그에게서 알았다.

12 플라톤학과 알렉산드로스¹³ 에게서는 자주, 또 꼭 그래야 할 때가 아니면 누구에게 말로든 편지로든 '나는 바쁘다'고 하지 말 것을 배웠다. 일이 밀려 있다는 핑계를 대며 곁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할 일을 번번이 저버리지 말라는 것도 그의 가르침이다.

13 카툴루스¹⁴ 에게서는 친구가 나를 타하면, 설령 터무니없는 탓일지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예전의 사이로 되돌리려 애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도미티우스와 아테노도토스를 두고 전하는 이야기처럼 스승들을 진심으로 기리는 마음, 그리고 자식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그에게서 얻었다.

14 내 형제 세베루스¹⁵ 에게서는 집안 사람을 아끼고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다. 트라세아, 헬비디우스, 카토, 디온, 브루투스¹⁶ 를 알게 된 것도 그 덕분이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법이 적용되고 평등과 자유로운 발언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이들의 자유를 무엇보다 존중하는 왕정을 마음에 그려 보게 된 것도 그에게서다. 또 한결같고 꾸준하게 〈철학〉을 존중하는 마음, 남에게 잘해 주고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 늘 희망을 품고 친구들이 나를 아낀다고 믿는 마음도 그에게서 익혔다. 그는 자기가 나무라는 사람들에게도 속을 감추지 않았고, 그의 친구들은 그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지 않는지 짐작할 필요가 없었다. 다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15 막시무스¹⁷ 에게서는 스스로를 다스리고 무엇에도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병중에도 밝은 기운을 잃지 않는 것, 온화함과 위엄이 알맞게 어우러진 성품, 눈앞의 일을 투덜대지 않고 해내는 태도도 그에게서 보았다. 모두가 그를 믿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고, 무슨 일을 하면 나쁜 뜻으로 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는 무엇에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으며, 서두르는 일도 머뭇거리는 일도 없었고,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풀이 죽거나 억지웃음을 짓는 일도,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남을 의심하는 일도 없었다. 남에게 잘해 주고, 쉽게 용서하고, 거짓이 없었다. 바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굽은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누구도 그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감히 자기가 그보다 낫다고 여기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는 기분 좋게 농담할 줄 알았다.

16 아버지¹⁸ 에게서는 온화함을 보았고, 충분히 따져 보고 내린 결정은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는 굳셈을 보았다. 이른바 영예라는 것에 헛되어 우쭐하지 않는 것, 일을 사랑하고 끈기 있게 해 나가는 것, 공동의 이익이 될 무언가를 내놓는 사람이면 누구의 말이든 귀담아듣는 것,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값어치에 맞는 몫을 어김없이 나누어 주는 것, 언제 고삐를 죄고 언제 늦춰야 하는지를 경험으로 아는 것도 그에게서 배웠다.

소년들을 둘러싼 연정 놀음을 그친 것, 모두를 함께 헤아리는 마음, 식사 자리에 꼭 함께하거나 여행길에 반드시 따라나서야 하는 짐을 친구들에게서 덜어 준 것도 보았다. 무슨 사정이 있어 그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도 돌아와 보면 그는 늘 그대로였다. 회의에서는 꼼꼼히 캐묻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으며, 손쉽게 떠오르는 인상만 만족해 탐구를 서둘러 그만두는 일이 없었다. 친구를 오래 곁에 두었고, 쉽게 싫증 내지도 지나치게 빠져들지도 않았다. 무슨 일에서나 스스로 넉넉했고, 얼굴이 늘 밝았다.

그는 멀리 앞을 내다보고 아주 작은 일까지 미리 챙겨 두되 요란을 떨지 않았다. 그 앞에서는 환호와 온갖 아침이 찾아들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꼭 필요한 것은 늘 지켰고, 나라 살림을 아껴 썼으며, 그

일로 몇몇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도 묵묵히 참았다. 신들을 두고는 미신에 빠지지 않았고, 사람들을 두고는 인기를 끌려 하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군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다. 어떤 일에서나 정신이 맑고 굳건했으며, 천박한 데도 새것만 좇는 데도 없었다.

삶을 편하게 해 주는 것들은 운이 넉넉히 안겨 주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쓰면서 허영을 부리지도 않았고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래서 있으면 꾸밈없이 누렸고, 없으면 아쉬워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를 두고 소피스트라거나, 집에서 나고 자란 종처럼 입이 가볍다거나, 책상물림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무르익고 온전하며 아침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자기 일도 남의 일도 이끌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참으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나무라지는 않았으나 그들에게 쉽게 휘둘리지도 않았다. 사람을 편하게 대했고, 상냥하되 지나치지 않았다. 제 몸도 알맞게 돌보았다. 삶에 매달리는 사람처럼 돌본 것도, 멋을 부리려고 돌본 것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쓴 덕분에 의술의 도움도,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도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남다른 능력을 지닌 사람들, 이를테면 말솜씨가 뛰어나거나 법률이나 관습이나 그 밖의 일을 깊이 연구해 아는 사람들에게 시기하는 기색 없이 자리를 내주었고, 저마다 자기만의 장점으로 이름을 얻도록 함께 힘써 주었다. 모든 일을 조상의 관습대로 행하면서도, 조상의 관습을 지킨다는 것 자체를 남에게 내보이려 애쓰지는 않았다.

또 그는 쉽게 움직이지도, 이리저리 들쭉이지도 않았고, 같은 곳에서 같은 일에 머물러 지내기를 좋아했다. 두통이 한바탕 휩쓸고 가면

곧바로 생생하고 힘찬 모습으로 늘 하던 일로 돌아왔다. 감춰 둔 비밀은 많지 않았다. 아주 적고 드물었으며, 그나마 나랏일에 관한 것뿐이었다. 구경거리를 베풀고 공공건물을 짓고 백성에게 하사품을 나누어 주는 따위의 일에서 그는 분별 있고 절도가 있었다. 해야 할 일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지, 해낸 일로 얻을 명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때아닌 시각에 목욕하지 않았고, 집 짓기를 즐기지 않았으며, 먹을 것을 두고 이것저것 궁리하지도, 옷감의 짜임과 빗갈을 따지지도, 종들의 젊고 고운 용모에 마음 쓰지도 않았다. 로리움에서는 아래쪽 농가에서 지어 올린 옷을 입었고, 라누비움에서는 대개 튜닉 하나만 걸쳤다. 투스쿨룸에서 용서를 비는 세리를 그가 어떻게 대했는지도 기억한다. 그의 몸가짐이 하나같이 그러했다.¹⁹

그에게는 거칠거나 모질거나 사나운 데가 없었고, 누가 보아도 '땀이 나도록' 몰아붙인다고 할 만한 데가 없었다. 무엇이든 하나하나 나누어, 시간이 넉넉한 사람처럼 차분하게, 질서 있게, 힘 있게, 앞뒤가 맞게 따져 보았다. 소크라테스를 두고 전하는 이야기²⁰가 그에게 꼭 들어맞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대부분의 사람이 꿇기에는 너무 약하고 누리기에는 너무 쉽게 빠져드는 것들을, 꿇을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알았다고 한다.

꿇어야 할 때 굳세게 버티고, 누릴 때 맑은 정신을 잃지 않는 것, 그 둘을 다 해내는 것은 온전하고 꺾이지 않는 영혼을 지닌 사람의 일이다. 막시무스가 병을 앓던 때가 그 본보기다.

17 신들 덕분에 나는 좋은 할아버지들, 좋은 부모, 좋은 누이, 좋은 스승들, 좋은 집안 사람들을 두었고, 친척과 친구들도 거의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선불리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도 신들 덕분이다. 내 기질로 보아 기회만 닿았다면 그런 짓을 저지를

법도 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일들이 한꺼번에 겹치지 않은 것은 신들의 은혜다.

할아버지의 첩 곁에서 더 오래 자라지 않은 것, 젊음의 꽃을 지킨 것, 때가 되기 전에 사내 노릇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를 더 늦춘 것도 신들 덕분이다.

통치자이자 아버지인 분 아래 놓인 것도 그렇다. 그분은 내게서 허영을 남김없이 걷어 내고, 궁정에 살면서도 호위병이나 화려하게 수놓은 옷이나 햇불과 조각상 같은 것, 그 비슷한 허세 없이 지낼 수 있음을 깨우쳐 줄 분이였다. 평범한 시민에 아주 가깝게 몸을 낮추면서도, 그 때문에 공동의 일을 위해 통치자로서 해야 할 일 앞에서 더 비굴해지거나 더 게을러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그분에게서 깨우쳤다.

그런 형제²¹를 얻은 것도 신들 덕분이다. 그는 그 됃됨이로 나를 일깨워 나 자신을 돌보게 할 수 있었고, 동시에 존경과 애정으로 나를 기쁘게 해 주었다. 아이들이 둔하게 태어나지 않고 몸이 비뚤어지지 않은 것도 그렇다. 수사학과 시와 그 밖의 공부에서 더 나아가지 않은 것도 그렇다. 그 길이 술술 풀린다고 느꼈다면 아마 거기 붙들려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를 길러 준 스승들이 바라는 듯하던 지위에 그들을 서둘러 올려 드린 것, 그들이 아직 젊으니 나중에 해 드리겠다며 기대만 안기고 미루지 않은 것도 신들 덕분이다. 아폴로니오스, 루스티쿠스, 막시무스를 알게 된 것도 그렇다.

본성에 맞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렷하게, 그리고 자주 마음에 그려 볼 수 있었던 것도 신들 덕분이다. 그러니 신들과 그들이 내려 주는 선물과 도움과 영감에 관한 한, 지금 당장 내가 본성에 맞게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내

탓이고, 신들이 일깨워 주는 것을, 아니 거의 가르쳐 주다시피 하는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한 탓이다.

이런 삶 속에서도 내 몸이 이토록 오래 버텨 준 것, 베네딕타에게도 테오도토스²²에게도 손대지 않았고 훗날 사랑의 걱정애 빠졌을 때도 거기서 깨끗이 벗어난 것이 고맙다. 루스티쿠스에게 자주 화가 났어도 나중에 후회할 것까지는 하지 않은 것,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던 어머니가 그래도 마지막 몇 해를 나와 함께 산 것도 신들의 덕이다.

가난한 사람이나 다른 무엇이 아쉬운 사람을 도우려 할 때마다 그럴 돈이 없다는 말을 나는 한 번도 듣지 않았다. 나 자신은 남에게 손을 벌려야 할 만큼 궁한 처지에 빠진 적이 없다. 내 아내²³가 이토록 순하고, 이토록 다정하고, 이토록 꾸밈없는 사람인 것, 아이들을 맡길 알맞은 스승을 넉넉히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신들 덕분이다.

꿈에서 여러 처방을 받은 것도 신들 덕분이다. 피를 토하지 않고 어지럼증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것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카이에타에서는 그것이 신탁처럼 내려왔다.²⁴ 철학을 하고 싶어졌을 때 어떤 소피스트의 손에 떨어지지 않은 것, 들어앉아 책이나 쓰거나 삼단 논법을 분석하거나 하늘의 현상을 탐구하는 데 매달리지 않은 것도 그렇다. 이 모든 것은 "신들의 도움과 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라누아 강가, 콰디족 땅에서.²⁵

1. 할아버지 마르쿠스 안니우스 베루스. 세 번 집정관을 지냈고, 아버지를 일찍 여읜 마르쿠스를 자기 집에서 길렀다.

2. 친아버지 마르쿠스 안니우스 베루스. 법무관을 지냈으나 마르쿠스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

3. 도미티아 루킬라. 큰 재산을 물려받은 명문가 출신이다.

4. 외가 쪽 증조부 카틸리우스 세베루스로 짐작한다.
5. 녹색파와 청색파는 전차 경주의 응원파이고, 작은 방패 검투사와 큰 방패 검투사는 무장이 다른 두 부류의 검투사다. 관중은 이들을 두고도 편을 갈라 응원했다.
6. 어린 마르쿠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고 전하는 스승. 뒤에 나오는 바키오스, 탄다시스, 마르키아노스는 철학 교사로 보이나 자세한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7. 퀸투스 유니우스 루스티쿠스. 스토아 철학자로 마르쿠스의 스승이자 조연자였다.
8. 에픽테토스는 글을 남기지 않았다. 제자 아리아노스가 스승의 강의를 받아 적은 기록을 말한다.
9. 엄격한 스토아 철학자 아폴로니오스. 칼케돈 출신이라고도, 칼키스 출신이라고도 전한다.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부름을 받아 마르쿠스를 가르치러 로마에 왔다.
10. 카이로네이아의 섹스토스. 플루타르코스의 손자(조카라는 설도 있다)인 철학자.
11. 프리기아 코티아이온 출신의 문법학자로, 호메로스 연구로 이름이 높았다.
12. 마르쿠스 코르넬리우스 프론토. 당대 으뜸가는 라틴어 수사학자로 마르쿠스의 스승.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가 남아 있다.
13. 셀레우키아 출신의 플라톤학과 철학자이자 소피스트. 훗날 마르쿠스 밑에서 그리스어 서신을 맡은 비서를 지냈다.
14. 킨나 카툴루스. 스토아 철학자. 아테노도토스는 프론토의 스승이었다고 전하는 철학자이고, 도미티우스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15. 소요학과 철학자 클라우디우스 세베루스로 본다. 그의 아들이 마르쿠스의 딸과 혼인했다. 마르쿠스에게는 친형제가 없어 '형제'라는 말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16. 트라세아 파이투스와 헬비디우스 프리스쿠스는 네로와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맞서다 죽은 스토아파 원로원 의원이다. 카토는 카이사르에게 맞선 소(小)카토, 디온은 참주에 맞선 시라쿠사의 디온,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죽인 마르쿠스 브루투스다.
17. 클라우디우스 막시무스. 스토아 철학자로, 아프리카 총독을 지낸 것으로 본다.
18. 양아버지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재위 138~161). 하드리아누스의 뜻에 따라 138년에 마르쿠스를 양자로 들였다.
19. 이 대목은 원문이 손상되어 뜻이 확실하지 않다. '세리'는 $\phi\epsilon\lambda\omega\acute{\nu}\eta\tau\epsilon\lambda\omega\acute{\nu}\eta$ 로 고쳐 읽은 것이다. 로리움은 로마 서쪽의 황실 별장으로, 안토니누스가 자라고 숨을 거둔 곳이다.
20. 크세노폰 《소크라테스 회상》 1.3에 전하는 소크라테스의 절제를 가리킨다.

21. 입양으로 형제가 된 루키우스 베루스. 161년부터 169년에 죽을 때까지 마르쿠스와 함께 황제 자리에 있었다.

22.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집안의 노예였을 것으로 본다.

23. 파우스티나.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딸로, 145년에 마르쿠스와 혼인했다.

24. 원문 손상. ὥσπερ χρηθήντῃ ὥσπερ χρησῖμῳ('신탁처럼')로 고쳐 읽었다. 카이에타는 라티움 남쪽의 해안 도시다.

25. 콰디족은 도나우강 북쪽, 지금의 모라비아와 슬로바키아 일대에 살던 게르만 부족이다. 그라누아강은 도나우강으로 흘러드는 지금의 흐론강으로 본다. 마르쿠스는 170년대에 이들과 싸웠다.

제2권

1 새벽부터 스스로에게 미리 말해 두어라. 나는 오늘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 고마움을 모르는 자, 오만한 자, 교활한 자, 시기하는 자,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자를 만날 것이다. 그들이 모두 그렇게 된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선의 본성(physis)이 아름답고 악의 본성이 추하다는 것을 보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그 사람 또한 본성으로 보아 나와 친족이라는 것을 보았다. 같은 피나 같은 씨를 나누어서가 아니라, 같은 정신(nous)과 신성의 한 몫을 나누어 받았기에 친족이다. 그러니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서도 해를 입을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추한 일에 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나는 내 친족에게 화를 낼 수도, 그를 미워할 수도 없다. 우리는 함께 일하도록 태어났다. 두 발처럼, 두 손처럼, 두 눈꺼풀처럼, 위아래 두 줄의 이처럼. 그러니 서로 맞서는 것은 본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분개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바로 맞서는 일이다.

2 내가 무엇이든, 나라는 이것은 살덩이와 숨과 지도 이성(hēgemonikon)¹이다. 책을 놓아라. 더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럴 여유는 허락되지 않았다. 지금 죽어 가는 사람처럼 살덩이를 하찮게 여겨라. 영긴 피와 뺏조각, 신경과 핏줄과 동맥을 얹어 짠 조그만 그물일 뿐이다. 숨은 또 어떤 것인지 보아라. 바람이다. 그것도 늘 같은 바람이 아니라 시시각각 토해 냈다가 다시 들이켜는 바람이다. 남은 셋째가 지도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너는 늙었다. 이것을 더는 종살이하게

두지 마라. 공동체를 거스르는 충동(hormē)에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니게 두지도 말고, 운명(heimarmenē)이 정한 일이 지금 다했다고 불평하거나 앞으로 닥친다고 꺼림칙해하게 두지도 마라.

3 신들이 하는 일은 섭리(pronoia)로 가득하다. 우연(tychē)이 하는 일도 자연을 벗어나 있지 않으며, 섭리가 다스리는 일들과 함께 실처럼 자아지고 엮여 있다. 모든 것은 거기서 흘러나온다. 거기에 필연이 더해지고, 네가 그 일부인 우주 전체에 이로운 것이 더해진다. 자연의 어느 부분에게든, 우주의 본성이 가져다주는 것과 우주의 본성을 지켜주는 것은 좋다. 원소(stoicheia)들의 변화가 우주를 지키듯, 원소들이 모여 이룬 것들의 변화도 우주를 지킨다. 이것이면 넉넉하다고 여기고, 이것을 원칙(dogma)으로 삼아라. 책에 묵마른 마음은 내던져라. 그래야 투덜대며 죽지 않고, 참으로 온화하게, 진심으로 신들에게 고마워하며 죽을 수 있다.

4 기억하라. 너는 이 일들을 얼마나 오래 미뤄 왔는가. 신들에게서 몇 번이나 말미를 얻고도 쓰지 않았는가.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너는 어떤 우주의 일부인지,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존재에게서 흘러나와 생겨났는지. 그리고 너에게 그어진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시간을 네 마음의 하늘을 맑게 개는 데 쓰지 않으면 시간은 가 버리고 너도 가 버리며,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5 시시각각 로마인답게, 사내답게 굳건히 마음을 써라. 지금 손에 든 일을 빈틈없고 꾸밈없는 위엄과 따뜻한 정과 자유와 정의로 해내고, 다른 모든 인상(phantasia)에서 벗어나 너 자신에게 실 틈을 마련하라. 모든 행동을 생의 마지막 행동처럼 해낸다면 그 틈은 마련된다. 아무렇게나 하는 경솔함을 버리고, 이성(logos)이 내린 결정에서 걱정해 휩쓸려 등을 돌리는 일을 버리고, 꾸밈과 자기만 아끼는 마음과 네 몫으로 주어진 것을 불평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말이다. 보라, 순조롭게

흐르는 삶, 신을 닮은 삶을 살려면 붙들어야 할 것이 얼마나 적은가. 신들도 이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6 욕보여라, 너 자신을 실컷 욕보여라, 영혼아.² 너 자신을 존중할 겨를은 이제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삶은 한 번뿐인데, 너의 삶은 거의 다 지나갔다. 그런데도 너는 너 자신을 공경하지 않고, 네 복을 남들의 영혼 속에 걸어 두었다.

7 밖에서 들이닥치는 일들에 마음이 흩어지는가? 그렇다면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배울 틈을 너 자신에게 내주고, 이리저리 헤매기를 그쳐라. 그러나 이제는 반대쪽으로 휘돌리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바빠 일하느라 삶에 지쳤으면서도 모든 충동을, 아니 모든 인상을 한데 겨눌 과녁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으로도 헛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8 남의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지 않아서 불행해진 사람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제 영혼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살피지 않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9 늘 이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우주의 본성은 무엇이고 나의 본성은 무엇인가. 나의 본성은 우주의 본성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떤 전체의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네가 그 일부인 자연에 걸맞은 일을 언제나 행하고 말하는 것을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10 테오프라스토스³는 잘못들을 견주면서, 흔히 사람들이 견주는 대로 견주어 보자면, 욕망에서 저지른 잘못이 분노에서 저지른 잘못보다 무겁다고 철학자답게 말한다. 분노하는 사람은 어떤 괴로움과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마음으로 이성에게 등을 돌리는 듯 보인다. 반면 욕망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쾌락에 젖어서, 그 잘못에서 어딘지 더 방탕하고 더 여자 같아 보인다. 그러니 쾌락과 함께 저지른 잘못이 괴로움과 함께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한 그의 말은 옳고, 철학에 걸맞다. 대체로 앞의 사람은 먼저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 괴로움에 못 이겨 분노하게 된 사람에 가깝다. 뒤의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무언가를 하려고 제 발로 불의를 저지르러 달려 나간 사람이다.

11 지금 당장이라도 삶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사람들 곁을 떠나는 것은, 신들이 있다면 조금도 두려울 일이 아니다. 신들이 너를 악에 빠뜨릴 리 없기 때문이다. 신들이 없거나, 있어도 사람의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신들도 없고 섭리도 없는 우주에서 내가 산들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신들은 있고, 사람의 일에 마음을 쓴다. 그래서 사람이 참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일을 온전히 사람에게 달린 것으로 해 두었다. 나머지 가운데 무언가가 악이었다면, 신들은 그것도 미리 내다보고 누구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해 두었을 것이다.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겠는가? 우주의 본성이 이런 것을 몰라서 지나쳤을 리 없고, 알면서도 미리 막거나 바로잡을 힘이 없어서 눈감았을 리도 없다. 힘이 모자라서든 숨씨가 모자라서든, 선과 악이 좋은 사람에게나 나쁜 사람에게나 똑같이 뒤섞여 닥치게 할 만큼 큰 실수를 저질렀을 리도 없다. 그런데 죽음과 삶, 명예와 불명예, 고통과 쾌락,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은 좋은 사람에게나 나쁜 사람에게나 똑같이 닥친다. 이것들은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선도 악도 아니다.

12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몸은 우주 속으로, 그 기억은 영원한 시간 속으로. 감각되는 모든 것이 어떠한가. 특히 쾌락으로 꾀고 고통으로 겁주고 허영으로 떠들썩하게 소문난 것들이 어떠한가. 얼마나 값싸고 하찮고 더럽고 쉽게 썩고 죽은 것들인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지성적인 힘이 할 일이다. 판단(hypolêpsis)과 말 한마디로 명성을 안겨 주는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 그것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며, 거기 덧씌워진 상상들을 생각으로 하나하나 갈라

풀어 보면, 누구든 죽음을 자연이 하는 일 말고는 다른 무엇으로도 여기지 않게 된다. 자연이 하는 일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어린아이다. 게다가 죽음은 자연이 하는 일일 뿐 아니라 자연에 이롭기까지 하다. 사람은 어떻게 신에게 닿는가. 자기의 어느 부분으로 닿는가. 사람의 그 부분이 어떤 상태에 놓일 때 그러한가.

13 세상 만물을 빙빙 돌며 쭈석거리고, 시인의 말처럼 "땅 밑의 일까지 캐내고"⁴, 이웃의 영혼 속에 든 것을 짐작으로 더듬으면서,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신령(daimōn)⁵ 곁에 머물며 그것을 참되게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 비참한 이는 없다. 신령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걱정과 경솔함에 물들지 않게, 그리고 신들과 사람들에게서 오는 일에 불만을 품지 않게 깨끗이 지키는 일이다. 신들에게서 오는 것은 그 덕(aretē) 때문에 공경할 만하고,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은 우리가 친족이기에 아낄 만하다. 때로는 그들이 선과 악을 모르기에 어떤 면에서 가엾기도 하다. 선악을 모르는 이 눈멀은 흰 것과 검은 것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눈멀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14 네가 삼천 년을 산다 해도, 아니 삼만 년을 산다 해도 기억하라. 누구도 지금 사는 이 삶 말고 다른 삶을 잃지 않으며, 지금 잃어 가는 이 삶 말고 다른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니 가장 긴 삶이나 가장 짧은 삶이나 결국 같아진다. 현재는 누구에게나 같고, 그러니 사라지는 것도 같으며, 잃는 것이 이처럼 한순간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난다. 누구도 지나간 것이나 앞으로 올 것을 잃을 수는 없다. 갖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에게서 빼앗겠는가? 그러니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는,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같은 모양으로 돌고 돌기에, 같은 것들을 백 년 동안 보든 이백 년 동안 보든 끝없는 시간 동안 보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나 가장 빨리 죽을 사람이나

잃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다. 사람이 가진 것은 정말로 현재뿐이고 갖지 않은 것은 누구도 잃지 않으니, 빼앗길 수 있는 것도 현재밖에 없다.

15 모든 것은 판단이다. 견유학과 모니모스⁶에게 했던 말은 뜻이 분명하다. 그 말의 쓸모도 분명하다. 그 말에서 맛있는 알맹이를 참인데까지만 받아들인다면 말이다.

16 사람의 영혼이 스스로를 가장 욕보이는 것은, 제 힘이 미치는 한 우주에 돌은 종기, 우주의 혹 같은 것이 될 때다. 일어나는 일 가운데 무엇에든 불만을 품는 것은 자연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것의 본성은 저마다 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 담겨 있다. 다음으로 영혼은 어떤 사람에게 등을 돌리거나, 해치려고 그에게 맞서 덤벼들 때 스스로를 욕보인다. 화난 사람들의 영혼이 그렇다. 셋째로, 쾌락이나 고통에 질 때 스스로를 욕보인다. 넷째로, 연기하듯 꾸며서 무엇이든 거짓으로 행하거나 말할 때. 다섯째로, 제 행동과 충동을 아무 과녁 없이 내보내고, 무엇을 하는지 살피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무슨 일이든 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목적에 비추어 해야 하는데 말이다. 그리고 이성적 동물의 목적은 가장 오래고 존귀한 도시이자 나라의 이성과 법도를 따르는 것이다.

17 사람의 삶에서 시간은 한 점이고, 실체는 흘러가고, 감각은 흐릿하고, 온몸의 짜임은 쉬 썩고, 영혼은 팽이처럼 맴돌고, 우연은 가늠하기 어렵고, 명성은 분별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몸에 속한 것은 모두 강물이고, 영혼에 속한 것은 꿈이고 연기다. 삶은 전쟁이자 나그네의 객지살이이고, 사후의 명성은 망각이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가? 하나, 오직 하나, 철학이다. 철학은 안에 있는 신령을 지키는 데 있다. 신령이 욕보이지도 다치지도 않고, 쾌락과 고통을 이기고, 무엇 하나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며 거짓과 꾸밈으로 하지도 않고, 남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아쉬워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또 신령이 일어나는 일과 제 몫으로 나누어 받은 일을 자기가 온 그곳 어딘가에서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죽음을 모든 생명체를 이룬 원소들이 풀려나는 일일 뿐이라 여기며 온화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지키는 것이다. 원소들 자신에게도 저마다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일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면, 왜 사람이 모든 것이 바뀌고 풀려나는 일을 꺼림칙하게 여기겠는가? 그것은 자연에 따른 일이다. 자연에 따른 것 가운데 악한 것은 없다.

카르눈툼에서.⁷

1. 영혼을 이끄는 중심 부분. 스토아 철학에서는 판단과 동의와 충동이 일어나는 자리로 본다.

2. 저본의 명령형(ὑβριζε)을 따랐다. '너는 너 자신을 욕보이고 있다'(ὑβριζεις)로 고쳐 읽는 편집자도 있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자 그 뒤를 이은 소요학과 철학자(기원전 4~3세기). 여기 인용된 대목이 실린 저작은 전하지 않는다.

4. 핀다로스의 시구. 플라톤 《테아이테토스》 173e에 인용되어 있다.

5. 사람마다 안에 갖든 신성한 부분. 이 책에서는 지도 이성, 정신과 거의 같은 것을 가리킨다.

6. 디오게네스의 제자인 견유학과 철학자. 그가 '판단은 모두 허영(typhos)'이라고 했다는 말이 희극 시인 메난드로스의 대사로 전한다(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철학자 열전》 6.83).

7. 도나우강 남쪽 기슭, 판노니아의 로마군 기지 도시(지금의 오스트리아 빈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사이). 마르쿠스는 마르코만니 전쟁 때 여러 해 동안 이곳을 본영으로 삼았다.

제3권

1 삶이 날마다 닳아 없어지고 남은 몫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만 헤아릴 일이 아니다. 이것도 헤아려야 한다. 더 오래 산다 해도, 그때에도 마음이 지금처럼 일의 이치를 깨치고, 신성한 일과 사람의 일을 겪어 알게 해 주는 관조를 감당해 낼지는 알 수 없다. 노망이 들기 시작해도 숨 쉬고, 먹고, 인상을 받고, 충동을 느끼는 따위의 일은 모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부리는 일, 마땅히 할 일의 섬을 하나하나 정확히 맞추는 일, 눈앞에 떠오르는 것들을 마디마디 가르치는 일, 이제 스스로 삶을 떠나야 할 때가 아닌지 따져 보는 일, 그 밖에 잘 단련된 추론이 꼭 있어야 하는 일들은 먼저 꺼져 버린다. 그러니 서둘러야 한다. 날마다 죽음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물을 헤아리고 그 이치를 따라가는 힘이 먼저 끝나 버리기 때문이다.

2 이런 것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자연이 만들어 내는 것들에 딸려 생기는 것에도 어딘가 사랑스럽고 마음을 끄는 데가 있다. 이를테면 빵을 구우면 군데군데 터지는 곳이 생긴다. 이렇게 벌어진 자리는 어찌 보면 빵 굽는 기술이 노린 바에 어긋나지만, 그래도 어쩐지 보기에 좋고 묘하게 입맛을 돋운다. 또 무화과는 가장 잘 익었을 때 껍질이 벌어지고, 나무에서 익어 떨어진 올리브는 썩기 직전이라는 바로 그 점이 열매에 남다른 아름다움을 더한다. 고개를 숙인 이삭, 사자의 찌푸린 이맛살, 멧돼지 입에서 흘러내리는 거품, 그 밖에 많은 것이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자연이 만들어 내는 것들에 딸려 나왔기에

그것들을 함께 꾸며 주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러므로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느끼고 깊이 헤아리는 사람에게는, 딸려서 일어나는 일들조차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저마다 즐겁게 어우러져 보일 것이다. 그런 사람은 짐승들이 실제로 찍 벌린 아가리도 화가와 조각가가 흉내 내어 보여 주는 것 못지않게 즐겁게 바라볼 것이다. 늙은 여인과 늙은 사내에게서도 어떤 원숙함과 무르익은 아름다움을 보고, 아이들의 사랑스러움도 절제된 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많지만 아무에게나 와닿지는 않는다. 자연과 자연이 하는 일에 참으로 친숙해진 사람에게만 다가온다.

3 히포크라테스는 많은 병을 고쳤지만 자신도 병들어 죽었다. 칼데아인 점성가들은 많은 사람의 죽음을 예언했지만, 끝내 운명은 그들도 붙잡았다. 알렉산드로스와 폼페이우스와 가이우스 카이사르는 그토록 여러 번 도시들을 송두리째 쓸어버리고 싸움터에서 기병과 보병을 수만씩 베어 넘겼지만, 그들 역시 언젠가는 삶을 떠났다.¹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가 불길에 휩싸여 타 버리는 일을 두고 그토록 많은 자연 이론을 펼쳤지만, 배 속에 물이 차서 쇠똥을 온몸에 바른 채 죽었다. 데모크리토스는 이가 죽었고, 소크라테스는 다른 종류의 이가 죽었다.² 이게 다 무슨 말인가? 너는 배에 올랐고, 바다를 건넜고, 물에 닿았다. 내려라. 다른 삶으로 간다면, 거기에도 신들이 없는 데는 없다. 감각이 없는 데로 간다면, 고통과 쾌락을 견디는 일도, 섬기는 쪽보다 그토록 못한 그릇의 종노릇을 하는 일도 끝날 것이다. 섬기는 쪽은 정신이요 신령(daimōn)이고, 그릇은 흙이요 핏덩이다.

4 남들을 두고 이런저런 인상(phantasia)을 떠올리느라 남은 삶을 닳아 없애지 마라. 모두에게 이로운 무언가를 위해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그러는 동안 너는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잃는다). 아무개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품고 무슨 꾀를 부리는지 그려 보는 일, 이런 것은 모두 너를 네 지도 이성(hēgemonikon)을 지켜보는 일에서 벗어나 해매게 만든다.

그러니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인상들 가운데 아무렇게나 떠오른 것, 쓸데없는 것은 피해야 하고, 무엇보다 남의 일을 캐려 드는 것과 악의 품은 것을 피해야 한다. 누가 갑자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고 물으면 그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이것저것을 생각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떠올리도록 너 자신을 길들여라. 그러면 그 대답만 듣고도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생각은 모두 단순하고 너그러우며, 쾌락이나 향락에 젖은 상상도, 경쟁심이나 시기나 의심도, 그 밖에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털어놓자면 얼굴이 붉어질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는 공동체적 동물에게 어울린다는 것을.

이런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들 축에 드는 일을 더는 미루지 않는 사람은 신들의 사제요 일꾼이다. 그는 제 안에 모셔 둔 것을 쓴다. 그것은 사람을 쾌락에 더럽혀지지 않게, 어떤 고통에도 다치지 않게, 어떤 모욕에도 닿지 않게, 어떤 악의에도 꿈쩍하지 않게 지켜 주고, 가장 큰 시합, 곧 어떤 걱정에도 쓰러지지 않는 시합에 나선 선수로, 뻗속 깊이 정의로 물든 사람으로 만든다. 그는 일어나는 일과 제게 나누어진 모든 것을 온 영혼으로 반기고, 남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자주 그려 보지 않으며, 크고 모두에게 이로운 필요가 없으면 아예 그려 보지 않는다. 그가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직 제 일뿐이고,³ 그는 전체에서 제 몫으로 자아져 나오는 것을 늘 마음에 둔다. 제 일은 훌륭하게 해내고, 제 몫은 좋은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저마다 나누어 받은 몫은 그 사람과 함께 실려 가고, 또 그 사람을 함께 싣고 가기 때문이다.

그는 또 기억한다. 이성적인 것은 모두 한 핏줄이고, 모든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사람의 본성에 맞는 일이지만, 평판은 아무에게서나 구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어긋남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서만 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어떤 인간인지, 어떤 자들이 어떤 자들과 뒤엉켜 지내는지를 그는 늘 잊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자들의 칭찬은 아예 셈에 넣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5 마지못해 행하지 말고, 공동체를 저버리고 행하지 말고, 따져 보지 않고 행하지 말고, 마음이 이리저리 끌리는 채로 행하지 마라. 꾸민 말로 네 생각을 치장하지 마라. 말 많은 사람도, 일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도 되지 마라. 또 네 안의 신이 돌보는 존재가 사내답고, 나이 지긋하고, 시민다운 로마인이자 통치자에게 하라. 제 자리를 지키고 서서, 삶에서 물러나라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언제나 선선히 떠날 준비가 된 사람, 맹세도 필요 없고 증인으로 세울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에게 하라. 네 안에는 밝은 기운이 있어야 하고, 밖에서 오는 시중도, 남이 베풀어 주는 고요도 필요 없어야 한다. 스스로 곧게 서야 한다. 남이 세워 주어서는 안 된다.

6 사람의 삶에서 정의, 진실, 절제, 용기보다 나은 것을, 한마디로 네 마음이 스스로 넉넉해하는 것보다 나은 것을 찾아낸다고 하자. 바른 이성을 따라 행할 때 네 마음은 그 행동으로 넉넉하고, 네가 고르지 않았는데 운명이 나누어 준 일에서도 넉넉하다. 거듭 말하지만, 이보다 나은 무엇이 보인다면 온 영혼으로 그쪽으로 돌아서서 네가 찾아낸 그 가장 좋은 것을 누려라. 그러나 네 안에 자리 잡은 신령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곧 제 충동들을 자기 아래 두고, 인상들을 따져 묻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감각의 이끌림에서 스스로를 떼어 내고, 스스로를 신들 아래 두고,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 신령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 그리하여 다른 모든 것이 이에 비해 작고 하찮다면, 다른 어떤 것에도 자리를 내주지 마라. 한 번 그쪽으로 기울어 비켜서면,

너만의 것이자 너의 것인 그 좋은 것을 더는 흐트러짐 없이 앞세울 수 없을 것이다. 이성적이고 시민다운 선에 맞서 그와 종류가 다른 것이 버티고 앓는 것은 무엇이든 옳지 않다. 대중의 칭찬이나 관직이나 부나 쾌락의 향유 같은 것 말이다. 이것들은 모두 잠깐은 잘 어울리는 듯 보여도 어느 순간 주인 노릇을 하며 너를 휩쓸어 간다. 그러니 거듭 말하지만, 너는 단순하게, 자유롭게 더 나은 것을 골라 그것을 붙들여라. "하지만 더 나은 것은 이로운 것이다." 이성적 존재로서 이로운 것이라면 그것을 지켜라. 그저 동물로서 이로운 것이라면 그렇다고 밝히고, 허영 없이 네 판정을 지켜라. 다만 따져 보는 일만은 빈틈없이 하라.

7 언젠가 너에게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염치를 버리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시치미를 떼게 하고, 벽과 휘장이 있어야 하는 무언가를 탐하게 할 것은 결코 네게 이롭다고 여기지 마라. 제 정신과 신령, 그리고 그 신령의 덕을 섬기는 의식을 무엇보다 앞세운 사람은 비극을 연출하지 않고, 한숨짓지 않으며, 홀로 있을 곳도 북적이는 무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는 좇지도 피하지도 않으며 살 것이다. 몸에 싸인 영혼을 더 오래 쓰게 될지 더 짧게 쓰게 될지는 조금도 마음 쓰지 않는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해도, 염치 있고 반듯하게 해낼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러 가듯 선선히 떠날 것이다. 평생 그가 조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 마음이 지성적이고 시민다운 동물에게 어울리지 않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8 단련되고 깨끗이 씻긴 사람의 마음에서는 굶은 것도, 더럽혀진 것도, 겉만 아물고 속은 굶은 상처도 찾아볼 수 없다. 운명이 그를 덮칠 때 그의 삶은 미완으로 끝나지 않는다. 극을 끝까지 다 마치기 전에 무대를 떠나는 비극 배우를 두고 하는 말을 그에게 할 수는 없다.

그에게는 또 종처럼 비굴한 것도, 꾸민 것도, 남에게 매인 것도, 남과 갈라선 것도, 책잡힐 것도, 숨어 웅크린 것도 없다.

9 판단하는 능력을 받들어라. 모든 것이 이 능력에 달려 있다. 자연에도, 이성적 동물의 본바탕에도 맞지 않는 판단이 네 지도 이성 안에 더는 생기지 않는 것도 이 능력에 달렸다. 그리고 그 본바탕이 약속하는 것은 선불리 판단하지 않는 신중함, 사람들을 제 식구로 여기는 마음, 신들을 따르는 마음이다.

10 그러니 다른 것은 다 내던지고 이 몇 가지만 붙들어라. 그리고 이것도 함께 기억하라. 누구나 사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눈 깜짝할 이 찰나뿐이다. 나머지는 이미 살아 버렸거나 알 수 없는 데 있다. 그러니 저마다 사는 시간은 작고, 사는 곳도 땅의 작은 귀퉁이다. 가장 오래가는 사후의 명성도 작다. 그마저도 금세 죽을 하찮은 인간들이 대를 이어 전할 뿐이고, 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니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11 앞서 말한 다짐들에 하나를 더 보태라.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늘 규정하거나 윤곽을 그려 두라.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보아 어떤 것인지, 벌거벗은 그대로, 통째로, 또 낱알이 나누어 보고, 그것의 제 이름과, 그것을 이룬 것들과 그것이 장차 풀려 돌아갈 것들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 보라. 삶에서 마주치는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참되게 따져 볼 수 있는 것만큼 도량을 넓혀 주는 것은 없다. 늘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은 어떤 우주 안에서 어떤 쓸모를 내고 있으며, 전체에 견주면 어떤 값어치가 있고, 가장 높은 도시의 시민인 사람에게는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 다른 도시들은 모두 그 도시에 딸린 집과 같다. 지금 내게 인상을 일으키는 이것은 무엇이며,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본디 얼마나 오래 머물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대하려면 어떤 덕이 필요한가? 온화함인가, 용기인가, 신의인가, 꾸밈없음인가,

자족인가, 그 밖의 덕인가? 그러므로 일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것은 신에게서 왔다. 이것은 함께 정해진 제비와 한데 엮여 자아지는 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주침과 우연을 따라 왔다. 이것은 같은 족속이자 한 핏줄이며 동료인 사람에게서 왔다. 다만 그는 무엇이 자기 본성에 맞는지 모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모르지 않는다. 그러니 자연이 정한 공동체의 법에 따라 그를 너그럽고 정의롭게 대한다. 그러면서도 선도 악도 아닌 것들에서는 저마다 그만한 값어치를 함께 겨냥한다.

12 바른 이성을 따라 눈앞의 일을 진지하게, 힘차게, 너그럽게 하고, 걸다리로 판것을 끼워 넣지 않고, 당장 돌려주어야 할 것처럼 네 신령을 깨끗하고 깨끗하게 지킨다고 하자.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아무것도 피하지 않으며 이렇게 해 나가고, 지금 하는 본성에 맞는 활동과, 네가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담긴 영웅다운 진실로 넉넉해한다면, 너는 잘 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3 의사들이 갑작스러운 치료에 대비해 늘 기구와 칼을 손이 닿는 곳에 두듯이, 너도 신성한 일과 사람의 일을 알아보기 위한 원칙(dogma)을 늘 준비해 두어라.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둘이 서로 묶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라. 신성한 일과 함께 해야리지 않고서는 사람의 일을 하나도 잘 해낼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14 더는 헤매지 마라. 너는 네 작은 비망록도, 옛 로마인과 그리스인의 행적도, 늙어서 읽으려고 책에서 가려 뽑아 모아 둔 글들도 끝내 읽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끝을 향해 서둘러라. 네가 너 자신을 조금이라도 아낀다면, 헛된 희망을 버리고 할 수 있을 때 너 자신을 도와라.

15 사람들은 모른다. '흠치다', '씨 뿌리다', '사다', '고요히 지내다', '해야 할 일을 보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뜻하는지. 해야 할 일을 보는 것은 눈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눈으로 하는 일이다.

16 몸, 영혼, 정신. 몸에는 감각이, 영혼에는 충동이, 정신에는 원칙이 달려 있다. 인상이 찍히는 것은 가축에게도 있다. 충동의 줄에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니는 것은 들짐승에게도, 여자 같은 사내들에게도, 팔라리스와 네로에게도 있다.⁴ 정신을 길잡이로 삼아 마땅히 할 일로 보이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신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조국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도, 문을 달아걸고 나서 무슨 짓이든 하는 자들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가 모두 방금 말한 자들과 공통이니, 좋은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남는 것은 이것이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자기 몫으로 자아진 일을 사랑하고 반기는 것, 그리고 가슴속에 자리 잡은 신령을 흐리지 않고 인상의 무리로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며 늘 평온하게 지키는 것, 반듯하게 신을 따르며 진실에 어긋나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정의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가 단순하게, 엄치 있게, 평안하게 산다는 것을 믿어 주지 않더라도, 그는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성내지 않고, 삶의 끝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 끝에는 깨끗하고, 고요하고, 선선히 떠날 수 있고, 억지 없이 제 몫과 하나로 어우러진 채로 이르러야 한다.

1.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의사다. 칼데아인은 바빌로니아 출신 점성가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대왕이고, 폼페이우스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장군이다.

2. 헤라클레이토스(기원전 6~5세기의 철학자)는 수종에 걸려 쇠뿔을 몸에 발라 고쳐 보려다 죽었다고 전한다. 이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보통 철학자 페레키데스의 것으로 전하며, 소크라테스를 죽인 '다른 종류의 이'는 그를 고발한 자들을 빗댄 말이다.

3. 원문 손상. '제 일만을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옮겼다.

4. 팔라리스는 기원전 6세기 시칠리아 아크라가스의 참주로, 사람을 낚시 황소 안에 넣어 구워 죽였다는 이야기로 이름났다. 네로는 로마 황제(재위 54~68)다.

제4권

1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 본성에 맞는 상태에 있을 때는,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주어진 것 쪽으로 가볍게 옮겨 갈 수 있는 자세로 서 있다. 그것은 정해 둔 어떤 질료에도 매달리지 않고, 먼저 꺾힌 것을 향하되 단서(hypexairesis)를 달고 나아가며, 그 대신 들어온 것은 제 질료로 삼는다. 불이 그렇다. 작은 등잔불이라면 위에 떨어지는 것들에 꺼져 버렸겠지만, 활활 타는 불은 그것들을 이겨 내고, 던져 넣은 것을 금세 제 것으로 삼아 태워 버리고, 바로 그것을 달고 더 높이 솟는다.

2 어떤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지 마라. 기술을 완성하는 원리를 따르지 않고는 하지 마라.

3 사람들은 물러나 쉴 곳을 찾는다. 시골집을, 바닷가를, 산을. 너 또한 그런 곳을 몹시 그리워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더없이 범속한 생각이다. 원할 때면 언제든 너 자신 안으로 물러날 수 있으니 말이다. 사람이 자기 영혼 속보다 더 고요하고 더 번거로움 없이 물러날 곳은 어디에도 없으니, 들여다보기만 하면 곧바로 더없이 편안해지는 것들을 안에 지닌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내가 말하는 편안함이란 다름 아닌 잘 정돈된 마음이다. 그러니 이 물러남(anachōrēsis)을 끊임없이 너 자신에게 베풀고, 너를 새롭게 하라. 거기 둘 것들은 짧고 근본적이어야 하고, 떠올리자마자 온갖 괴로움을 말끔히 씻어 내고 네가 돌아갈 일들에 짜증 내지 않도록 너를 돌려보내기에 넉넉해야 한다.

무엇에 짜증을 내겠느냐? 사람들의 악덕에? 그렇다면 이성적 동물은 서로를 위해 생겨났고, 참는 것도 정의의 한 부분이며,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른다는 결론을 되새겨라. 그리고 서로 적대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창을 겨누며 싸운 사람들이 이미 얼마나 많이 주검으로 눕혀지고 재가 되었는지 헤아려 보라. 그러고는 이제 그만하라. 아니면 전체에서 네게 나누어 준 것에 짜증을 내겠느냐? 그렇다면 '섭리이거나 원자이거나' 하는 양자택일을 다시 떠올리고, 우주가 이를테면 하나의 도시라는 것을 보여 준 술한 논증도 떠올려라. 아니면 몸의 일이 아직도 너를 붙들겠느냐? 그렇다면 마음은 한번 자기 자신을 거두어들이고 제 힘을 알고 나면, 부드럽게 움직이든 거칠게 움직이든 숨과 뒤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고통과 쾌락에 관해 네가 듣고 동의한 나머지 것들도 모두 생각해 보라.

아니면 보잘것없는 명성이 너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겠느냐? 그렇다면 바라보라.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잊히는지, 앞뒤로 끝없이 펼쳐진 시간의 심연이 어떠한지, 갈채가 얼마나 공허한지, 칭찬하는 듯한 자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분별이 없는지, 명성이 갇힌 곳이 얼마나 좁은지. 온 땅이 한 점에 지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사람 사는 이곳은 얼마나 작은 귀퉁이인가? 그리고 거기서 너를 칭찬할 사람은 몇이나 되며, 또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 이제 너 자신이라는 이 작은 땅으로 물러나는 일을 잊지 마라. 무엇보다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너무 조이지도 마라. 자유로워라. 그리고 사내로서,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죽을 생명체로서 일들을 바라보라. 가장 가까이 두고 들여다볼 것들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일들은 영혼에 닿지 않고 밖에 꿈쩍 않고 서 있을 뿐이며, 괴로움은 오로지 안에 있는 판단에서 생긴다는 것. 다른 하나는,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이 곧 바뀌어 더는 있지 않으리라는 것. 너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변화를 지켜보았는지 늘 생각하라. 우주는 변화요, 삶은 판단이다.

4 지성이 우리에게 공통이라면,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 만드는 이성도 공통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명하는 이성도 공통이다. 그렇다면 법도 공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나라에 함께 속해 있다. 그렇다면 우주는 이를테면 하나의 도시다. 온 인류가 함께 속해 있다고 할 만한 나라가 이것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법을 아는 힘은 바로 거기서, 이 공통의 도시에서 온다. 아니면 어디서 오겠는가? 내 안의 흙은 어떤 흙에서 떼어 받은 것이고, 물기는 다른 원소에서, 숨은 어떤 샘에서, 뜨겁고 불 같은 것은 또 그 나뭇의 샘에서 떼어 받은 것이다(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은 없고,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도 없으니). 그렇듯 지성도 어딘가에서 온다.

5 죽음은 태어남과 같은 것, 자연의 신비다. 같은 원소들이 모이는 것이고, 같은 원소들로 흩어지는 것이다. 무엇 하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지성적 동물에게 이어지는 순리에도, 그 본바탕의 이치에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6 이런 일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무화과나무에 즙이 없기를 바라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너도 그도 죽을 것이고, 머지않아 너희 이름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7 판단을 건어 내라. 그러면 '나는 해를 입었다'는 말도 건힌다. '나는 해를 입었다'는 말을 건어 내라. 그러면 해도 건힌다.

8 사람을 그 자신보다 못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그의 삶도 못하게 만들지 않고, 밖에서든 안에서든 그를 해치지 않는다.

9 이로운 것의 본성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10 "일어나는 일은 모두 정당하게 일어난다."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저 차례가 맞는다는 말이 아니다. 정의에 맞게, 마치 누군가 저마다의 값어치대로 나누어 주듯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그러니 시작한 대로 계속 살펴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 좋은 사람이 되는 일과 함께 하라. 좋은 사람이라는 말의 본뜻 그대로 좋은 사람 말이다. 모든 활동에서 이것을 지켜라.

11 너를 모욕하는 자가 판정하는 대로, 또는 네가 그렇게 판정하기를 그가 바라는 대로 일들을 판단하지 마라. 그것들이 참으로 어떠한지 보라.

12 늘 두 가지 채비를 해 두어야 한다. 하나는 다스리고 법을 세우는 기술의 이성이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일러 주는 것만 행할 채비다. 다른 하나는 누가 곁에서 바로잡아 주며 어떤 그릇된 생각에서 너를 돌려세울 때 생각을 바꿀 채비다. 다만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정의롭다거나 모두에게 이롭다거나 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에서 나와야 하고, 마음을 움직인 까닭도 그런 것이어야지, 즐거워 보인다고나 이름이 날 것 같다는 까닭이어서는 안 된다.

13 "너에게 이성이 있느냐?" "있다." "그런데 왜 쓰지 않느냐? 이성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느냐?"

14 너는 부분으로 생겨났다. 너는 너를 낳은 것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변화를 거쳐 그것의 씨앗 이성(spermatikos logos) 속으로 다시 거두어질 것이다.

15 같은 제단 위에 향 덩어리가 여럿. 하나는 먼저 떨어지고 하나는 나중에 떨어진다. 아무 차이도 없다.

16 원칙으로, 이성을 섬기는 일로 돌아가기만 하면, 지금 너를 짐승이나 원숭이로 보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열흘 안에 너는 신으로 보일 것이다.

17 만 년이나 살 것처럼 굴지 마라. 죽음이 머리 위에 걸려 있다. 살아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동안 좋은 사람이 되어라.

18 이웃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들여다보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하는 일만 보며 바로 그 일이 정의롭고 거룩한지 살피는 사람은 얼마나 큰 여유를 얻는가! 아니면 좋은 사람답게,¹ 남의 검은 성품을 두리번거리며 살피지 말고 줄을 따라 곧게 달려라. 흐트러지지 말고.

19 사후의 명성에 마음이 들뜬 사람은 이것을 그려 보지 못한다.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하나하나 머지않아 죽을 것이고, 그 뒤를 이은 사람도 또 죽어서, 마침내 모든 기억이 불붙었다 꺼지는 사람들을 거치며 이어지다가 꺼져 버리리라는 것을. 기억할 사람들이 죽지 않고 기억도 죽지 않는다고 해 보자. 그래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인가? 죽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칭찬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다. 무슨 실속이 있다면 몰라도. 자연이 준 선물 이야기는 지금 꺼낼 때가 아니니 접어 두어라. 그것은 이제 다른 논의에 속한다.²

20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것은 모두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자체에서 끝난다. 칭찬은 그것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니 칭찬을 받는다고 더 나빠지지도 더 나아지지도 않는다. 흔히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 이를테면 물질로 된 것이나 기술로 만든 작품을 두고도 나는 이렇게 말한다(참으로 아름다운 것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법이나 진실이나 선의나 염치에 더 필요한 것이 없듯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가운데 무엇이 칭찬을 받아서 아름답고, 비난을 받아서 망가지는가? 에메랄드가 칭찬을 받지 못하면 제 본래보다 못해지는가? 황금은? 상아는? 자줏빛 옷감은? 리라는? 작은 칼은? 꽃 한 송이는? 작은 나무는?

21 영혼이 죽은 뒤에도 남는다면, 공기는 그토록 오랜 옛날부터 어떻게 그 영혼들을 다 담아 두는가? 그러면 땅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묻힌 사람들의 몸을 어떻게 다 담는가? 이 땅에서는 몸이 얼마 동안 머문 뒤 바뀌고 흩어져 다른 주검들에게 자리를 내준다. 그렇듯 공기 속으로 옮겨 간 영혼들도 얼마 동안 뭉쳐 있다가 바뀌고 퍼지고 불이 되어 전체의 씨앗 이성 속으로 거두어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 들어와 함께 살 영혼들에게 자리를 내준다. 영혼이 남는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묻히는 몸의 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동물들이 날마다 먹어 치우는 동물의 수도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수가 소모되어 먹는 자들의 몸속에 이를테면 묻히는가! 그런데도 같은 자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인다. 피로 바뀌고, 공기나 불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일에서 진실을 캐는 길은 무엇인가? 질료적인 것과 원인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

22 이리저리 헤매지 마라. 충동이 일 때마다 정의를 따르고, 인상(phantasia)이 떠오를 때마다 확실히 붙잡은 것만 지켜라.

23 오, 우주여, 너와 잘 어울리는 것은 모두 나와도 어울린다. 너에게 제때인 것은 내게 이르지도 늦지도 않다. 오, 자연이여, 네 계절이 가져오는 것은 모두 내게 열매다. 모든 것이 너에게서, 모든 것이 네 안에, 모든 것이 너에게로. 그 시인은 "케크롭스의 사랑하는 도시여"라고 했다.³ 그런데 너는 "제우스의 사랑하는 도시여"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24 "평안하려면 일을 적게 하라"고 그는 말한다.⁴ 차라리 꼭 필요한 일을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본디 시민다운 동물의 이성이 요구하는 일을, 요구하는 대로 하는 편이. 그러면 일을 잘해서 오는 평안뿐 아니라 일을 적게 해서 오는 평안도 얻는다. 우리가 하는 말과 일은 대부분 꼭 필요하지 않으니, 그것을 덜어 내면 여유는 더 많아지고 동요는 줄어든다. 그러니 일마다 스스로에게 일깨워야 한다.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이 아닐까? 꼭 필요하지 않은 행동만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 인상도 덜어 내야 한다. 그래야 쓸데없는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는다.

25 좋은 사람의 삶이 너에게 어떻게 맞는지 시험해 보라. 전체에서 나누어 받은 몫을 기꺼워하고, 제 행동이 정의롭고 제 마음가짐이 너그러운 것으로 넉넉해하는 사람의 삶 말이다.

26 너는 저것들을 보았다. 이것들도 보라. 스스로를 어지럽히지 마라. 너를 단순하게 하라. 누가 잘못을 저지르는가?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다.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잘되었다. 일어나는 일은 모두 처음부터 전체에서 너에게 함께 정해지고 함께 자아진 것이다. 한마디로 삶은 짧다. 바른 헤아림과 정의로 지금을 얻어 내야 한다. 느긋하게 깨어 있어라.

27 질서 잡힌 우주이거나, 아무렇게나 휘저어 섞은 잡탕이거나. 그러나 우주다.⁵ 네 안에는 어떤 질서가 설 수 있는데 전체에는 무질서가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모든 것이 이렇게 저마다 갈라져 있으면서 두루 퍼져 있고 서로 느끼며 이어져 있는데?

28 검은 성품, 여자 같은 성품, 고집 센 성품, 짐승 같은, 가축 같은, 어린애 같은, 어리석은, 겉과 속이 다른, 천박하게 까부는, 장사치 같은, 폭군 같은 성품.

29 우주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자가 우주의 이방인이라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자도 그에 못지않은 이방인이다. 도시의 이성에서 달아나는 자는 도망자다. 지성의 눈을 감은 자는 눈먼 자다. 남에게 기대고 삶에 쓸모 있는 모든 것을 제 안에서 얻지 못하는 자는 거지다. 일어나는 일에 불만을 품어 공통의 자연이 지닌 이성에서 물러나 스스로를 갈라놓는 자는 우주에 돋은 종기다. 그 일을 내놓는 것도 자연이고, 너를 내놓은 것도 자연이기 때문이다. 이성적 존재들의

영혼은 하나인데, 거기서 제 영혼을 떼어 내는 자는 도시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이다.

30 어떤 이는 속옷도 없이 철학을 하고, 어떤 이는 책도 없이 한다. 또 하나는 반쯤 벗은 채로 말한다. "나는 빵이 없다. 그래도 이성을 굳게 지킨다." 나는 배움에서 얻는 양식이 없다. 그래도 굳게 지킨다.

31 네가 배운 작은 기술을 아끼고, 거기에 기대어 쉬어라. 남은 삶은 네 모든 것을 온 영혼으로 신들에게 맡긴 사람처럼 지나가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폭군이 되지 말고 누구의 종도 되지 마라.

32 예를 들어 베스파시아누스 시대를 떠올려 보라.⁶ 너는 똑같은 것을 모두 보게 될 것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병들고, 죽고, 전쟁하고, 잔치하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아침하고, 거만을 떨고, 의심하고, 음모를 꾸미고, 누가 죽기를 빌고, 제 처지에 투덜대고, 사랑에 빠지고, 재물을 쌓고, 집정관 자리와 왕좌를 탐내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다시 트라야누스 시대로 옮겨 가 보라. 또다시 모두 똑같다. 그 삶도 죽었다. 다른 시대와 온 민족들의 기록도 마찬가지로 찬찬히 훑어보고, 얼마나 많은 이가 온 힘을 쏟다가 얼마 못가 쓰러져 원소로 풀려 버렸는지 보라. 무엇보다 네가 직접 알았던 사람들, 헛된 것에 매달려 애쓰느라 자기 본바탕에 맞는 일을 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그것으로 넉넉해하기를 내버린 사람들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다. 일마다 기울이는 관심에도 그 일에 맞는 값어치와 정도가 있다. 그래야 작은 일에 마땅한 것보다 오래 매달리지 않아서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33 예전에 흔히 쓰던 말들이 지금은 풀이가 있어야 알아듣는 옛말이 되었다. 그렇듯 한때 크게 칭송받던 사람들의 이름도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옛말이 되었다. 카밀루스, 카이소, 볼레수스, 덴타투스가 그렇고, 조금 지나서는 스키피오와 카토가, 그다음에는 아우구스투스가,

그다음에는 하드리아누스와 안토니누스가 그렇다.⁷ 모든 것은 금세 빛이
바래 옛이야기가 되고, 금세 완전한 망각이 덮어 묻어 버린다. 이것도
놀랍도록 빛났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숨을
거두자마자 "자취도 없고 소문도 없다."⁸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온통 헛된 것이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힘쓸 일은 무엇인가?
이것 하나다. 정의로운 마음, 공동체를 위한 행동,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 말,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필연으로, 낯익은 것으로, 그와
같은 근원과 샘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반기는 마음가짐.

34 기꺼이 너 자신을 클로토에게 내맡겨라. 그 여신이 원하는 어떤
일에든 너를 엮어 짚게 하라.⁹

35 모든 것은 하루살이다. 기억하는 쪽도, 기억되는 쪽도.

36 모든 것이 변화를 거쳐 생겨난다는 것을 늘 지켜보고, 우주의
본성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은 있는 것들을 바꾸어 그와 비슷한 새것을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라. 있는 것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장차 그것에서 생겨날 것의 씨앗이다. 그런데 너는 땅이나 자궁에
뿌려지는 것만 씨앗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너무 범속한 생각이다.

37 너는 곧 죽는다. 그런데도 아직 단순하지 못하고, 동요를 벗어나지
못하고, 밖에서 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모두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분별 있음이 오직 정의롭게 행하는 데 있다고
여기지도 못한다.

38 그들의 지도 이성(hēgemonikon)을 꿰뚫어 보라. 분별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좇는지 보라.

39 네 악은 남의 지도 이성 안에 있지 않다. 너를 감싼 몸이 이리저리
바뀌고 달라지는 데에도 있지 않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악에 관해
판단하는 네 부분에 있다. 그러니 그 부분이 판단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다. 그것과 가장 가까운 것, 이 보잘것없는 몸이 베이고 불에 지져지고 끓고 썩더라도, 이것들에 관해 판단하는 부분은 잠잠하게 하라. 곧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악도 선도 아니라고 판정하게 하라. 본성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에게나 본성에 맞게 사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본성에 맞는 것도 본성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40 우주를 하나의 실체와 하나의 영혼을 지닌 한 생명체로 늘 생각하라. 모든 것이 어떻게 그 생명체의 한 감각으로 모여드는지, 어떻게 그것이 하나의 충동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는지, 어떻게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든 일의 공동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실이 얼마나 촘촘히 함께 자아지고 함께 엮여 있는지를.

41 너는 송장을 짊어진 작은 영혼이다. 에픽테토스가 늘 말했듯이.

42 변해 가는 것에게 나쁠 것은 없다. 변화에서 생겨나는 것에게 좋을 것이 없듯이.

43 시간은 일어나는 일들로 이루어진 강이고 거센 물살이다. 무엇이든 눈에 띄자마자 휩쓸려 가고, 다른 것이 떠내려오고, 그것도 곧 휩쓸려 갈 것이다.

44 일어나는 일은 모두 봄의 장미나 여름의 과일처럼 흔하고 낯익다. 병도, 죽음도, 비방도, 음모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하거나 괴롭히는 모든 것이 그렇다.

45 뒤에 오는 것은 언제나 앞서간 것에 걸맞게 이어진다. 그것은 따로 떨어진 것들을 그저 필연에 따라 줄줄이 세어 놓은 목록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이어짐이다. 있는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게 짜여 있듯이, 생겨나는 것들도 그저 잇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친밀함을 드러낸다.

46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늘 기억하라.¹⁰ 흙의 죽음은 물이 되는 것이고, 물의 죽음은 공기가 되는 것이며, 공기의 죽음은 불이 되는 것이고, 거꾸로도 그렇다.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잊어버린 사람도 기억하라. 또 사람들은 가장 끊임없이 함께하는 것, 곧 전체를 다스리는 이성과 다투며, 날마다 마주치는 것들을 낯설어한다는 것도. 그리고 잠든 사람처럼 행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잠들어서도 우리는 행하고 말한다고 여기니까. 또 부모를 따르는 아이들처럼, 곧 물려받은 대로 덮어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47 어느 신이 네게 너는 내일, 늦어도 모레는 죽는다고 말했다 하자. 네가 아주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일보다 모레 죽는 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듯 내일보다 먼 훗날 몇 해 뒤에 죽는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여겨라.

48 늘 생각하라. 얼마나 많은 의사가 환자를 두고 자주 눈살을 찌푸리다가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점성가가 남의 죽음을 대단한 일인 양 예언하다가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철학자가 죽음이나 불멸을 두고 끝없이 논쟁을 벌이다가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용사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폭군이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무섭게 거들먹거리며 사람의 목숨을 쥐고 휘두르다가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도시가, 말하자면 통째로 죽었는지. 헬리케와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그 밖에 셀 수 없는 도시들이.¹¹ 네가 아는 사람들도 차례로 떠올려 보라.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묻어 주고 나서 자기도 주검이 되어 눕혀졌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묻어 주고 그렇게 되었으니, 모두 잠깐 사이의 일이다. 요컨대 늘 사람의 일을 하루살이요 하찮은 것으로 내려다보라. 어제는 한 방울 점액이던 것이 내일은 미라나 재가 된다. 그러니 이 찰나의 시간을 본성에 맞게 지나가고, 기꺼운 마음으로

끝맺어라. 잘 익은 올리브가 저를 낳은 대지를 기리고 저를 길러 준 나무에 고마워하며 떨어지듯이.

49 꽃처럼 되어라. 파도가 쉼 없이 부딪쳐도 꽃은 곳곳이 서 있고, 그 둘레에서 들끓던 물은 잠잠해진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나는 불운하다."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괴로워하지 않고, 지금 일에 짓눌리지도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내니, 나는 운이 좋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을 겪고도 누구나 괴로워하지 않고 지냈을 리는 없다. 그런데 왜 저것은 불운이라 하면서 이것은 행운이라 하지 않는가? 사람의 본성이 빗나간 것이 아닌 것을 너는 도대체 사람의 불운이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바라는 바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빗나간 것으로 보이느냐? 그래서? 그 바라는 바는 너도 배웠다. 일어난 이 일이 너를 가로막아, 정의롭고, 도량이 크고, 절제하고, 분별 있고, 선부르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염치 있고, 자유로울 수 없게 하는가? 그 밖에, 함께 갖추면 사람의 본성이 제 몫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들을 갖추 수 없게 하는가? 앞으로는 괴로움으로 이끄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원칙을 쓰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불운이 아니다. 이것을 의연하게 견디는 것이 행운이다.

50 범속하지만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다.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데에는, 삶에 악착같이 매달렸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들이 일찍 죽은 사람들보다 더 얻은 것이 무엇인가? 카디키아누스, 파비우스, 율리아누스, 레피두스, 그 밖에 그런 누구든, 많은 사람을 무덤으로 실어 내보내고 그다음엔 자기가 실려 나간 그들도 결국 어딘가에 누워 있다. 다 합해도 그 사이는 짧은데, 그나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보잘것없는 몸에 담겨 힘겹게 퍼내듯 다 써 버리는가? 그러니 대단한 일로 여기지 마라. 뒤를

보라. 아득히 입을 벌린 시간이 있다. 앞을 보라. 또 하나의 끝없음이 있다. 이 안에서 사흘을 산 자와 세 세대를 산 자가 무엇이 다른가?¹²

51 늘 지름길로 달려라. 지름길은 본성에 맞는 길이다. 그러니 무슨 말이든 무슨 일이든 가장 건전하게 하라. 이런 결심이 수고와 꾸물거림, 온갖 잔꾀와 겉치레에서 사람을 풀어 준다.

1. 원문 손상. '좋은 사람답게'로 옮긴 대목을 '아가톤의 말처럼'으로 고쳐 읽기도 한다. 아가톤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비극 시인이다.

2. 이 문장은 뜻이 분명하지 않아 원문이 어긋났다고 보는 이가 많다. 여기서는 쓰인 문법대로 옮겼다.

3. 케크롭스는 아테네의 전설 속 첫 왕이고, '케크롭스의 사랑하는 도시'는 아테네를 이른다. 아리스토파네스의 단편에서 온 구절로 보인다.

4. 데모크리토스의 말이다(딜스-크란츠 단편 3).

5. 그리스어 kosmos는 '우주'와 '질서'를 함께 뜻한다. 이 장은 두 뜻을 겹쳐 쓴다.

6. 베스파시아누스(재위 69~79)와 트라야누스(재위 98~117)는 마르쿠스보다 앞선 로마 황제다.

7. 카밀루스·카이소·볼레수스·덴타투스는 로마 공화정 옛 시절의 영웅들이고, 스키피오와 카토는 공화정 시대의 이름난 장군과 정치가다. 아우구스투스는 초대 황제, 하드리아누스와 안토니누스(피우스)는 마르쿠스 바로 앞의 황제들이다.

8.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1.242.

9. 클로토는 운명의 실을 잣는 세 여신(모이라이) 가운데 하나다.

10. 이 장의 구절들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에서 가져왔다(딜스-크란츠 단편 76, 71~74).

11. 헬리케는 기원전 373년 지진과 해일로 바다에 잠긴 그리스 아카이아의 도시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은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 묻혔다.

12. 카디키아누스·파비우스·율리아누스·레피두스는 오래 산 사람들로 보이나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세 세대를 산 자'(trigerênios)는 세 세대를 살았다는 호메로스의 '게레니아 사람 네스토르'에 빗댄 말이다.

제5권

1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 꾸물거릴 때는 이 생각을 곁에 두어라. 나는 사람의 일을 하러 일어난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왔는지, 바로 그 일을 하러 가는데 왜 언짢아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불 속에 누워 몸이나 데우라고 만들어졌는가? "하지만 이쪽이 더 즐겁다." 그렇다면 너는 즐기려고 태어났느냐? 한마디로, 너는 가만히 겪으려고 태어났느냐, 움직여 행하려고 태어났느냐? 작은 풀과 작은 새, 개미와 거미와 벌이 저마다 제 일을 하며 힘을 모아 제 몫만큼 세상의 질서를 짜 맞추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사람의 일을 하기 싫다는 거냐? 네 본성에 맞는 일로 달려가지 않겠다는 거냐? "하지만 쉬기도 해야 한다." 그건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자연은 쉬는 데에도 한도를 정해 주었고, 먹고 마시는 데에도 한도를 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한도를 넘고 넉넉한 정도를 넘어서면서, 일에서만은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에도 미치지 못한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네 본성도, 본성이 바라는 것도 사랑할 테니까. 제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씻지도 먹지도 않고 그 일에 매달려 몸이 닳는다. 그런데 너는 금속에 무늬를 새기는 장인이 제 기술을, 춤꾼이 춤을, 돈을 밝히는 자가 돈을, 허영에 들뜬 자가 보잘것없는 명성을 아끼는 것보다도 네 본성을 덜 아끼느냐? 이들은 한번 빠져들면 먹고 자는 것보다 자기가 매달린 것을 불러 나가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너에게는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 그보다 값싸 보이고 덜 애쓸 만해 보이느냐?

2 성가시거나 낯선 인상(phantasia)은 무엇이든 밀어내고 지워 버리고, 곧바로 더없이 잔잔해지기란 얼마나 쉬운 일인가.

3 본성에 맞는 말과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네가 할 만하다고 여겨라. 그 뒤에 따라오는 누군가의 비난이나 뒷말에 휘둘리지 마라. 하는 일이나 하는 말이 훌륭하다면, 너 자신을 그럴 자격이 없다고 깎아내리지 마라. 저들에게는 저들의 지도 이성(hēgemonikon)이 있고, 저들은 저들의 충동을 따른다. 너는 그런 것을 기웃거리지 말고, 네 본성과 공통의 자연을 따라 곧은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두 길은 하나다.

4 나는 자연에 맞는 일들을 거치며 내 길을 간다. 쓰러져 쉴 때까지. 날마다 들이쉬는 그 공기 속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아버지가 씨를, 어머니가 피를, 유모가 젖을 거두어 얻은 그 땅 위에 쓰러질 때까지. 그 땅에서 나는 이 많은 해 동안 날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는다. 그 땅은 자기를 짓밟고 온갖 일에 마구 써 대는 나를 떠받쳐 준다.

5 사람들이 네 재치가 날카롭다고 감탄할 일은 없다. 그렇다 치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타고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밖에도 많다. 그러니 온전히 너에게 달린 그것들을 보여 주어라. 속임 없는 정직, 진중함, 고생을 견디는 끈기, 쾌락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제 몫을 탓하지 않는 마음, 적은 것으로 넉넉해하는 마음, 너그러움, 자유로움, 군더더기 없는 소박함, 허튼소리 하지 않는 입, 큰 도량을. 타고난 재주가 없다거나 맞지 않는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것을 지금 당장 얼마나 많이 보여 줄 수 있는데도 네가 아직 제 발로 낮은 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아니면 타고난 바탕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투덜대고, 웅졸하게 굴고, 아첨하고, 하찮은 몸뚱이를 탓하고, 비위를

맞추고, 허세를 부리며, 영혼이 이토록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냐? 신들에게 맹세코, 그렇지 않다. 너는 진작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굳이 힘을 잡힌다면, 기껏해야 조금 굶뜨고 알아듣는 것이 더디다는 말을 들을 뿐이었다. 그것마저 갈고닦아야 한다. 굶뜨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도 말고, 오히려 즐기지도 말고.

6 어떤 사람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해 주고 나면 곧바로 그것을 상대에게 베푼 은혜로 셈해 둔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서두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빚진 사람처럼 여기고 자기가 무엇을 해주었는지 잊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른다. 그는 포도송이를 맺은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나무는 제 열매를 한 번 맺고 나면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달리기를 마친 말, 짐승의 자취를 쫓은 개, 꿀을 만든 벌, 그리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그것을 떠벌리지 않고 다음 일로 넘어간다. 철이 오면 다시 포도송이를 맺으러 가는 포도나무처럼. 그러니 너도 어찌 보면 자기가 하는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 하지만 바로 그것은 알아차려야 한다. 공동체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공동체를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는 데 있고, 제우스에 맹세코, 함께하는 이도 그것을 느끼기를 바라는 데 있다고 하지 않느냐." 네 말이 옳다. 그러나 너는 지금 한 말을 잘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너는 내가 앞에서 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들도 그럴듯한 논리에 끌려 길을 잘못 든다. 지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면, 그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나라도 빠뜨리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7 아테네인의 기도. "비를 내리소서, 비를 내리소서, 사랑하는 제우스여, 아테네인의 밭과 들 위에." 기도는 아예 하지 말든지, 하려면 이렇게 소박하고 떳떳하게 해야 한다.

8 "아스클레피오스¹가 이 사람에게 말 타거나 냉수욕이나 맨발로 걷기를 처방했다"는 말이 있다. "우주의 본성이 이 사람에게 병이나 불구나 상실이나 그 밖의 그런 일을 처방했다"는 말도 그와 같다. 앞의 말에서 '처방했다'는 대략 이런 뜻이다. 이 사람의 건강에 맞는 것으로 이것을 정해 주었다는 것. 뒤의 말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마다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의 운명에 맞는 것으로 어떻게든 그에게 정해져 있다.

우리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symbainein)'고 말하는 것도, 석공들이 성벽이나 피라미드의 네모난 돌들이 일정한 짜임새로 서로 맞물리는 것을 두고 돌들이 '들어맞는다(symbainein)'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² 모든 것을 통틀어 조화하는 하나뿐이다. 우주가 모든 물체로 채워져 그런 하나의 물체가 되듯이, 운명도 모든 원인으로 채워져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된다.

내 말은 배운 것 하나 없는 사람들도 알아듣는다. 그들도 "이 일이 그에게 올 몫이었다"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이 일은 이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었고, 이 사람에게 처방되어 있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아스클레피오스의 처방처럼 받아들이자. 그 처방에도 쓰라린 것이 많지만, 우리는 건강해지리라는 희망으로 그것을 받긴다.

공통의 자연이 좋다고 여긴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네 건강과 같은 것으로 여겨라.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좀 가혹해 보이더라도 반가이 맞아라. 그 일이 너를 그곳으로, 곧 우주의 건강으로, 제우스가 순탄하게 나아가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쪽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전체에 이롭지 않았다면 그 일은 누구에게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본성이라도 자기가 다스리는 것에 맞지 않는 것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니 두 가지 이유에서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달게 받아야 한다. 하나는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났고, 너에게 처방되었고, 어떻게든 너와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일은 맨 처음의 가장 오랜 원인들에서부터
 실처럼 함께 자아져 내려왔다. 또 하나는 저마다에게 따로 찾아오는
 일도 전체를 다스리는 이에게는 그가 순탄하게 나아가고 일을 완성하는
 원인, 제우스에 맹세코, 그가 존속하는 원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부분들이 그렇듯 원인들도, 서로 맞닿고 이어진 것을 조금이라도 잘라
 내면 전체는 온전하지 못하고 불구가 된다. 그런데 너는 불평할 때마다
 네 힘이 미치는 만큼 그것을 잘라 내고, 어찌 보면 없애 버린다.

9 올바른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행하는 일이 늘 이어지지 않는다고
 역겨워하지도, 지쳐 손을 놓지도, 낙담하지도 마라. 밀려나면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일이 대체로 사람다우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네가
 돌아가는 그 일을 사랑하라. 철학에 돌아갈 때는 훈육 선생에게
 돌아가듯 하지 말고, 눈병 난 사람이 해면과 달걀을 찾아가듯, 누구는
 고약을, 누구는 더운물 찜질을 찾아가듯 하라. 그러면 이성에 따르는
 것을 내세울 일 없이 이성에 기대어 쉬게 될 것이다. 철학은 네 본성이
 바라는 것만을 바란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너는 본성에 맞지 않는
 다른 것을 바랐다. "이보다 더 기분 좋은 것이 어디 있는가?" 쾌락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 큰 도량, 자유,
 소박함, 어진 마음, 거룩함이 더 기분 좋지 않은지 살펴보라. 이해하고
 아는 힘이 어떤 일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별 그 자체보다 더 기분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10 사물은 어찌 보면 너무 깊이 감싸여 있어서, 적지 않은 철학자들,
 그것도 범상치 않은 이들에게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스토아학과 사람들에게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동의(synkatathesis)는 모두 바뀔 수 있다.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번에는 대상 자체로 옮겨 가
 보라. 얼마나 잠깐이고 하찮은지, 남창이나 창녀나 강도의 손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는 함께 사는 사람들의 됴됨이로 옮겨 가 보라. 그중 가장 상냥한 사람조차 견디기 힘들다. 사람이 자기 자신조차 겨우 참아 낸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어둠과 오물 속에서, 실체와 시간과 운동과 움직이는 것들이 이토록 흘러가는 가운데, 높이 칠 만한 것이나 애써 좇을 만한 것이 대체 무엇이 있는지 나는 짐작조차 못 하겠다. 오히려 스스로를 달래며 자연스러운 해체를 기다려야 한다. 늦어진다고 안달하지 말고, 오직 이 두 가지에 기대어 쉬어라. 하나는 이것이다. 우주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은 나에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것이다. 나는 내 신이자 신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나더러 그를 거스르라고 강요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11 나는 지금 내 영혼을 무엇에 쓰고 있는가? 일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묻고 따져 보라. 사람들이 지도 이성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지금 무엇이 들어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의 영혼을 지니고 있는가? 어린아이의 영혼인가? 풋내기 청년의 것인가? 가냘픈 여인의 것인가? 폭군의 것인가? 가축의 것인가? 들짐승의 것인가?

12 많은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이것으로도 알 수 있다. 누군가 분별, 절제, 정의, 용기처럼 참으로 좋은 것을 먼저 마음에 떠올린다면, 그다음에 '좋은 것이 하도 많아서'라는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떠올린 사람은 희극 시인이 한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제법 잘 들어맞는 말이라며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³ 이렇듯 많은 사람도 그 차이를 어렵듯이 느낀다. 그렇지 않다면, 앞의 경우에는 그 말이 거슬려 물리치면서, 부나 사치나 명예를 가져다주는 행운을 두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말을 적절하고 재치 있다며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러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어보라. 먼저 떠올리고 나면 그것을 가진

사람은 하도 넉넉해서 '똥 놀 데도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13 나는 원인적인 것과 질료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 가운데 어느 것도 없음에서 생겨나지 않았듯이, 어느 것도 사라져 없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내 모든 부분은 변화를 거쳐 우주의 어떤 부분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것은 다시 우주의 다른 어떤 부분으로 바뀌며,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나도 그런 변화를 거쳐 생겨났고 나를 낳은 이들도 그랬으며, 거슬러 올라가면 또 다른 끝없음에 이른다. 우주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다스려진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

14 이성과 이성의 기술은 그 자체로, 또 저마다의 일에 넉넉한 힘이다. 둘은 제 출발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해 앞에 놓인 목적을 향해 길을 간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바른 행동(katorthōsis)'이라고 부른다. 길이 곧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다.

15 사람이 사람인 한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사람의 것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본성이 약속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본성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사람의 목적도 그 안에 있지 않고, 목적을 채워 주는 것, 곧 선도 그 안에 있지 않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 그것을 깔보고 거스르는 일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쉽지 않은 사람이 칭찬받을 리도 없고, 그런 것을 스스로 덜어 내는 사람이 선할 리도 없다.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 이런 것이나 이와 비슷한 다른 것을 스스로에게서 많이 덜어 낼수록, 또는 그중 무엇을 빼앗기고도 잘 견딜수록 그만큼 더 선하다.

16 무엇을 자주 떠올리느냐에 따라 네 마음은 그와 같아진다. 영혼은 인상에 물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인상을 끊임없이 떠올려 영혼을 물들여라. 이를테면 이렇다.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서 잘 살 수도 있다. 궁정에서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궁정에서도 잘 살 수 있다. 또 이렇다.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든 그쪽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는 그곳에 그것의 목적이 있으며, 목적이 있는 곳에 저마다의 이익과 선도 있다. 그러므로 이성적 동물의 선은 공동체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밝혀졌다. 못한 것은 나은 것을 위해 있고, 나은 것은 서로를 위해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영혼 없는 것보다 영혼 있는 것이 낫고, 영혼 있는 것 가운데서는 이성적인 것이 낫다.

17 불가능한 것을 좇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데 못된 자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기로 불가능하다.

18 누구에게도 타고난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똑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도, 그는 그 일이 일어난 줄 몰라서든 큰 도량을 내보이려 해서든, 흔들림 없이 다치지 않고 버틴다. 무지와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분별보다 강하다니, 기막힌 노릇이다.

19 사물 자체는 어떻게든 영혼에 닿지 못한다. 영혼으로 들어갈 길도 없고, 영혼을 돌려세우거나 움직일 수도 없다. 영혼을 돌리고 움직이는 것은 영혼 자신뿐이다. 그리고 영혼은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릴 만하다고 여기느냐에 따라, 바깥에 놓인 것들을 그와 같은 것으로 만든다.

20 한편으로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다.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 주고 그들을 참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내 본분의 일을 가로막는 한, 사람은 내게 해나 바람이나 들짐승과 다를 바 없이 선도 악도 아닌 것(adiaphora)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들

때문에 어떤 행동은 가로막힐 수 있다. 그러나 내 충동과 마음가짐은 가로막히지 않는다. 단서(hypexairesis)를 달아 두고 방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행동을 가로막는 것을 무엇이든 돌려서 제가 앞세운 목적 쪽으로 옮겨 놓는다. 그래서 일을 멈추게 하던 것이 일을 밀어 주고, 길을 막던 것이 길을 열어 준다.

21 우주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받들어라. 그것은 모든 것을 부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네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받들어라. 그것은 앞의 것과 같은 종류다. 네 안에서조차 나머지를 부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네 삶을 다스리는 것도 그것이다.

22 도시에 해롭지 않은 것은 시민도 해치지 않는다. 해를 입었다는 인상이 들 때마다 이 잣대를 대 보라. 이 일로 도시가 해를 입지 않았다면 나도 해를 입지 않았다. 도시가 해를 입었다면 화낼 것이 아니라, 도시를 해친 사람에게 그가 무엇을 놓쳤는지 보여 주어야 한다.

23 있는 것과 생겨나는 것이 얼마나 빨리 흘러 지나가고 사라지는지 자주 생각하라. 실체는 강물처럼 쉽 없이 흐르고, 작용은 끊임없이 바뀌고, 원인은 수없이 모습을 바꾼다. 멈춰 서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바로 곁에 있는 것조차 그렇다.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은 끝없이 입을 벌린 심연이어서 모든 것이 그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니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쭐대거나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무엇이 오래도록 자기를 괴롭힌다며 한탄하는 사람이 어찌 어리석지 않겠는가?

24 실체 전체를 기억하라. 너는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몫을 나누어 가졌을 뿐이다. 시간 전체를 기억하라. 너에게는 그 가운데 짧은 한순간이 떼어 주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운명을 기억하라. 너는 그 운명의 몇 분의 일이나 되는가?

25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는가? 그건 그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에게는 그의 마음가짐이 있고 그의 행동이 있다. 나는 지금 공통의 자연이 내가 지니기를 바라는 것을 지니고, 내 본성이 지금 내가 하기를 바라는 것을 한다.

26 네 영혼의 지도 이성, 곧 주인 노릇 하는 부분은 살에서 일어나는 부드럽거나 거친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것과 뒤섞이지 말고 스스로 경계를 갖게 하고, 그런 느낌들은 그것이 생긴 몸의 부분 안에 가두어 두게 하라. 그러나 하나로 이어진 몸에서 흔히 그렇듯 그 느낌들이 또 다른 감응을 타고 마음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자연스러운 감각이니 거스르려 하지 마라. 다만 지도 이성이 거기에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단을 스스로 덧붙이지 않게 하라.

27 "신들과 함께 살아라." 신들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제 몫으로 받은 것에 만족하고 제우스가 저마다에게 보호자이자 길잡이로 준 신령이 바라는 것을 모두 행한다는 것을 신들에게 늘 보여 주는 사람이다. 그 신령은 제우스가 자기 자신에게서 떼어 낸 한 조각이다. 그것은 저마다의 정신이자 이성이다.

28 겨드랑이에서 냄새나는 사람에게 화가 나느냐? 입 냄새 나는 사람에게 화가 나느냐? 그가 너에게 어찌겠느냐? 입이 그렇고 겨드랑이가 그러니, 그런 데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누가 이렇게 말한다. 잘됐구나. 그렇다면 너에게도 이성이 있다. 너의 이성적인 마음가짐으로 그의 이성적인 마음가짐을 움직여라. 보여 주고 일깨워 주어라. 그가 알아듣는다면 너는 그를 고칠 것이고 화낼 필요는 없다. 비극 배우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다.⁴

29 이곳을 떠나서 살려고 마음먹은 그대로 여기서도 살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거든 그때는 삶에서 떠나라. 다만 아무 해도 입지 않은 사람처럼 떠나라. "연기가 차니 나는 나간다."⁵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느냐? 그러나 그런 일이 나를 내보내지 않는 한 나는 자유롭게 머문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공동체적인 동물의 본성에 맞는 일이다.

30 전체의 정신은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못한 것은 나은 것을 위해 만들었고, 나은 것은 서로 어울리도록 짜 맞추었다. 보라. 그것은 어떤 것은 아래에 두고 어떤 것은 나란히 놓았으며, 저마다에게 그 값어치에 맞는 몫을 나누어 주었고, 가장 뛰어난 것들을 서로 한마음이 되도록 모아 놓았다.

31 너는 지금까지 신들과 부모와 형제와 아내와 자식과 스승과 너를 길러 준 이들과 벗과 친척과 종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가? 지금까지 그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한 적도,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살펴라.⁶ 그리고 떠올려 보라. 네 무엇을 겪어 왔고 무엇을 견뎌 낼 수 있었는지, 네 삶의 이야기는 이미 다 채워졌고 네 소임도 이미 끝났다는 것,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을 보았는지, 얼마나 많은 쾌락과 고통을 내려다보았고 얼마나 많은 영광을 그냥 지나쳤는지, 몰인정한 이들을 얼마나 여러 번 어질게 대했는지를.

32 숨씨 없고 무지한 영혼들이 왜 숨씨 있고 아는 영혼을 어지럽히는가? 그러면 숨씨 있고 아는 영혼이란 어떤 영혼인가? 시작과 끝을 알고, 실체 전체를 꿰뚫고 흐르며 영원한 시간 내내 정해진 주기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이성을 아는 영혼이다.

33 머지않아 너는 재나 해골이 되고, 이름만 남거나 이름조차 남지 않는다. 이름이라야 소리고 메아리일 뿐이다. 살면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텅 비고 썩었고 하찮다. 서로 물어뜯는 강아지들이고, 다투다가 웃다가 금세 우는 아이들이다. 믿음과 염치와 정의와 진실은 "길 넓은 땅을 떠나 올림포스로" 가 버렸다.⁷ 그렇다면 아직도 너를 여기 붙들어 두는 것은 무엇인가? 감각되는 것들은 쉽게 변하고 머물러 있지 않으며, 감각 기관은 흐릿해서 그릇된 자국이 쉽게 찍힌다. 작은 영혼 자체도 피에서 피어오르는 김일 뿐이고, 그런 자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헛되다. 그래서? 꺼지든 다른 곳으로 옮겨 가든, 평온하게 그때를 기다리면 된다. 그때가 오기까지는 무엇이든 넉넉한가? 신들을 받들고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잘해 주고, 그들을 견디고 삼가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 하찮은 살덩이와 숨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네 것도 아니고 너에게 달린 것도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34 너는 언제나 삶이 순조롭게 흐르게 할 수 있다. 바른길을 갈 수 있고 바른길을 따라 판단하고 행할 수 있다면 말이다. 신의 영혼에도, 사람의 영혼에도, 모든 이성적 동물의 영혼에도 공통된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다른 것에 가로막히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의로운 마음가짐과 행동 속에 자기 선을 두고 욕구를 거기서 그치게 하는 것이다.

35 이것이 내 악덕도 아니고 내 악덕에서 나온 행동도 아니며 공동체가 해를 입는 것도 아니라면, 나는 왜 이 일로 애태우는가? 공동체에 무슨 해가 있는가?

36 인상에 통째로 휩쓸리지 마라. 힘닿는 대로, 마땅한 만큼 도와라. 사람들이 선도 악도 아닌 것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라. 다만 그것을 해를 입은 것으로 여기지는 마라. 그건 나쁜 버릇이다. 저 노인이 떠나면서 수양아들의 팽이를 달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팽이일 뿐임을 잊지 않았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연단에 서서 울부짖는 꼴이 된다. 사람아, 이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잊었느냐? "그렇지.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몹시 소중한 것이다." 그렇다고 너까지 어리석어져야 하느냐? 나는 한때, 어디서 무엇에 붙들리든 운 좋은 (eumoiros) 사람이었다. 그런데 운이 좋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좋은 몫 (moira)을 나누어 주었다는 뜻이다. 좋은 몫이란 영혼의 좋은 방향, 좋은 충동, 좋은 행동이다.⁸

1. 의술의 신. 그리스어 synetaxe는 '처방했다'와 '함께 짜 맞추었다'를 함께 뜻한다.

2. 그리스어 symbainein은 '일어나다'와 '서로 들어맞다'를 함께 뜻한다. 이 장 뒤쪽의 '가져오다(pherein)'와 '이롭다(sympherein)'도 같은 말놀이다.

3. 어느 희극의 대사로, 마르쿠스는 머리와 끝 구절만 따왔다. 그리스어 agatha는 '좋은 것'과 '재물'을 함께 뜻한다.

4. 원문이 불완전한 구절로 보이며 뜻이 분명치 않다.

5. 에픽테토스 《강의록》 1.25.18의 비유. 방에 연기가 너무 차면 나가면 그만이라는 말이다.

6.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4.690. 페넬로페가 오디세우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

7. 헤시오도스 《일과 날》 197. 원래는 염치와 의분의 여신이 사람들을 버리고 땅을 떠나는 대목이다.

8. 이 장 후반부는 원문이 손상되어 뜻이 분명치 않다. 노인과 팽이 이야기의 출처도 알 수 없다.

제6권

1 전체의 실체는 순순히 따르고 쉽게 모양을 바꾼다. 그 실체를 다스리는 이성(이성)은 해를 끼칠 까닭을 자기 안에 하나도 품고 있지 않다. 그 이성에는 악덕이 없어서 무엇에도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 때문에 해를 입는 것도 없다. 모든 것이 그 이성(이성)에 따라 생겨나고 끝을 맺는다.

2 마땅한 일을 할 때 추위에 떨면서 하든 따뜻하게 하든, 졸면서 하든 잠을 넉넉히 자고 하든, 욕을 먹으면서 하든 칭찬을 받으면서 하든, 죽어가면서 하든 다른 무엇을 하면서 하든 개의치 마라. 죽는 것도 삶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 그 일에서도 지금 눈앞의 것을 잘 처리하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3 안을 보라. 무엇이든 그것 고유의 성질도, 그 값어치도 놓치지 마라.

4 눈앞의 모든 것은 머지않아 변할 것이다. 실체가 하나라면 김이 되어 피어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흩어질 것이다.

5 다스리는 이성(이성)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질료를 두고 하는지 안다.

6 가장 좋은 복수는 그와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7 한 가지만 즐기고 거기서 쉬어라. 신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위한 행동에서 공동체를 위한 다음 행동으로 옮겨 가는 것.

8 지도 이성(hēgemonikon)은 스스로를 깨우고 돌려세우며, 자기 자신을 원하는 대로 만들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만든다.

9 모든 일은 우주의 본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밖에서 감싸는 것이든, 안에 감싸여 있는 것이든, 바깥에 따로 매달린 것이든, 다른 어떤 본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10 뒤죽박죽과 얽힘과 흠어짐이거나, 하나 됨과 질서와 섭리이거나 둘 중 하나다. 앞의 것이라면, 이처럼 아무렇게나 엉겨 붙은 덩어리, 이런 뒤범벅 속에 머물고 싶어 할 까닭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흠이 될까"¹ 하는 것 말고 내가 무엇에 마음을 쓰겠는가? 무엇 때문에 동요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든 흠어짐은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뒤의 것이라면, 나는 다스리는 이를 공경하고, 흔들림 없이 서서, 그를 믿고 마음을 놓는다.

11 주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흐트러진 것 같거든, 얼른 너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꼭 그래야 하는 만큼 이상으로 박자를 놓치지 마라. 거듭 조화로 돌아올수록 너는 조화를 더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12 너에게 계모와 친어머니가 함께 있다면, 계모도 받들어 모시겠지만 그래도 늘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너에게는 궁정과 철학이 그렇다. 자주 철학에게로 돌아와 그 품에서 쉬어라. 철학 덕분에 궁정의 일도 너에게 견딜 만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너도 남들에게 견딜 만한 사람이 된다.

13 고기 요리나 그런 먹을거리를 앞에 두고 이건 물고기의 주검이고 저건 새나 돼지의 주검이라고 떠올려 보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또 팔레르눔 포도주는 포도송이를 짠 즙일 뿐이고, 자줏빛 단을 두른 옷은 조개 피에 적신 양털일 뿐이라고, 그리고 성교는 내장 한 토막을 비비다가 몇 번 경련하며 점액을 조금 내보내는 일일 뿐이라고 떠올려 보는 것은. 이런 인상이야말로 사물 자체에 가 닿고 그 속을 꿰뚫어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보게 한다. 평생 이렇게 해야 한다. 사물이 너무 그럴듯해 보일 때는 옷을 벗겨 그 하찮음을 똑똑히 보고, 그것을

근사해 보이게 하는 사연을 걷어 내야 한다. 허영은 무서운 협잡꾼이어서, 네가 가장 진지한 일에 몰두한다고 여길 때 너를 가장 깊이 홀린다. 크라테스가 다름 아닌 크세노크라테스를 두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라.²

14 많은 사람이 감탄하는 것은 대부분 가장 일반적인 부류, 곧 응집 상태(hexis)나 성장하는 본성(physis)이 하나로 묶어 주는 것들로 돌아간다. 돌, 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같은 것이다.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은 영혼이 묶어 주는 것들, 이를테면 양 떼나 소 떼로 돌아간다. 그보다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은 이성적 영혼이 묶어 주는 것들로 돌아간다. 다만 보편적인 영혼이 아니라 기술이 있거나 다른 무엇에 능한 영혼이고, 그도 아니면 그저 노예를 많이 거느리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시민다운 이성적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것에는 더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는 무엇보다 자기 영혼이 이성애 맞고 공동체에 맞게 자리 잡고 움직이도록 지켜 내며, 같은 종족과 힘을 모아 그 일을 해 나간다.

15 어떤 것은 생겨나려고 서두르고, 어떤 것은 지나간 것이 되려고 서두른다. 생겨나는 것 가운데 일부는 벌써 꺼져 버렸다. 흐름과 바뀔이 우주를 씬 없이 새롭게 한다. 시간의 끊임없는 흐름이 끝없는 영원을 늘 새롭게 내놓듯이. 발 디디고 설 수도 없는 이 강물 속에서, 걸을 스쳐 달려가는 것들 가운데 무엇을 귀하게 여기겠는가? 걸을 날아 지나가는 참새 한 마리를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것과 같다. 저마다의 목숨도 그런 것이다. 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고, 공기에서 들이쉬는 숨이다. 우리가 순간마다 하듯 공기를 한 번 들이쉬었다가 돌려주는 것은, 언제나 그제 태어나며 얻은 숨 쉬는 힘 전부를 처음 그것을 빨아들인 곳에 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16 식물처럼 숨을 내뿜는 것은 귀하지 않다. 가축이나 들짐승처럼 숨 쉬는 것도, 인상이 찌히는 것도, 충동에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니는 것도, 때 지어 모이는 것도, 영양을 섭취하는 것도 귀하지 않다. 영양을 섭취하는 것은 먹고 남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일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무엇이 귀한가? 박수를 받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혀들이 쳐 주는 박수도 아니다. 많은 사람의 칭송이란 혀가 부딪는 소리일 뿐이니까. 그러니 보잘것없는 명성도 내려놓은 셈이다. 그러면 귀한 것으로 무엇이 남는가? 내 생각에는 자기 본바탕에 맞게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다. 온갖 보살핌과 기술이 이끌어 가는 곳도 거기다. 모든 기술은 만들어진 것이 그것을 만든 목적에 걸맞게 되기를 겨냥한다. 나무 심는 사람도,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도, 망아지를 길들이는 사람도, 개를 돌보는 사람도 그것을 찾는다. 아이를 이끌고 가르치는 일은 또 무엇을 바라고 애쓰는가? 그러니 귀한 것은 여기에 있다. 이것만 잘되어 있으면 너는 다른 것은 하나도 손에 넣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너는 자유롭지도, 스스로 넉넉하지도, 흔들림 없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며, 네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진 자들에게 음모를 꾸밀 수밖에 없을 테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라도 아쉬운 사람은 마음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게다가 신들을 자주 원망하게 된다. 그러나 네 마음 앞에서 염치를 차리고 그 마음을 귀히 여기면 너는 너 자신에게 흡족하고, 함께하는 이들과 잘 어울리며, 신들과 한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신들이 나누어 주고 정해 둔 것을 모두 찬양하는 사람 말이다.

17 위로, 아래로, 빙빙 돌며 원소들은 움직인다. 그러나 덕의 움직임은 그 어느 것과도 다르다. 그것은 더 신성한 무엇이어서, 헤아리기 어려운 길을 따라 나아가며 순탄하게 제 길을 간다.

18 사람들이 하는 짓 좀 보라. 같은 시대에 함께 사는 사람들은 칭찬하려 하지 않으면서,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볼 일도 없는 후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대단하게 여긴다. 이것은 앞서 산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다.

19 너 혼자 해내기 어렵다고 해서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지 마라. 오히려 사람에게 가능하고 사람에게 맞는 일이라면 너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라.

20 체육관에서 누가 손톱으로 할퀴거나 머리로 들이받아 상처를 내도,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지도 않고 언짢아하지도 않으며, 나중에 그를 음흉한 자로 의심하지도 않는다. 물론 조심은 한다. 그러나 적으로 대하거나 의심하며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피할 뿐이다. 삶의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자. 함께 훈련하는 상대 같은 이들이 하는 일은 많이 눈감아 주자. 앞서 말했듯이 의심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그저 피할 수 있으니까.

21 누가 내 판단이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반박하여 내게 보여 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바꾸겠다. 나는 진리를 찾는다. 진리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해를 입는 것은 자기기만과 무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다.

22 나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다. 다른 것들은 나를 끌어당기지 못한다. 그것들은 영혼이 없거나, 이성이 없거나, 길을 잃고 길을 모르는 것들이니까.

23 이성 없는 동물과 사물과 눈앞에 놓인 것들은, 이성 있는 자가 이성 없는 것을 부리듯 도량 넓고 떳떳하게 부려라. 사람은 이성이 있으니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하라. 무슨 일을 하든 신들을 불러라.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할지는 마음 쓰지 마라. 그렇게 보낸 세 시간이면 넉넉하다.

24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노새 몰이꾼은 죽어서 같은 처지가 되었다. 둘 다 우주의 같은 씨앗 이성(spermatikoi logoi)으로 다시 거두어졌거나, 똑같이 원자로 흩어졌다.

25 똑같은 한순간에 우리 각자 안에서 몸의 일과 영혼의 일이 얼마나 많이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하나이자 전부인 것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이, 아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26 누가 너에게 안토니누스라는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고 묻는다면, 목청을 돋워 한 글자 한 글자 내뱉겠느냐? 그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너도 맞받아 화를 내겠느냐? 차분히 한 자씩 짚어 가며 끝까지 불려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마땅히 할 일은 모두 몇 개의 마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마디를 하나하나 지키면서, 허둥대지 말고, 짜증 내는 사람에게 맞받아 짜증 내지도 말고, 앞에 놓인 일을 차근차근 끝마쳐야 한다.

27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고 이롭다고 보이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가.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다고 네가 분개할 때, 너는 어찌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셈이다. 그들은 어쨌든 자기에게 맞고 이로운 것을 향해 움직이니까.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분개하지 말고 가르치고 보여 주어라.

28 죽음은 쉽다. 감각이 받는 충격에서, 충동이 잡아당기는 꼭두각시 줄에서, 생각이 이리저리 오가는 일에서, 살을 섬기는 수고에서 놓여나는 쉽.

29 몸은 아직 삶에 지쳐 쓰러지지 않았는데 영혼이 먼저 지쳐 쓰러지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30 황제 티를 내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³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난다. 그러니 너 자신을 지켜라. 소박하고, 선하고, 순수하고, 진중하고, 꾸밈없고, 정의를 사랑하고, 신을 공경하고, 너그럽고, 정이 깊고, 마땅한 일에 힘차게 나서는 사람으로. 철학이 너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남도록 힘써 싸워라. 신들을 우러르고, 사람들을 지켜라. 삶은 짧다. 땅 위의 삶이 맺는 열매는 하나뿐이다. 거룩한 마음가짐과 공동체를 위한 행동. 모든 일을 안토니누스의 제자답게 하라.⁴ 이성에 맞는 일이라면 힘차게 해내던 그를, 어디서나 한결같은 그를 기억하라. 그의 거룩함과 맑게 갠 얼굴, 온화함, 헛된 명성을 좇지 않는 마음, 일을 제대로 붙잡으려는 열의를 기억하라. 그는 무엇이든 먼저 꼼꼼히 들여다보고 똑똑히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그냥 넘기지 않았다. 부당하게 자기를 탓하는 사람들을 맞아봐 탓하지 않고 견뎌냈고, 무슨 일에도 서두르지 않았으며, 중상하는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사람의 됴됨이와 행동을 꼼꼼히 살피되 꾸짖지 않았고, 겁이 많지도 의심이 많지도 않았으며 궤변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집과 잠자리와 옷과 음식과 시중드는 사람에서 적은 것으로 만족했고, 일을 사랑하고 참을성이 깊었다. 먹는 것이 소박해서 정해진 때가 아니면 뒤를 볼 일도 없었으니, 저녁까지 한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벗과의 사귀는 굳고 한결같았다. 자기 의견에 거리낌 없이 맞서는 사람을 참아 주었고, 누가 더 나은 것을 보여 주면 기뻐했다. 신을 공경했으나 미신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야 마지막 때가 찾아와도, 그가 그랬듯이 너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31 술에서 깨어나듯 정신을 차리고 너 자신을 다시 불러들여라. 잠에서 깨어 너를 괴롭힌 것이 꿈이었음을 알았거든, 깨어 있는 지금, 꿈속의 것들을 보았듯이 이것들을 보라.

32 나는 하찮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몸에게는 모든 것이 선도 악도 아닌 것(adiaphora)이다. 몸은 무엇을 가려 마음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마음에게는 자기 활동이 아닌 것이 모두 선도 악도 아닌 것이다. 마음의 활동은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활동 가운데서도 마음이 다루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것뿐이다. 앞으로 올 활동과 지나간 활동은 그것대로 이미 선도 악도 아닌 것이니까.

33 발이 발의 일을 하고 손이 손의 일을 하는 한, 수고는 손에게도 발에게도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는 한, 수고는 사람인 그에게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에게 나쁜 것도 아니다.

34 강도와 남창과 아비를 죽인 자와 폭군이 얼마나 큰 쾌락을 누렸던가.

35 손으로 일하는 장인들이 어느 정도는 문외한의 비위를 맞추면서도, 자기 기술의 이치만큼은 꼭 붙들고 거기서 물려서기를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건축가와 의사가 자기 기술의 이치를 존중하는 것이 사람이 자기 이성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하다면, 기막힌 일이 아니냐? 그 이성은 사람이 신들과 함께 나누어 가진 것인데.

36 아시아와 유럽은 우주의 한 귀퉁이다. 온 바다는 우주의 물 한 방울이다. 아토스산은 우주의 흙덩이 하나다. 지금이라는 시간 전체는 영원 속의 한 점이다. 모든 것이 작고, 쉽게 바뀌고, 사라져 간다. 모든 것은 저기서, 저 공통의 지도 이성에서 비롯한다. 거기서 곧바로 나오거나 그 결과로 뒤따라 나온다. 그러니 사자의 짝 벌린 아가리도, 독도, 온갖 해로운 것도, 가시나 진창처럼 저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딸려 생겨난 것이다. 그것들을 네가 공경하는 것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의 샘을 헤아려 보라.

37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본 사람은 모든 것을 보았다. 영원 전부터 일어난 일도, 끝없는 앞날에 일어날 일도. 모든 것은 같은 종류이고 같은 모습이니까.

38 우주 안의 모든 것이 서로 묶여 있고 서로 이어져 있음을 자주 생각하라. 어찌 보면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고, 그래서 모두 서로에게 벗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 뒤에 차례로 오는 것은 팽팽히 당기는 움직임과, 함께 숨 쉬는 기운과, 실체가 하나로 묶여 있음 덕분이다.

39 네 몫으로 떨어진 일에 너 자신을 맞추어라. 함께 제비를 뽑아 너와 한테 묶인 사람들을 사랑하라. 다만 진심으로.

40 도구든 연장이든 그릇이든, 무엇이든 만들어진 목적대로 제 일을 하면 잘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만든 이가 곁에 없다. 그러나 자연이 하나로 묶어 둔 것들은 그것을 만든 힘이 안에 있고 늘 머물러 있다. 그러니 그 힘을 더욱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그 힘의 뜻에 맞게 지내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네 뜻에 맞게 되어 간다고 여겨야 한다. 우주에서도 제 일은 이렇게 제 뜻에 맞게 되어 간다.

41 의지(prohairesis) 밖에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든 네가 그것을 너에게 선이나 악으로 세워 둔다면, 그런 악을 만나거나 그런 선을 놓쳤을 때 너는 신들을 탓하고, 그 일을 불러온 사람들이나 불러올 것 같은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것을 두고 가리고 따지느라 정말 많은 불의를 저지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달린 것만을 선과 악으로 판단한다면, 신을 탓하거나 사람에게 적으로 맞설 까닭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42 우리는 모두 하나의 결과를 위해 함께 일한다. 어떤 이는 알고서 깨어 지켜보며, 어떤 이는 영문도 모른 채. 내 생각에 헤라클레이토스가 잠든 사람들도 일꾼이며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한 것도 그런 뜻이다.⁵ 저마다 다른 몫으로 함께 일한다. 일어나는

일을 탓하고, 거스르고 없애려 드는 사람조차 넘치도록 함께 일한다. 우주에는 그런 사람도 필요했으니까. 그러니 이제 네가 너 자신을 어느 쪽에 세우는지 잘 알아 두어라. 만물을 다스리는 이는 어떻게든 너를 잘 쓸 것이고, 함께 일하고 함께 거드는 이들의 한 부분으로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크리스포스가 말한, 연극 속의 싸구려 우스개 대사 같은 부분은 되지 마라.⁶

43 해가 비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더냐? 아스클레피오스가 열매를 맺게 하는 여신⁷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더냐? 별들은 저마다 어떠냐?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일을 위해 함께 일하지 않느냐?

44 신들이 나와 나에게 일어나야 할 일을 두고 숙고했다면, 잘 숙고했을 것이다. 숙고하지 않는 신이란 떠올리기조차 쉽지 않다. 그리고 무슨 까닭으로 신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 들겠는가? 그래서 신들에게, 혹은 신들이 무엇보다 보살피는 공동체에 무슨 득이 생기겠는가? 신들이 나 하나를 두고 따로 숙고하지 않았다 해도, 공동의 일은 틀림없이 숙고했다. 그 일에 뒤따라 일어나는 이 일들도 나는 반가이 맞고 달게 받아야 한다. 만약 신들이 아무것도 숙고하지 않는다면(이렇게 믿는 것은 거룩한 도리에 어긋난다. 그렇게 믿는다면 제사도 기도도 맹세도 그만두고, 신들이 곁에 있고 함께 사는 듯이 우리가 일마다 하는 다른 일도 모두 그만두자), 그러니까 신들이 우리 일은 무엇 하나 숙고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두고 숙고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무엇이 이로운지 살피는 것도 내 몫이다. 저마다에게 이로운 것은 자기 본바탕과 본성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내 본성은 이성적이고 시민답다. 안토니누스인 나에게⁸ 도시이자 조국은 로마이고, 사람인 나에게는 우주다. 그러니 이 두 도시에 이로운 것만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45 저마다에게 일어나는 일은 전체에 이롭다. 이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대체로 이것도 보게 될 것이다. 한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롭다. 다만 여기서 '이롭다'는 말은 선도 악도 아닌 것에 쓸 때처럼 좀 더 넓은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46 원형 경기장이나 그런 곳의 구경거리가 늘 똑같은 것만 보여 줘서 네 속을 메스껍게 하고 한결같은 구경을 지겹게 만들듯이, 삶 전체에서도 그런 일을 겪는다.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모든 것이 같은 것이고 같은 데서 나온다. 그러니 언제까지란 말인가?

47 온갖 사람, 온갖 일을 하던 사람, 온갖 민족의 사람이 죽었음을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렇게 내려와 필리스티온과 포이보스와 오리가니온에까지 이르도록.⁹ 이제 다른 부류로 옮겨 가 보라. 우리도 결국 그곳으로 옮겨 가야 한다. 그토록 많은 뛰어난 연설가들, 헤라클레이토스와 피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 같은 그토록 많은 엄숙한 철학자들, 옛날의 그토록 많은 영웅들, 그 뒤의 그토록 많은 장군과 폭군들이 간 곳으로. 거기에 에우독소스, 히파르코스, 아르키메데스, 그 밖에 날카롭고 도량 크고 부지런하고 재주 넘치고 고집 센 이들, 메니포스¹⁰ 처럼 덧없고 하루살이 같은 인간의 삶 자체를 비웃던 이들도 있다. 이들이 모두 오래전에 누워 있음을 생각하라. 그게 그들에게 무슨 끔찍한 일인가?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이들에게는 또 어떤가? 여기서 값진 것은 하나뿐이다. 진실과 정의를 지키며, 거짓말하는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너그럽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48 기운을 내고 싶을 때는 함께 사는 사람들의 장점을 떠올려라. 이 사람의 부지런함, 저 사람의 염치, 또 다른 사람의 아낌없는 나눔, 그 밖에 저마다의 무엇을. 함께 사는 이들의 됴됨이에 덕의 모습이 비치고, 그것이 될 수 있는 한 한데 모여 있을 때만큼 기쁜 것은 없다. 그러니 그것들을 늘 가까이 두어라.

49 몸무게가 몇 리트라밖에 안 되고 삼백 리트라가 아니라고 언짢으냐?¹¹ 그렇다면 몇 해까지만 살고 그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고 언짢아할 것도 없다. 실체 가운데 네게 정해진 만큼에 만족하듯이, 시간도 그렇게 하라.

50 그들을 설득하려 애써라. 그러나 정의의 이치가 그렇게 이끈다면 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행하라. 누가 힘으로 가로막거든 흔쾌히, 괴로워하지 말고 물러서서, 그 가로막힘을 다른 덕을 닦는 데 써라. 그리고 네 충동에는 처음부터 단서(hypexairesis)가 붙어 있었고 너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무엇을 바랐는가? 바로 그렇게 단서를 단 충동이다. 그것은 이루었다. 우리가 하려고 나섰던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51 명예를 좋아하는 자는 남의 행동을 자기 선으로 여기고,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가 겪는 느낌을 자기 선으로 여긴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자기 행동을 자기 선으로 여긴다.

52 이 일을 두고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고 영혼이 시달리지 않게 할 수 있다. 사물 자체에는 우리 판단을 만들어 낼 본성이 없다.

53 남이 하는 말에 한눈팔지 않고 귀 기울이는 버릇을 들여라. 할 수 있는 한 말하는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라.

54 별 때에 이롭지 않은 것은 별 한 마리에게도 이롭지 않다.

55 내가 키를 잡을 때 뱃사람들이, 내가 치료할 때 환자들이 나를 헐뜯는다 한들, 어떻게 해야 내가 배에 탄 이들을 살리고 치료받는 이들을 낫게 할지, 그것 말고 다른 무엇에 마음을 쓰겠는가?

56 나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가 벌써 떠나갔는가.

57 황달에 걸린 사람에게는 꿀이 쓰게 느껴지고, 미친개에게 물린 사람에게는 물이 무섭고, 어린아이에게는 공이 멋져 보인다. 그런데

나는 왜 화를 내는가? 아니면 너는 그릇된 생각이, 황달 환자 몸속의 쓸개즙이나 미친개에 물린 사람 몸속의 독보다 힘이 약하다고 여기느냐?

58 네 본성의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공통의 자연이 지닌 이성을 거스르는 일은 너에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9 그들이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얻으려고, 어떤 행동으로 그러는지 보라. 세월은 얼마나 빨리 모든 것을 덮어 버릴 것인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덮어 버렸는가.

-
1. 호메로스 《일리아스》 7.99 "너희는 모두 물과 흙이 되어 버려라"에서 따온 말.
 2. 크라테스는 견유학과 철학자, 크세노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제자로 아카데메이아를 이끈 철학자. 크라테스가 한 말은 전하지 않는다.
 3. 원어 apokaisarousthai는 '카이사르가 되어 버리다'라는 뜻으로, 마르쿠스가 지어낸 말로 보인다. '물들다'는 황제의 자줏빛 옷을 떠올리게 한다.
 4. 마르쿠스의 양아버지이자 앞선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재위 138~161).
 5. 헤라클레이토스 단편 75(딜스-크란츠). 이 대목으로만 전한다.
 6. 스토아학과 철학자 크리시포스는 희극에 끼어든 저속한 대사가 그 자체로는 하찮아도 작품 전체에는 보탬이 된다고 했다(플루타르코스 《스토아학파의 공통 관념 비판》 14).
 7. 원어 Karpophoros(열매를 맺게 하는 이).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의 별칭.
 8. 안토니누스는 마르쿠스 자신의 이름이기도 하다(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9.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마르쿠스 가까이에서 근래에 죽은 사람들로 보인다.
 10. 에우독소스와 히파르코스는 천문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자, 메니포스는 인간사를 비웃는 글을 쓴 견유학과 작가.
 11. 리트라(litra)는 로마의 무게 단위 리브라(libra)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다. 1리브라는 약 330그램이다.

제7권

1 악덕이란 무엇인가? 네가 자주 본 바로 그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것은 내가 자주 본 것이다' 하는 생각을 손 닿는 곳에 두어라.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너는 어디서나 같은 것을 만날 것이니, 옛 역사도, 그 뒤의 역사도, 바로 얼마 전의 역사도 그것으로 가득하고, 지금의 도시와 집안도 그것으로 가득하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낮익고, 모든 것이 잠깐이다.

2 원칙에 맞는 인상들이 꺼지지 않는다면 원칙이 무슨 수로 죽겠는가? 그 인상들을 쉬지 않고 다시 지퍼 살리는 일은 너에게 달려 있다. 나는 이 일을 두고 마땅히 내려야 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면 왜 동요하는가? 내 생각 밖에 있는 것은 내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깨우쳐라. 그러면 너는 바로 선다.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사물을 예전에 보던 대로 다시 보라. 다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3 행렬의 헛된 법석, 무대 위의 연극, 양 떼와 소 떼, 창 겨루기, 강아지들에게 던져 준 뼈다귀, 물고기 연못에 던진 빵 부스러기, 개미들의 고된 짐 나르기, 겁먹은 생쥐들의 허둥대는 땀박질, 줄에 매달려 놀아나는 꼭두각시 인형들. 이런 것들 한가운데서 너는 너그럽게, 콧방귀 뀌지 말고 서 있어야 한다. 다만 사람은 저마다 제가 애써 매달리는 것들만큼의 값어치밖에 없다는 것은 놓치지 말고 지켜보라.

4 말을 들을 때는 낱말 하나하나를, 일을 볼 때는 충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한다. 일에서는 그것이 어떤 목적을 겨누는지 곧바로 보고, 말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눈여겨 지켜보라.

5 내 생각이 이 일을 감당할 만한가, 아닌가? 감당할 만하다면 나는 그것을 우주의 본성이 준 도구로 삼아 일에 쓴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일이 달리 내가 마땅히 할 일이 아닌 한 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넘긴다. 아니면 힘닿는 대로 하되, 내 지도 이성(hēgemonikon)의 도움을 받아 지금 공동체에 알맞고 쓸모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불러 함께 한다. 나 혼자 하든 남과 함께 하든,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곳, 모두에게 쓸모 있고 잘 어울리는 것을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6 크게 칭송받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가 벌써 망각에 넘겨졌는가. 그들을 칭송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오래전에 사라졌는가.

7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성벽을 치는 병사처럼 네게 떨어진 뭉을 해내는 것, 그것이 너에게 놓인 일이다. 그러니 어쩐가, 네가 다리를 절어 혼자서는 성가퀴에 오르지 못하지만 남과 함께라면 오를 수 있다면?

8 앞으로 올 일이 너를 어지럽히게 두지 마라. 가야 한다면 너는 그리로 가게 될 것이고, 그때도 지금 눈앞의 일에 쓰는 바로 그 이성을 지니고 갈 것이다.

9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고, 그 얽힘은 성스럽다. 서로 남남인 것은 거의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함께 제자리에 놓여 함께 하나의 같은 우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우주는 하나이고, 모든 것을 꿰뚫는 신도 하나이며, 실체도 하나, 법도 하나, 지성적인 모든 생명에게 공통된 이성도 하나, 진리도 하나다. 같은 종류로 태어나 같은 이성을 나누어 가진 생명들에게 완성 또한 하나라면 말이다.

10 질료를 지닌 것은 모두 금세 전체의 실체 속으로 사라지고, 원인이 되는 것은 모두 금세 전체의 이성 속으로 거두어지며,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은 금세 끝없는 세월 속에 파묻힌다.

11 이성적 동물에게는 본성에 맞는 행위가 곧 이성에 맞는 행위다.

12 곧게 서 있어라. 남이 세워 주어서가 아니라.

13 하나로 붙어 있는 몸에서 팔다리가 하는 몫을, 따로 떨어져 있는 이성적 존재들이 한다. 그들은 하나의 협력을 위해 지어졌다. '나는 이성적 존재들이 이룬 몸의 지체(melos)다' 하고 자주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이 생각이 더 또렷하게 와닿을 것이다. 그러나 글자 하나를 바꾸어 '나는 그 부분(meros)이다' 하고 말한다면¹ 너는 아직 마음 깊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선을 베푸는 일이 아직 그 자체로 너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너는 아직 그것을 그저 마땅한 일이라서 할 뿐, 너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며 하지는 않는다.

14 바깥에서 무엇이 떨어지든 떨어지고 싶은 대로 떨어지라지. 그 부딪힘으로 무언가를 겪을 수 있는 부분들 위로. 겪은 부분들은 원한다면 불평하라지. 나는 일어난 일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아직 해를 입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15 누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나는 선택해야 한다. 마치 금이나 에메랄드나 자줏빛 옷감이 늘 이렇게 말하듯이. '누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나는 에메랄드여야 하고 내 빛깔을 지켜야 한다.'

16 지도 이성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 말하자면 스스로를 겁주어 욕망으로 몰아넣지 않는다. 다른 누가 그것을 겁주거나 괴롭게 할 수 있다면 그러라지. 지도 이성은 제 판단으로 스스로를 그런 쪽으로 틀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몸뚱이는 할 수 있다면 해를 입지 않게 제가 알아서 조심하고, 무엇을 겪으면 겪는다고 말하라지. 그러나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며 이런 일들을 두고 판단을 내리는 작은 영혼은 결코 아무것도

겪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그런 판단으로 끌고 가지 않을 테니까. 지도 이성 스스로 결핍을 만들지 않는 한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어지럽히고 가로막지 않는 한 동요하지도 가로막히지도 않는다.

17 행복(eudaimonia)은 좋은 신령(daimōn), 곧 좋은 지도 이성이다.² 그런데 인상아,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신들의 이름으로 부탁하니 왔던 길로 돌아가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너는 옛 버릇대로 찾아왔을 뿐이다. 너에게 화내지는 않겠다. 그저 가거라.

18 누군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변화 없이 무엇이 생겨날 수 있으며, 우주의 본성에 변화보다 더 정답고 더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 너만 해도 장작이 변하지 않으면 목욕을 할 수 있겠는가? 먹은 것이 변하지 않으면 영양을 얻을 수 있겠는가? 쓸모 있는 다른 어떤 일이 변화 없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니 너 자신이 변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고 우주의 본성에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19 모든 물체는 급류에 휩쓸려 가듯 전체의 실체를 지나간다. 우리 팔다리가 서로 그렇듯, 그것들은 전체와 한 몸으로 자라나 함께 일한다. 세월은 이미 얼마나 많은 크리시포스를, 얼마나 많은 소크라테스를, 얼마나 많은 에픽테토스를 삼켜 버렸는가.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대하든 이 생각이 함께 떠오르게 하라.

20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걱정은 하나뿐이다. 사람의 본바탕이 바라지 않는 일을, 또는 바라지 않는 모양으로, 또는 지금은 바라지 않는 일을 내가 하지 않을까 하는 것.

21 네가 모든 것을 잊을 날이 가깝고, 모든 이가 너를 잊을 날도 가깝다.

22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람다움이다. 그들이 너의 친족이라는 것, 그들이 모르고 마지못해 잘못한다는 것,

머지않아 너희 둘 다 죽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너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이 함께 떠오른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는 네 지도 이성을 전보다 나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23 우주의 본성은 전체의 실체를 밀랍처럼 다루어, 지금은 작은 말을 빚었다가 그것을 녹여 그 재료로 작은 나무를 만들고, 다음엔 작은 사람을, 그다음엔 또 다른 무엇을 만든다. 그 하나 하나는 아주 잠깐 있다가 만다. 상자에게 뜯기는 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듯, 찢 맞춰지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24 성난 얼굴은 몹시 본성에 어긋난다. 그런 얼굴을 자주 하면 얼굴의 고운 빛이 거둬 죽어 가다가 마침내 아주 꺼져서, 다시는 불붙지 못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그것이 이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달으려고 애써라. 잘못을 저지른다는 자각마저 사라진다면 더 살아갈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25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전체를 다스리는 자연이 머지않아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것들의 실체로 다른 것을 만들고, 다시 그것들의 실체로 또 다른 것을 만든다. 우주가 늘 젊게 머물도록.

26 누가 너에게 잘못하면, 그가 무엇을 선이나 악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지 곧바로 생각해 보라. 그것을 알면 너는 그를 가엾게 여길 뿐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을 것이다. 너 자신도 아직 그와 같은 것이나 그 비슷한 것을 선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더는 선이나 악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잘못 보는 사람에게 너그러워지기가 그만큼 더 쉬울 것이다.

27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 것. 지금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그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아쉬워하며 찾았을지 떠올릴 것. 다만 그렇게 그것들을 반기다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버릇이 들어, 언젠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28 너 자신 안으로 몸을 웅크려 들어가라. 이성적인 지도 이성은 정의롭게 행하고 바로 그 덕분에 고요를 얻으면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본성을 지녔다.

29 인상을 지워라. 꼭두각시 줄에 끌려다니기를 멈춰라. 지금 이 순간에 금을 그어라. 너에게든 남에게든 일어나는 일을 알아보아라. 눈앞의 대상을 원인적인 것과 질료적인 것으로 가르고 나누어라.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라. 남이 저지른 잘못은 그 잘못이 생겨난 자리에 두고 오라.

30 말해지는 것을 따라 생각을 나란히 펼쳐 갈 것. 일어나는 일과 그 일을 일으키는 것 속으로 정신이 파고들게 할 것.

31 소박함과 염치로, 그리고 덕도 악덕도 아닌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태도로 너를 빗내라. 인류를 사랑하라. 신을 따르라. 저 사람은 "모든 것은 관습으로 그럴 뿐, 참으로 있는 것은 원소뿐"이라고 말한다.³ 하지만 모든 것이 법을 따른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아주 적다.

32 죽음에 대하여. 원자들이라면 흩어짐이고, 하나 됨이라면 꺼짐이거나 옮겨 감이다.

33 고통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삶 밖으로 데려가고, 오래가는 고통은 견딜 만하다. 마음은 스스로를 따로 떼어 놓아 제 고요를 지키고, 지도 이성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는다. 고통으로 상한 부분들은 할 수 있다면 고통에 대해 제 말을 하라지.

34 명성에 대하여. 명성을 바라는 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라. 그 생각이 어떠한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좇는지. 그리고 모래 언덕이 차례로 밀려와 쌓이며 앞의 언덕을 덮어 버리듯, 삶에서도 앞의 것은 뒤따라 밀려온 것에 금세 덮여 버린다는 것을 보라.

35 "그러니 드높은 마음으로 모든 시간과 모든 실체를 두루 바라보는 사람에게 사람의 삶이 무슨 대단한 것으로 보이리라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죽음도 무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지? '조금도 그렇지 않다.'"⁴

36 "잘하고도 욕을 듣는 것, 그것이 왕다운 일이다."⁵

37 얼굴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표정을 짓고 매무새를 가다듬는데, 정작 마음은 스스로 제 모양을 짓고 제 매무새를 가다듬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38 "세상일에 대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 / 그것들은 아무것도 개의치 않으니."⁶

39 "죽지 않는 신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기를."

40 "여문 이삭을 베풀 삶을 거두어야 한다. / 하나는 남고 하나는 스러진다."

41 "신들이 나와 내 두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면, / 그것에도 까닭이 있다."

42 "선과 정의가 내 편에 있으니."

43 함께 울부짖지 말 것. 들끓지 말 것.

44 "나는 그에게 이렇게 옳은 대답을 하겠다. 사람아, 네 말은 옳지 않다.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면 살게 될지 죽게 될지 그 위험을 셈해야 한다고 너는 생각하는구나. 그는 무엇을 하든 오직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좋은 사람의 일인지 나쁜 사람의 일인지만 살펴야 하는데도."⁷

45 "아테네인들이여, 진실은 이렇다. 누구든 스스로 가장 좋다고 여겨 자리를 잡았거나 지휘관이 그를 그 자리에 세웠다면, 내가 보기에 그는

거기 머물러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수치보다 죽음이나 그 밖의 무엇을 먼저 셈해서는 안 된다."

46 "하지만 친구여, 고귀하고 좋은 것이 남을 살리고 제가 살아남는 일과는 다른 무엇이 아닌지 살펴보라. 참으로 사내다운 사람이라면 얼마 동안 사느냐 하는 문제는 내려놓아야 하고 목숨에 매달려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일은 신에게 맡기고, 누구도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는 여인네들의 말을 믿은 다음, 그가 살펴야 할 것은 앞으로 살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 수 있느냐는 것이다."

47 별들의 운행을 그들과 함께 달리는 듯이 둘러보고, 원소들이 서로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쉬지 않고 생각할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땅바닥에 붙은 삶의 때가 찢겨 나간다.

48 플라톤의 이 말은 훌륭하다. 사람에 대해 말하려는 이는 땅 위의 일들도 어딘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 살펴야 한다. 가축 떼, 군대, 농사, 혼인, 이혼, 출생, 죽음, 법정의 소란, 황량한 땅, 갓가지 야만족, 축제, 곡소리, 장터, 온갖 것이 한데 뒤섞인 모습,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어울려 하나의 질서를 이루는 모습을.

49 지나간 일을, 그 술한 패권의 흥망을 돌아볼 것. 앞으로 올 일도 미리 내다볼 수 있다. 그 일들은 틀림없이 같은 모양일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박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 사람의 삶을 사십 년 동안 지켜보든 만 년 동안 지켜보든 다를 것이 없다. 더 무엇을 보겠는가?

50 "땅에서 난 것은 땅으로, / 하늘의 씨앗에서 움튼 것은 / 다시 하늘 높은 곳으로 돌아갔다."⁸ 아니면 이것은 원자들끼리의 얽힘이 풀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원소들이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다.

51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주문으로 / 물질을 비틀어 죽음을 피하려 한다."⁹ 〈…〉 "신이 불어 보내는 바람은 / 신을 없이 애쓰며 견딜

수밖에 없다."

52 씨름에서 상대를 더 잘 넘어뜨릴지는 몰라도, 더 공동체적이지도, 더 염치 있지도, 일어나는 일 앞에서 더 침착하지도, 이웃의 실수에 더 너그럽지도 않다.

53 신들과 사람들에게 공통된 이성에 따라 일을 해낼 수 있는 곳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 순조롭게 나아가며 본바탕에 맞게 펼쳐지는 활동으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서는 어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54 언제 어디서나 너에게 달려 있다. 지금 닥친 일을 경건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의롭게 대하는 것도, 지금 떠오른 인상을 공들여 다루어 제대로 붙잡지 못한 것이 몰래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도.

55 남의 지도 이성을 기웃거리지 말고, 본성이 너를 어디로 이끄는지 그쪽을 똑바로 보라. 전체의 본성은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너의 본성은 네가 해야 할 일들을 통해 너를 이끈다. 저마다 제 본바탕에 따르는 일을 해야 한다. 이성이 없는 나머지 것들은 이성적 존재를 위해 지어졌고, 다른 모든 것에서도 못한 것이 나은 것을 위해 있듯, 이성적 존재들은 서로를 위해 지어졌다. 그러니 사람의 본바탕에서 으뜸가는 것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다. 둘째는 몸이 겪는 일에 굴하지 않는 것이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움직임은 스스로 경계를 긋고 감각의 움직임에도 충동의 움직임에도 결코 지지 않는 것을 제 고유한 일로 삼기 때문이다. 이 둘은 짐승의 것이고, 지성적인 움직임은 으뜸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들에 휘둘리려 하지 않는다. 마땅한 일이다. 그것은 본디 그것들을 모두 부리도록 생겨났으니까. 이성적 본바탕의 셋째는 선불리 휩쓸리지 않고 속지 않는 것이다. 지도 이성이 이것들을 꼭 붙들고 곧장 제 길을 가게 하라. 그러면 제 몫을 다 얻는다.

56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삶을 지금까지로 다 산 사람처럼, 남은 시간은 텅으로 받아 본성에 맞게 살아야 한다.

57 오직 너에게 일어나는 일, 운명의 실과 함께 자아진 일만을 사랑할 것. 그보다 더 너에게 꼭 맞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58 일이 생길 때마다, 같은 일을 겪고 괴로워하고 낯설어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을 눈앞에 떠올릴 것.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본성에 맞지 않는 이런 동요는 흔들리는 자들과 흔들리는 자들에게 맡겨 두고, 너는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쓸지에만 온 마음을 쏟지 않겠는가? 그러면 너는 그것들을 잘 쓸 것이고, 그것들은 네 재료가 될 것이다. 그저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을 하든 너 스스로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라.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기억하라. 행위가 무엇을 다루든 그 대상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도.¹⁰

59 안을 파라. 선의 샘은 안에 있고, 늘 파기만 하면 늘 솟아날 수 있다.

60 몸도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히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 마음은 얼굴을 차분하고 단정하게 지켜 그 얼굴에 제 모습을 드러내는데, 바로 그것을 몸 전체에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꾸밈없이 지켜야 한다.

61 사는 기술은 춤보다 씨름을 더 닮았다. 갑자기 덮쳐 오는, 미리 알 수 없는 것에 맞서 넘어지지 않고 채비를 갖춘 채 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62 네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지도 이성이 어떠한지 늘 눈여겨볼 것. 그들의 판단과 충동이 솟아나는 샘을 들여다보면, 마지못해 잘못하는 이들을 탓하지도 않고 그들의 인정을 바라지도 않게 될 것이다.

63 "모든 영혼은 본의 아니게 진리를 빼앗긴다"고 그는 말한다.¹¹ 정의도, 절제도, 너그러움도, 그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면 너는 누구에게나 더 온화해질 것이다.

64 어떤 고통이든 이 생각을 손 닿는 곳에 두어라.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키를 잡은 마음을 더 나쁘게 만들지도 않는다. 마음이 이성적인 한에서도, 공동체적인 한에서도 고통은 그것을 망가뜨리지 못한다. 대부분의 고통에는 에피쿠로스의 말도 너를 돕게 하라. 한계를 기억하고 거기에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다면 고통은 견디지 못할 것도 끝없는 것도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이것도 기억하라. 우리를 언짢게 하는 많은 것이 실은 고통과 같은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죽음, 찌는 더위, 입맛 없음 같은 것이 그렇다. 그러니 이런 것 가운데 하나가 못마땅할 때는 '나는 고통에 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65 사람답지 못한 자들이 사람들에게 품는 그런 마음을, 너는 사람답지 못한 자들에게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

66 텔라우게스가 성품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나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소크라테스가 더 이름나게 죽었고, 소피스트들과 더 날렵하게 논쟁했으며, 얼어붙은 밤을 더 꾀꾀하게 지새웠고, 살라미스의 레온을 잡아 오라는 명령을 받고 더 의연하게 거역한 것으로 보였으며, "거리를 으스대며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¹² 마지막 이야기는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특히 따져 볼 만하겠지만. 살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영혼을 지녔는가. 사람들 앞에서 정의롭고 신들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는가. 남의 악덕에 함부로 분개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무지에 종노릇하지도 않았는가. 전체가 나누어 준 몫을 닳은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버티지도 않았는가. 가련한 살덩이가 겪는 일에 정신이 함께 휘둘리도록 내주지도 않았는가.

67 자연은 정신을 몸과 뒤섞을 때, 스스로 경계를 긋고 제 것을 제 손안에 둘 수 없을 만큼 뒤섞지는 않았다. 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도. 행복하게 사는 일은 아주 적은 것에 달려 있다. 논리학자나 자연학자가 되리라는 희망을 버렸다고 해서, 자유롭고 염치 있고 공동체적이고 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희망까지 버리지는 마라.

68 무엇에도 억눌리지 않고 더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것. 모든 사람이 너에게 대고 마음대로 고함쳐도, 들짐승들이 너를 감싸고 자라난 이 반죽 덩어리의 가련한 팔다리를 찢어발겨도.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마음이 제 고요를 지키고, 둘러싼 일들을 참되게 판단하고, 손에 주어진 것을 언제든 쓸 채비를 갖추는 데 무엇이 걸림이 되겠는가? 그러면 판단은 닥쳐온 일에게 말한다. '남들 눈에는 달리 보일지 몰라도 너는 실체로는 이런 것이다.' 쓰임은 손에 들어온 것에게 말한다. '내가 찾던 것이 너다.' 나에게에는 지금 있는 것이 언제나 이성적이고 시민다운 덕의 재료이고, 한마디로 사람이나 신의 기술이 쓸 재료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이나 사람에게 제 것처럼 맞아들여지며, 새롭지도 다루기 어렵지도 않고 낯익고 손에 잘 맞는다.

69 성품의 완성은 이것이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보내되, 들끓지도 무디어지지도 꾸며 보이지도 않는 것.

70 신들은 죽지 않는 존재이면서도, 그 긴긴 세월 동안 이 모양인 못난 자들을, 그것도 이토록 많은 자들을 끝없이 참아 주어야 한다고 언짢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온갖 손길로 그들을 돌보기까지 한다.

그런데 곧 끝날 너는 지쳐서 손을 놓는가? 너 자신도 그 못난 자들 가운데 하나이면서?

71 제 악덕은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남의 악덕은 피할 수 없는데도 피하려 드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72 이성적이고 시민다운 능력은 지성적이지도 공동체적이지도 않은 것을 보면, 마땅히 그것을 자기보다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73 네가 좋은 일을 했고 남이 그 덕을 보았다면, 어리석은 자들처럼 무엇 때문에 그 밖에 셋째 것을 찾는가? 좋은 일을 했다는 평판이나 보답 따위를?

74 이로움을 받는 데 지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로움이란 본성에 맞는 행위다. 그러니 남을 이롭게 하면서 네가 받는 이로움에 지치지 마라.

75 전체의 본성은 충동을 일으켜 우주를 지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결과로 뒤따라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주의 지도 이성이 제 충동을 쏟는 가장 중요한 것들마저 이성 없이 흘러간다. 이것을 기억하면 많은 일에서 너는 더 고요해질 것이다.

1. 그리스어로 '지체'는 melos, '부분'은 meros로 l과 r 한 글자만 다르다.

2. eudaimonia는 '좋은(eu)'과 '신령(daimōn)'을 합친 말이다.

3. 데모크리토스의 말. 데모크리토스가 '관습으로'라는 뜻으로 쓴 nomisti를 마르쿠스는 '법을 따라'라는 뜻으로 바꾸어 받는다. 이 장의 끝 구절은 원문이 확실하지 않다.

4. 플라톤 《국가》 6권 486a.

5. 안티스테네스의 말로 전한다(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철학자 열전》 6.3).

6. 7.38~7.42는 시구 모음이다. 7.38은 에우리피데스 《벨레로폰테스》 단편, 7.40은 《힉시필레》 단편, 7.41은 《안티오페》 단편, 7.42는 아리스토파네스 《아카르나이 사람들》 661행이다. 7.39는 출처를 모른다.

7. 7.44는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28b, 7.45는 같은 책 28d, 7.46은 《고르기아스》 512d~e. 7.48의 구절은 전하는 플라톤 저작에서 찾을 수 없다.

8. 에우리피데스 《크리시포스》 단편.

9. 앞 두 행은 에우리피데스 《탄원하는 여인들》 1110~1111행, 뒤 두 행은 출처를 모르는 비극 단편이다. 〈…〉는 저본에서 빠진 대목이다.

10. 원문 손상. 저본은 '상관있다(diaphoron)'로 되어 있으나 앞뒤 뜻에 따라 '상관없다(adiaphoron)'로 읽었다.

11. 플라톤의 말로, 에픽테토스가 즐겨 인용했다(《강의록》 1.28.4).

12. 텔라우게스는 피타고라스의 아들로 전하는 인물이다. 레온 일은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32c, '으스대며 걸었다'는 아리스토파네스 《구름》 362행에 나온다.

제8권

1 이것도 헛된 명예심을 덜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너는 이제 삶 전체를, 적어도 젊은 날부터의 삶을 철학자로 살아왔다고 내세울 수 없다. 오히려 남들 여럿에게도, 너 자신에게도 네가 철학과 한참 떨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너는 뒤죽박죽이 되었고, 이제 철학자라는 평판을 얻기는 쉽지 않다. 네가 놓인 처지 또한 그 길을 거스른다. 그러니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참으로 보았다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내려놓고, 남은 삶이 얼마가 되든 네 본성이 바라는 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렇다면 본성이 무엇을 바라는지 헤아려 보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헤매고 다녔지만 어디서도 잘 사는 길을 찾지 못했는지 겪어 보아 안다. 삼단논법에서도, 부에서도, 명성에서도, 향락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 있는가? 사람의 본성이 찾는 일을 하는 데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동과 행위가 흘러나오는 원칙을 지니면 된다. 어떤 원칙인가? 선과 악에 관한 원칙이다. 사람을 정의롭고 절제 있고 용감하고 자유롭게 만들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사람에게 선이 아니고, 방금 말한 것과 반대로 만들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악이 아니라는 원칙.

2 어떤 일을 하든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일은 나에게 어떠한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조금만 지나면 나는 죽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

지금 하는 일이 지성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신과 같은 법 아래 사는 생명의 일이라면, 내가 그 밖에 무엇을 더 찾겠는가?

3 알렉산드로스와 가이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디오게네스와 헤라클레이토스와 소크라테스에 비하면 무엇인가? 이들은 사물을, 그 원인과 질료를 꿰뚫어 보았고, 이들의 지도 이성(hēgemonikon)은 한결같았다. 저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걱정해야 했고, 얼마나 많은 것에 종노릇했는가.

4 네가 속이 터져 죽어도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할 것이다.

5 첫째, 동요하지 마라. 모든 것은 전체의 본성에 따라 일어난다. 그리고 머지않아 너는 아무도 아니고,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드리아누스도 아우구스투스도 그렇게 되었듯이. 다음으로, 일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피라. 그리고 네가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과 사람의 본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함께 떠올리며, 뒤돌아보지 말고 그 일을 하라. 말은 네게 가장 정의롭게 보이는 대로 하라. 다만 너그럽게, 염치 있게, 꾸밈없이.

6 우주의 본성이 하는 일은 이것이다. 여기 있는 것을 저기로 옮기고, 바꾸고, 이쪽에서 들어 저쪽으로 나르는 것. 모든 것이 바뀐다. 그렇다고 무언가 새로운 일이 닥칠까 두려워할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낫익다. 게다가 나누어 주는 몫도 고르다.

7 모든 본성은 제 길을 순조롭게 갈 때 스스로 만족한다. 이성적 본성은 이럴 때 제 길을 순조롭게 간다. 인상을 받을 때 거짓된 것에도 불분명한 것에도 동의하지 않고, 충동을 공동체를 위한 일로만 향하게 하며, 욕구와 기피를 우리에게 달린 것에만 두고, 공통의 본성이 나누어 주는 것은 무엇이든 반겨 맞을 때. 이성적 본성은 그 공통의 본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잎의 본성이 식물 전체의 본성의 한 부분이듯이. 다만 잎의 본성은 감각도 이성도 없고 가로막힐 수도 있는 본성의

부분이지만, 사람의 본성은 가로막히지 않고 지성적이며 정의로운 본성의 부분이다. 그 본성은 저마다에게 시간과 실체와 원인과 활동과 일어나는 일을 고르게, 그리고 값어치에 맞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를 하나와 견주어 모든 점에서 같은지 찾지 말고, 한쪽의 모든 것을 한데 모아 다른 쪽의 모든 것과 견주어 같은지 살펴라.

8 책을 읽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오만을 누를 수는 있다. 쾌락과 고통을 이겨 낼 수는 있다. 하찮은 명성 위에 설 수는 있다. 둔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볼 수는 있다.

9 이제 누구도 네가 궁정 생활을 닮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라. 너 자신도.

10 후회란 쓸모 있는 무언가를 놓쳐 버린 자신을 꾸짖는 일이다. 쓸모 있는 것은 선한 무엇이어야 하고,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돌보아야 한다. 그런데 훌륭하고 선한 사람 가운데 어떤 쾌락을 놓쳤다고 후회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 쾌락은 쓸모 있지도 선하지도 않다.

11 이것은 제 본바탕으로 보아 그 자체로 무엇인가? 그 실체이자 질료인 것은 무엇이고, 원인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주에서 무엇을 하며, 얼마 동안 머무는가?

12 잠에서 깨어나기 힘들 때는 이것을 떠올려라.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해내는 것은 네 본바탕에도 사람의 본성에도 맞는 일이지만, 잠자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들도 함께 하는 일이다. 저마다 제 본성에 맞는 것이 더 제 것답고, 더 몸에 붙고, 게다가 더 즐겁다.

13 할 수만 있다면 늘, 어떤 인상을 받든, 그것을 두고 자연의 이치를 따지고, 걱정 of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따질 것.

14 누구를 만나든 곧바로 스스로에게 미리 말해 두어라. 이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해 어떤 원칙을 지니고 있는가? 그가 쾌락과 고통, 그 둘을

낳는 것들, 그리고 명예와 불명예, 죽음과 삶에 대해 이러저러한 원칙을 지니고 있다면, 그가 이러저러한 짓을 해도 나에게서는 놀랍지도 낯설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15 기억하라.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맺는다고 놀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듯, 우주가 제가 맺기 마련인 이러저러한 것들을 맺는다고 놀라는 것도 똑같이 부끄러운 일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열이 났다고 놀라고, 키잡이가 맞바람이 분다고 놀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16 기억하라. 생각을 바꾸어 바로잡아 주는 사람을 따르는 것도 똑같이 자유로운 일이다. 그것은 네 충동과 판단에 따라, 그리고 네 정신에 따라 이루어지는 너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17 그것이 너에게 달린 일이라면 왜 그렇게 하는가? 남에게 달린 일이라면 누구를 탓하는가? 원자들이거나 신들이거나, 어느 쪽을 탓하든 미친 짓이다. 아무도 탓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면 바로잡아라.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일 그 자체를 바로잡아라. 그것마저 할 수 없다면 탓해서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엇이든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18 죽은 것은 우주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 머문다면 여기서 변하고, 제 원소들로 흩어진다. 그 원소들은 우주의 원소이자 너의 원소다. 그것들도 변하지만 투덜거리지 않는다.

19 모든 것은 무언가를 위해 생겨났다. 말도, 포도나무도. 무엇이 놀라운가? 태양도 '나는 어떤 일을 위해 생겨났다'고 말할 것이고, 다른 신들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위해 생겨났는가? 즐기기 위해서? 사람의 상식이 그런 생각을 견뎌 내는지 보라.

20 자연은 무엇에서든 그 시작과 이어짐 못지않게 그 끝도 겨냥한다. 공을 던져 올리는 사람처럼. 그러니 공에게 올라가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고, 내려오거나 떨어져 버리는 것이 무슨 나쁜 일인가? 물거품에게

몽쳐 있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고, 터져 버리는 것이 무슨 나쁜 일인가?
등불도 마찬가지로.

21 뒤집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라.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 병들면, 음욕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칭찬하는 자도 칭찬받는 자도, 기억하는 자도 기억되는 자도 잠깐 살다 간다. 게다가 그것은 이 땅의 한 귀퉁이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고, 거기서도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지는 않으며, 한 사람조차 저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 땅 전체도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22 눈앞의 것에 마음을 쏟아라. 그것이 대상이든 원칙이든 활동이든 말의 뜻이든.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마땅하다. 너는 오늘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 내일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니까.

23 나는 무언가를 하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되도록 마음에 두고 한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신들에게,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한 줄로 엮여 흘러나오는 만물의 샘에 그 일을 돌리며 받아들인다.

24 목욕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기름, 땀, 때, 끈적한 물, 모두 역겹다. 삶의 모든 부분, 눈앞의 모든 것이 그와 같다.

25 루킬라가 베루스를 물었고, 이어 루킬라가 물었다.¹ 세쿤다가 막시무스를 물었고, 이어 세쿤다가 물었다. 에피틴카노스가 디오티모스를 물었고, 이어 에피틴카노스가 물었다. 안토니누스가 파우스티나를 물었고, 이어 안토니누스가 물었다. 모든 것이 이렇다. 켈레르가 하드리아누스를 물었고, 이어 켈레르가 물었다. 그 날카롭던 자들, 앞일을 내다보던 자들, 허영에 들떴던 자들은 어디 있는가? 이를테면 날카로운 머리로 이름났던 카락스와 플라톤학과 데메트리오스와 에우다이몬, 그리고 그런 부류의 누구든. 모두 하루살이였고, 오래전에 죽었다. 어떤 이는 잠시도 기억되지 않았고, 어떤 이는 전설이 되었으며, 어떤 이는 이미 전설에서도 지워졌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라는 작은 혼합물은 흩어지거나, 네 가냘픈 숨이 꺼지거나, 아니면 옮겨 가 다른 곳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26 사람의 기쁨은 사람다운 일을 하는 데 있다. 사람다운 일이란 동족에게 호의를 품고, 감각의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그럴듯한 인상을 가려내고, 우주의 본성과 그 본성을 따라 일어나는 일들을 두루 살피는 것이다.

27 세 가지 관계. 하나는 너를 감싼 그릇과의 관계, 하나는 모든 것에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는 신성한 원인과의 관계, 하나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28 고통은 몸에 나쁜 것이거나 영혼에 나쁜 것이다. 몸에 나쁜 것이라면 몸이 제 말을 하라지. 영혼에 나쁜 것이라 해도 영혼은 제 맑은 하늘과 고요를 지키고,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판단과 충동, 욕구와 기피는 안에 있고, 아무것도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29 스스로에게 줄곧 이렇게 말하며 인상들을 지워라. '이 영혼에 어떤 못된 마음도, 욕망도, 어떤 동요도 없게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달려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저마다 값어치에 맞게 쓴다.' 본성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이 힘을 기억하라.

30 원로원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단정하게 말할 것. 티 나게 꾸며 말하지 말 것. 건전한 말을 쓸 것.

31 아우구스투스의 궁정. 아내, 딸, 손자들, 의붓아들들, 누이, 아그리파, 친척들, 가솔들, 벗들, 아레이오스, 마이케나스, 의사들, 제관들.² 궁정 전체의 죽음. 그다음엔 다른 것들로 넘어가 보라. 〈...〉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를테면 폼페이우스 집안처럼 한 가문 전체의 죽음을. 무덤에 새겨진 저 글귀 '제 가문의 마지막 사람'도 생각해 보라. 앞사람들이 대를 이을 자손 하나라도 남기려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그런데도 결국 누군가는 마지막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헤아려 보라. 여기서 다시, 한 가문 전체의 죽음.

32 삶은 행위 하나하나로 짜 맞추어 가야 하고, 행위마다 할 수 있는 만큼 제 몫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행위가 제 몫을 다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바깥에서 무언가가 막아설 것이다." 정의롭고 절제 있고 사려 깊게 행하는 데는 아무것도 막아서지 못한다. 다른 어떤 활동은 가로막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걸림돌 자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어진 쪽으로 너그럽게 옮겨 가면, 곧바로 다른 행위가 그 자리를 채운다. 지금 말하는 그 짜임새에 꼭 들어맞는 행위가.

33 받을 때는 허영 없이, 놓을 때는 선선히.

34 잘린 손이나 발, 또는 베어진 머리가 몸의 나머지와 떨어져 어딘가에 나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떼어 내는 사람, 공동체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제 힘이 닿는 한 스스로를 바로 그런 꼴로 만든다. 너는 본성이 맺어 준 하나 됨에서 떨어져 나와 어딘가에 내던져졌다. 본디 부분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스스로를 잘라 냈다. 그러나 여기 멋진 점이 있다. 너는 다시 너 자신을 이어 붙일 수 있다. 신은 다른 어떤 부분에게도, 떨어져 나가고 잘려 나간 뒤에 다시 합쳐지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신이 얼마나 너그럽게 사람을 높여 주었는지 보라. 처음부터 전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도 사람에게 맡겼고, 떨어져 나간 뒤에 돌아와 다시 붙어 자라고 부분의 자리를 되찾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게 했다.

35 이성적 존재의 본성이 이성적 존재 하나하나에게 다른 능력들을 거의 다 나누어 주었듯이, 이 능력도 우리는 바로 그 본성에게서 받았다.³ 그 본성이 자기를 막아서고 거스르는 것을 모두 돌려세워 운명 속에 자리 잡게 하고 제 일부로 삼듯, 이성적 동물도 모든 걸림돌을 제 재료로 삼아, 무엇을 하려고 나섰든 그 일에 쓸 수 있다.

36 삶 전체를 한꺼번에 떠올리다가 어지러워지지 마라. 어떤 괴로움이 얼마나 닥쳐올지 모두 한데 그려 보지 마라. 지금 닥친 일 하나하나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일에서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다고 털어놓기가 부끄러울 것이다. 다음으로, 너를 짓누르는 것은 앞으로 올 일도 지나간 일도 아니고 언제나 지금 이 일이라는 것을 떠올려라. 그런데 지금 이 일만 따로 금 그어 놓고, 이것 하나조차 견디지 못하느냐고 네 마음을 다그치면, 그것은 아주 작아진다.

37 판테이아나 페르가모스가 지금도 베루스의 관 곁에 앉아 있는가?⁴ 카브리아스나 디오티모스가 하드리아누스의 관 곁에 앉아 있는가? 우스운 소리다. 그래, 앉아 있다 한들 죽은 이들이 그것을 느끼겠는가? 느낀다 한들 기뻐하겠는가? 기뻐한다 한들 곁을 지키는 이들이 죽지 않겠는가? 그들도 먼저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가 되었다가 이윽고 죽게끔 운명 지어져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곁을 지키던 이들마저 죽은 뒤에, 저 죽은 이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 모든 것은 자루에 든 악취와 핏덩이일 뿐이다.

38 "눈이 밝다면 보라, 더없이 지혜롭게 가려 보라"고 그는 말한다.

39 이성적 동물의 본바탕에서 나는 정의에 맞서 일어서는 덕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쾌락에 맞서는 덕은 본다. 자제가 그것이다.

40 너를 괴롭히는 듯한 것에 대한 네 판단을 걸어 내면, 너 자신은 더없이 안전한 곳에 선다. "너 자신이란 누구인가?" 이성이다. "하지만 나는 이성이 아니다."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이성은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 것이고, 네 안의 다른 무엇이 괴롭다면 그것이 제 일을 두고 알아서 판단하라지.

41 감각이 가로막히는 것은 동물의 본성에게 나쁜 일이다. 충동이 가로막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물의 본성에게 나쁜 일이다. 식물의

본바탕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로막는 나쁜 무엇이 있다. 그렇다면 정신이 가로막히는 것은 지성적인 본성에게 나쁜 일이다. 이 모든 것을 너 자신에게 옮겨 보라. 고통이나 쾌락이 너를 건드리는가? 그것은 감각이 알아서 할 일이다. 무언가를 하려고 나섰는데 걸림돌이 생겼는가? 아무 단서도 달지 않고 나섰다면 그것은 이미 이성적 존재인 너에게 나쁜 일이다. 그러나 일이 으레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아직 해를 입지도 가로막히지도 않았다. 정신에 고유한 것은 다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는 법이다. 불도, 쇠붙이도, 폭군도, 비방도, 그 무엇도 정신에 손대지 못한다. 정신이 "홀로 있음을 기뻐하는 둥근 구"가 되었을 때는.⁵

42 나는 나 자신을 괴롭혀도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남을 일부러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으니.

43 사람마다 기쁨이 다르다. 나에게 기쁨은 지도 이성을 건강하게 지니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저마다 값어치에 맞게 쓰는 지도 이성을.

44 자, 바로 지금 이 시간을 너 자신에게 선물하라. 죽은 뒤의 명성을 더 좇는 자들은 셈하지 못한다. 뒷사람들도 지금 그들이 짐스러워하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일 것이고, 그들 또한 죽는다는 것을. 그들이 이러저러한 소리로 떠들든, 너를 두고 이러저러한 판단을 품든, 그것이 대체 너와 무슨 상관인가?

45 나를 들어 네가 원하는 곳에 던져라. 거기서도 내 신령은 온화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제 본바탕에 맞게 있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것이 내 영혼이 괴로워하고, 제 모습보다 못해지고, 비굴해지고, 무언가를 갈망하고, 움츠러들고, 겁에 질릴 만한 일인가? 그럴 만한 일을 너는 무엇에서 찾겠는가?

46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소에게는 소에게 걸맞지 않은 일이, 포도나무에게는 포도나무에게 걸맞지 않은 일이, 돌에게는 돌답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저마다에게 늘 일어나고 본디 일어나기 마련인 일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못마땅하겠는가? 공통의 본성은 네가 견디지 못할 것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47 바깥의 무엇 때문에 괴롭다면, 너를 성가시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네 판단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지금 지워 버리는 것은 너에게 달려 있다. 네 마음가짐 속의 무엇이 너를 괴롭힌다면, 그 원칙을 바로잡는 데 누가 걸림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네게 옳아 보이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해서 괴롭다면, 왜 괴로워하는 대신 그 일을 하지 않는가? "하지만 더 센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다." 그렇다면 괴로워하지 마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탓은 너에게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살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삶을 떠나라. 할 일을 다 하며 죽는 사람이 떠나듯, 가로막은 것들과도 화평한 마음으로.

48 기억하라. 지도 이성은 제 안으로 뚫뚫 뭉쳐 스스로 만족하고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을 때, 비록 이치 없이 버티는 것이라 해도 꺾을 수 없는 것이 된다. 하물며 이성을 갖추고 두루 살펴서 무엇을 판단할 때는 어떻겠는가? 그러므로 걱정에서 풀려난 마음은 성채다.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튼튼한 곳이 없으니, 거기로 피하면 그 뒤로는 함락되지 않는다.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무지하고, 보고도 그리로 피하지 않는 사람은 불운하다.

49 첫 인상이 알려 주는 것 말고는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덧붙여 말하지 마라. 누가 너를 욕한다는 소식이 왔다. 그 소식은 왔다. 그러나 네가 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오지 않았다. 아이가 아픈 것이 보인다.

그것은 보인다. 그러나 아이가 위태롭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언제나 첫 인상에 머물고 안에서 아무것도 덧붙이지 마라. 그러면 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덧붙이려거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하나 다 알아보는 사람으로서 덧붙여라.

50 오이가 쓴가? 버려라. 길에 가시덤불이 있는가? 비켜 가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왜 세상에 생겨났는가?' 하고 덧붙이지 마라. 자연을 아는 사람이 너를 비웃을 것이다. 목수나 구두장이의 일터에서 깎아 낸 부스러기와 잘라 낸 자투리를 보고 트집을 잡으면 그들이 너를 비웃을 것처럼.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내다 버릴 곳이 있다. 그러나 우주의 본성에게는 바깥이 없다. 그런데 그 기술은 놀랍다. 우주의 본성은 스스로에게 경계를 둘러 놓고, 그 안에서 썩고 늙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모조리 제 안으로 바꾸어 들이고, 바로 그것들로 다시 새것을 만든다. 그래서 바깥에서 실체를 들여올 필요도 없고, 썩은 것을 내다 버릴 곳도 필요 없다. 우주의 본성은 제 자리와 제 질료와 제 기술로 만족한다.

51 일할 때는 느장 부리지 말고, 이야기할 때는 횡설수설하지 말고, 생각할 때는 인상들 사이를 헤매지 말 것. 영혼이 한꺼번에 움츠러들거나 날뛰지 않게 하고, 삶에서 분주함에 쫓겨 여유를 잃지 말 것. 그들이 죽이고, 살을 저미고, 저주를 퍼부으며 쫓아낸다. 그것이 마음이 깨끗하고 맑고 절제 있고 정의롭게 머무는 데 무슨 상관인가? 누가 맑고 단 샘 곁에 서서 샘을 욕한다 해도 샘은 마실 물을 솟구치기를 그치지 않는다. 진흙을 던져 넣든 똥을 던져 넣든 샘은 금세 그것을 흠여 씻어 내고 조금도 물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인 우물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을 지닐 수 있겠는가? 너그러움과 소박함과 염치를 지니고서, 시시각각 너 자신을 지켜 자유로 나아가면 된다.

52 우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우주가 무엇을 위해 생겨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우주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놓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손뼉 치며 보내는 칭찬을 피하거나 쫓는 사람이 너에게는 어떻게 보이는가?

53 한 시간에 세 번씩 제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싶은가?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은가? 제가 하는 일 거의 모두를 후회하는 사람이 스스로 마음에 들겠는가?

54 이제는 너를 둘러싼 공기와 함께 숨 쉬는 데 그치지 말고, 모든 것을 둘러싼 지성적인 것과 함께 생각할 것. 공기의 힘이 그것을 들이쉴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듯, 지성적인 힘도 그것을 끌어들이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못지않게 어디에나 두루 퍼져 스며들어 있다.

55 악덕은 전체로 보면 우주를 조금도 해치지 않고, 하나하나로 보면 남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그 악덕을 지닌 사람에게만 해로운데, 그 사람에게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열려 있다.

56 내 의지(prohairesis)에게 이웃의 의지는, 그의 가냘픈 숨이나 살덩이와 마찬가지로 선도 악도 아닌 것(adiaphoron)이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해도, 우리 저마다의 지도 이성(이성)은 제 주권을 지닌다. 그렇지 않다면 이웃의 악덕이 나의 악이 될 텐데, 신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 내 불행이 남에게 달려 있지 않도록.

57 해는 아래로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사방으로 퍼져 있다. 그러나 쏟아져 흘러 나가 버리지는 않는다. 이 퍼짐은 뻗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햇살을 아크티네스(aktines)라 부르니, '뻗어 나간다(ekteinesthai)'는 말에서 온 이름이다. 햇살이 어떤 것인지는, 좁은

틈으로 어두운 방에 스며드는 햇빛을 보면 알 수 있다. 햇빛은 곧게 뻗어나가다가, 그 너머의 공기를 가로막는 단단한 것을 만나면 마치 거기에 기대어 버티듯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미끄러지지지도 떨어지지지도 않는다. 마음이 퍼지고 두루 번지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한다. 결코 쏟아져 흘러나가 버리지 않고 뻗어야 하며, 마주친 걸림돌에 거칠게 들이받거나 사납게 부딪치지도, 그렇다고 주저앉지도 말고, 멈춰 서서 받아들이는 것을 환히 비추어야 한다. 빛을 들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그 빛을 잃을 것이다.

58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감각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감각이 더는 없다면 너는 어떤 나쁜 것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다른 감각을 얻는다면 너는 다른 생명이 될 뿐 사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59 사람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 가르치든지, 참든지 하라.

60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정신이 나아가는 것은 다르다. 정신은 조심할 때에도, 이리저리 살피며 돌아갈 때에도, 못지않게 곧장 과녁을 향해 나아간다.

61 누구의 지도 이성이든 그 안으로 들어가 볼 것. 그리고 다른 누구든 네 지도 이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내어 줄 것.

1. 루킬라는 마르쿠스의 어머니, 베루스는 그 남편인 아버지 안니우스 베루스다. 세쿰다는 막시무스(1.15)의 아내, 파우스티나는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아내, 켈레르는 하드리아누스의 비서를 지낸 수사학자로 보인다.

2. 아그리파는 아우구스투스의 사위이자 오른팔, 마이케나스는 그의 벗이자 조언자, 아레이오스는 그가 아낀 철학자다. 뒤의 〈…〉는 저본에서 빠진 대목이다.

3. 이 장 첫머리는 원문이 손상되어 동사가 빠져 있다. 뜻에 따라 '나누어 주었듯'을 채워 옮겼다.

4. 공동 황제 루키우스 베루스로, 8.25의 베루스(마르쿠스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다. 판테이아와 페르가모스는 그의 측근, 카브리아스와 디오티모스는 하드리아누스의 측근이었다.

5. 엠페도클레스의 시구.

제9권

1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불경을 저지른다. 우주의 본성은 이성적 동물을 서로를 위해, 곧 저마다 마땅한 만큼 서로 돕되 결코 해치지는 않도록 지었으니, 그 뜻을 어기는 자는 분명히 신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여신¹에게 불경을 저지른다. 거짓말하는 자도 같은 여신에게 불경을 저지른다. 우주의 본성은 있는 것들의 본성이고, 있는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한 집안 식구처럼 땀어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본성은 진리라고도 불리며, 참된 모든 것의 첫째 원인이다.

알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속여서 불의를 저지르는 만큼 불경하다. 모르고 거짓말하는 자도 불경하다. 그는 우주의 본성과 어긋나고, 그 본성과 싸우면서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제 탓으로 참과 반대쪽으로 쏠려 가는 자는 우주와 싸우는 셈이니, 그는 자연에게서 밀천을 미리 받아 두고도 그것을 소홀히 한 탓에 이제는 거짓과 참을 가려내지 못한다. 또 쾌락을 선이라 여겨 쫓고 고통을 악이라 여겨 피하는 자도 불경하다. 그런 자는 공통의 자연이 못난 자와 훌륭한 자에게 마땅한 몫과 어긋나게 나눠 준다고 자주 탓할 수밖에 없다. 못난 자는 흔히 쾌락 속에 살면서 쾌락을 낳는 것들까지 손에 넣는데, 훌륭한 자는 고통과 고통을 낳는 일에 빠지곤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통을 두려워하는 자는 언젠가 우주에서 일어날 일까지 두려워하게 될 텐데, 그것은 이미 불경이다. 쾌락을 쫓는 자는 불의를 멀리하지 못할 텐데, 그것은 누가 보아도 불경이다. 공통의 자연이

똑같이 대하는 것들이 있다. 둘을 똑같이 대하지 않았다면 자연은 그 둘을 다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자연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연과 한마음이 되어 그것들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 고통과 쾌락, 죽음과 삶, 명예와 불명예처럼 우주의 본성이 똑같이 쓰는 것들을 스스로는 똑같이 대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불경을 저지르고 있다.

공통의 자연이 이것들을 똑같이 쓴다고 나는 말했지만, 풀어 말하면 이렇다. 섭리가 태초에 일으킨 어떤 충동에 따라, 생겨나는 것들과 그 뒤를 이어 생겨나는 것들에게 이것들이 차례대로 똑같이 일어난다. 섭리는 그 충동으로 어떤 시작에서 출발해 지금 이 우주의 질서를 향해 나아갔으니, 장차 있을 것들의 이치를 얼마간 거두어 모으고 존재와 변화와 그런 잇따름을 낳는 힘을 정해 두었다.

2 거짓말과 온갖 위선과 사치와 허영을 맛보지도 않은 채 사람들 곁을 떠난다면, 그것은 더 품위 있는 사람의 몫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것들에 물릴 대로 물린 다음 숨을 거두는 것이 그다음으로 좋은 길이다. 아니면 너는 악덕 곁에 눌러앉기로 작정했는가? 꺾어 보고도 아직 이 역병에서 달아날 마음이 들지 않는가? 마음이 썩는 것이야말로 역병이며, 우리를 둘러싼 이 공기가 이렇게 탁해지고 뒤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역병이다. 공기의 역병은 동물이 동물인 한에서 걸리는 역병이지만, 마음의 역병은 사람이 사람인 한에서 걸리는 역병이다.

3 죽음을 깔보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라. 죽음도 자연이 바라는 일 가운데 하나다. 짧은 시절을 보내고 늙어 가는 것, 자라고 한창때에 이르는 것, 이가 나고 수염이 돋고 머리가 세는 것, 씨를 뿌리고 아이를 배고 낳는 것, 그 밖에 삶의 철마다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그러하듯 해체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생각이 깊은 사람은 죽음을 건성으로 대하지도, 성급하게 밀어붙이지도, 거만하게 깔보지도 않고,

자연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로 여겨 기다린다. 지금 네 아내의 배에서 아기가 언제 나올지 기다리듯, 네 작은 영혼이 이 껍데기에서 빠져나올 때를 그렇게 맞이하라. 철학답지는 않아도 가슴에 와닿는 평범한 위안을 원한다면, 네가 곧 떠날 것들이 무엇인지, 네 <...>² 더는 어떤 성품들과 뒤섞이지 않게 될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만큼 너를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해 주는 것도 없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언짢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너그럽게 참아야 한다. 다만 네가 놓여나며 떠나는 이들이 너와 원칙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만은 기억하라. 너를 거꾸로 끌어당겨 삶에 붙잡아 둘 것이 있다면, 오직 그것 하나, 같은 원칙을 몸에 지닌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허락되는 일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는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지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된다. "죽음아, 어서 오너라. 혹시라도나마저 나 자신을 잊지 않도록."

4 잘못하는 자는 자기에게 잘못한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자기에게 불의를 저지른다. 자기를, 바로 자기 자신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이다.

5 무언가를 하지 않는 자도 불의를 저지를 때가 많다. 무언가를 하는 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6 지금의 판단이 대상을 확실히 붙잡고, 지금의 행위가 공동체를 위하며, 지금의 마음가짐이 바깥 원인에서 오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7 인상을 지워라. 충동을 멈춰라. 욕구를 꺼라. 지도 이성(hēgemonikon)을 너 자신의 손에 쥐고 있어라.

8 이성 없는 동물들에게는 하나의 영혼이 나뉘어 있고, 이성적인 동물들에게는 하나의 지성적인 영혼이 나뉘어 있다. 흠으로 된 모든 것에게 땅이 하나이고, 볼 수 있고 살아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빛으로 보고 하나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9 무언가 공통된 것을 나누어 가진 것들은 모두 제 동류를 향해 서둘러 간다. 흙에 속한 것은 모두 땅으로 기울고, 물기 있는 것은 모두 한데 흘러 모이며, 공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여서 이것들을 떼어 놓으려면 가로막는 것과 힘이 있어야 한다. 불은 원소인 불 때문에 위로 오르지만, 여기 지상의 모든 불과 함께 타오를 채비가 워낙 되어 있어서, 조금만 더 마른 질료라면 무엇이든 쉽게 불이 붙는다. 불붙는 것을 막는 성분이 덜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통의 지성적 본성을 나누어 가진 것은 모두 그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제 동족을 향해 서둘러 간다. 다른 것들보다 뛰어난 만큼, 제게 맞는 것과 섞이고 어우러질 채비도 그만큼 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이성 없는 동물들에게서 벌 떼와 짐승 떼, 새끼 기르기, 사랑 비슷한 것들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이미 영혼이 있었고, 한데 모으려는 힘이 더 높은 것 안에서 더 팽팽해졌으니, 식물이나 돌이나 나무에서는 볼 수 없던 일이다. 이성적인 동물들에게는 나라와 우정, 집안과 모임이 있고, 전쟁 중에도 협정과 휴전이 있다. 그보다 더 뛰어난 것들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떤 하나 됨이 생겨났으니, 별들이 그렇다. 이처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떨어져 있는 것들 사이에도 공감을 빚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라. 지성적인 것들만이 지금 서로를 향한 열의와 끌림을 잊었고, 한데 흘러 모이는 모습이 여기서만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그들은 달아나면서도 끝내 붙잡힌다. 자연이 이기니까. 지켜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흙으로 된 것이 다른 흙에 전혀 닿지 않은 채 있는 것을 찾기가, 다른 사람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을 찾기보다 더 쉬운 것이다.

10 사람도 신도 우주도 열매를 맺는다. 저마다 제철에 맺는다. 흔히들 열매 맺는다는 말을 포도나무 같은 것에만 제대로 쓰는 말로 굳혀 놓았지만, 그것은 아무 상관 없다. 이성도 모두를 위한 열매와 저만의

열매를 맺으며, 이성에게서는 이성 자신과 같은 종류의 다른 것들이 생겨난다.

11 할 수 있다면 가르쳐 바로잡아라. 할 수 없다면, 바로 그럴 때를 위해 너에게 너그러움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신들도 그런 자들에게 너그럽고, 어떤 일에서는, 이를테면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성을 얻는 일에서는 거들어 주기까지 한다. 신들은 그만큼 선하다. 너도 그럴 수 있다. 아니라면 말해 보라. 누가 너를 막는가?

12 일하되 비참한 사람처럼 일하지 말고, 동정이나 감탄을 바라는 사람처럼 일하지도 마라. 오직 하나만 바라라. 시민다운 이성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고 멈추는 것.

13 오늘 나는 모든 곤경에서 빠져나왔다. 아니, 모든 곤경을 내던졌다. 곤경은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내 판단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14 이 모든 것은 꺾어 보면 뻥하고, 시간으로 보면 하루살이이며, 질료로 보면 더럽다.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묻은 그 사람들 시절과 똑같다.

15 사물은 문밖에 저 혼자 서 있다. 자기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판정을 내리지도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사물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가? 지도 이성이다.

16 이성적이고 시민다운 동물의 선과 악은 겪는 데 있지 않고 행하는 데 있다. 그 동물의 덕과 악덕이 겪는 데 있지 않고 행하는 데 있는 것과 같다.

17 위로 던져 올린 돌에게는 떨어지는 것이 악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이 선도 아니다.

18 그들의 지도 이성 속으로, 안으로 더 안으로 들어가 보라. 네가 어떤 재판관들을 두려워하는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두고는 또 어떤 재판관인지 보게 될 것이다.

19 모든 것이 변화 속에 있다. 너 자신도 끊임없이 바뀌고 어떤 의미에서는 썩어 가고 있으며, 우주 전체도 그렇다.

20 남의 잘못은 거기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21 활동이 끝나는 것, 충동과 판단이 멈추는 것은 일종의 죽음이지만 조금도 나쁘지 않다. 이제 나이로 넘어가 보라.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노년. 그 하나하나가 바뀔 때마다 죽음이었다. 그게 무서운 일이었는가? 이제 할아버지 슬하에서 산 삶으로, 그다음 어머니 슬하의 삶으로, 그다음 아버지 슬하의 삶으로 넘어가 보라. 그 밖에도 무너지고 바뀌고 끝난 일을 슬하에 찾아내거든,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그게 무서운 일이었는가? 그러니 네 삶 전체가 끝나고 멈추고 바뀌는 것도 무서운 일이 아니다.

22 네 지도 이성으로, 전체의 지도 이성으로, 이 사람의 지도 이성으로 달려가라. 네 것으로는 그것을 정의로운 정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체의 것으로는 네가 무엇의 일부인지 함께 떠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것으로는 그가 모르고 한 짓인지 뜻을 품고 한 짓인지 살피는 동시에 그 지도 이성이 네 것과 한 핏줄임을 헤아리기 위해서다.

23 너 자신이 시민들이 이룬 짜임을 채우는 한 부분이듯, 네 모든 행위도 시민다운 삶을 채우는 한 부분이 되게 하라. 가깝게든 멀게든 공동체의 목적과 이어져 있지 않은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네 삶을 찢어 하나로 있지 못하게 하고 내분을 일으킨다. 민회에서 저 혼자 그런 화합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와 같다.

24 아이들의 성질부림과 장난, 그리고 "송장을 짊어진 가냘픈 숨들".³ 그러니 혼백들이 떠도는 저승 대목⁴이 한결 생생하게 와닿는다.

25 원인의 성질로 나아가라. 그것을 질료적인 것에서 떼어 윤곽을 그린 다음 들여다보라. 그다음에는 이 고유한 성질을 띤 것(idiōs

poion)이 본디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그 한계도 정해 보라.

26 네 지도 이성이 본디 지어진 대로 제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탓에, 너는 술한 고생을 견뎌 왔다. 그러나 이제 그만.

27 누가 너를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떠들어 대거든, 그들의 작은 영혼에게로 가라.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자들인지 보라. 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네가 애쓸 까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그들에게 선의를 품어야 한다. 본성상 벗어나기 때문이다. 신들도 꿈으로, 신탁으로, 온갖 길로 그들을 돕는다. 다만 그것도 그들이 매달리는 일들을 위해서다.

28 우주의 순환은 늘 같다. 위로 아래로, 영겁에서 영겁으로 돈다. 전체의 마음은 하나하나를 향해 그때그때 움직이거나(그렇다면 그 마음이 움직여 낸 것을 받아들여라), 단 한 번 움직였고 나머지는 그 결과로 뒤따를 뿐이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애를 태우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원자이거나 나뉠 수 없는 것들이다.⁵ 요컨대 신이라면 모든 것이 잘되어 있고, 되는대로라면 너만은 되는대로 하지 마라. 머지않아 흠이 우리 모두를 덮을 것이다. 그다음에는 흠도 바뀌고, 바뀐 것도 끝없이 바뀌며, 그것이 또 끝없이 바뀔 것이다. 물결 위에 물결이 덮치듯 이어지는 변화와 변이, 그리고 그 빠르기를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 없어질 모든 것을 깔보게 될 것이다.

29 전체의 실체는 겨울 급류와 같아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간다. 정치에 바쁘고, 제 판에는 철학자답게 일을 처리한다고 믿는 이 하찮은 인간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콧물투성이들이다. 사람아, 그래서 어찌자는 말이나? 자연이 지금 요구하는 일을 하라. 기회가 주어지면 나서고, 누가 알아줄지 두리번거리지 마라. 플라톤의 《국가》를 바라지 말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리고 그 결과마저 대단찮은 일로 여겨라. 그들의 원칙을 누가 바꾸겠는가? 원칙이 바뀌지 않는다면, 신음하면서 따르는 시늉만 하는 자들의 노예살이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자, 이제 알렉산드로스와 필리포스와 팔레론의 데메트리오스⁶ 이야기를 내게 해 보라. 그들이 공통의 자연이 무엇을 바랐는지 알아보고 그에 맞게 스스로를 단련했는지는 그들 자신이 알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비극 배우처럼 굴었다면, 아무도 나에게 그들을 흉내 내라고 판결하지 않았다. 철학이 하는 일은 단순하고 엄치 있다. 나를 잔치하는 허영 쪽으로 끌고 가지 마라.

30 높은 데서 내려다보라. 수많은 무리와 수많은 제의를, 폭풍 속에서도 고요 속에서도 이어지는 온갖 항해를, 태어나고 함께 살고 사라지는 것들의 온갖 차이를. 또 오래전 다른 이들이 살았던 삶과, 네 뒤에 살아갈 삶과, 지금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을 떠올려 보라. 네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곧 잊어버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어찌면 너를 칭찬하다가도 머지않아 혈뜬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라. 그리고 기억도 명성도, 그 밖의 무엇도, 다 합쳐 보아야 말할 거리가 못 된다는 것을.

31 바깥 원인에서 오는 일에는 평정(ataraxia)을, 네게서 비롯한 원인으로 하는 일에는 정의를. 곧 충동과 행위가 공동체를 위해 행하는 데서 끝맺게 하라. 그것이 네 본성에 맞기 때문이다.

32 너를 성가시게 하는 것들 가운데 쓸데없는 많은 것은 건어 낼 수 있다. 모두 네 판단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곧 너 자신에게 널찍한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우주 전체를 생각으로 끌어안고, 끝없는 영원을 헤아리고, 개별 사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곰곰이 생각하면 된다. 태어나서 해체되기까지는 얼마나 짧고, 태어나기 전은 얼마나 아득하며, 해체된 뒤도 똑같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33 네가 보는 모든 것은 곧 사라질 것이고,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도 곧 사라질 것이며, 아주 늙어서 죽은 사람도 일찍 죽은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34 이들의 지도 이성은 어떤 것인가, 무엇에 열을 올리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고 떠받드는가. 그들의 작은 영혼을 벌거벗겨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라. 혈뜬어서 해를 끼치고 치켜세워서 이익을 준다고 그들이 믿을 때, 그 자만이 얼마나 대단한가.

35 잃는다는 것은 바뀐다는 것일 뿐이다. 우주의 본성은 바로 이것을 기뻐한다. 우주의 본성에 따라 모든 것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영원 전부터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끝없이 그와 같은 다른 것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는 무슨 말을 하는가? 모든 것이 나쁘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는 늘 나쁠 것이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이것을 바로잡을 힘은 끝내 하나도 찾지 못했고, 우주는 그칠 줄 모르는 악에 매여 있도록 선고받았다는 말인가?

36 저마다의 밑에 깔린 질료는 썩은 것이다. 물, 먼지, 뼈다귀, 때. 아니면 이렇다. 대리석은 흙의 굳은살이고, 금과 은은 양금이며, 옷은 털 부스러기, 자줏빛 물감은 피다. 그 밖의 모든 것이 이와 같다. 가냘픈 숨도 그런 것이어서, 이것들에서 저것들로 바뀌어 간다.

37 이 비참한 삶도, 투덜거림도, 원숭이 흉내도 이제 그만. 무엇에 동요하는가? 이 가운데 새로운 게 무엇인가? 무엇이 너를 낫 나가게 하는가? 원인인가? 들여다보라. 질료인가? 들여다보라. 이 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제는 신들을 대할 때도 좀 더 단순하고 선해져라. 이런 것들을 백 년 동안 보든 삼 년 동안 보든 매한가지다.

38 그가 잘못했다면, 악은 거기에 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잘못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39 모든 것은 하나의 지성적인 원천에서 나와 한 몸에서처럼 일어나거나, 원자들뿐이어서 뒤섞였다 흩어질 따름이거나 둘 중 하나다. 앞의 것이라면 부분은 전체를 위해 일어나는 일을 탓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동요하는가? 너는 네 지도 이성에게 "너는 죽었다, 썩었다, 짐승이 되었다, 연기를 한다, 가축 떼에 섞여 풀이나 뜯는다" 하고 말하겠느냐?

40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거나 둘 중 하나다. 할 수 없다면 왜 기도하는가?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게 해 달라거나 오게 해 달라고 빌기보다, 이런 것들 가운데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도 탐하지 않으며 무엇에도 괴로워하지 않게 해 달라고 왜 빌지 않는가? 신들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이런 일에서도 분명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신들은 그런 것을 내게 달린 일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다면 네게 달린 것을 자유롭게 쓰는 편이, 네게 달리지 않은 것을 두고 노예처럼 비굴하게 안달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또 우리에게 달린 일에서는 신들이 거들지 않는다고 누가 네게 말하던가? 어쨌든 이런 것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와 잘 수 있을까" 하고 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저 여자와 자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고 빌어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자를 떨쳐 낼까" 하고 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저자를 떨쳐 낼 필요를 느끼지 않을까" 하고 빌어라.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잃지 않을까" 하고 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고 빌어라. 한마디로 기도를 이렇게 돌려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41 에피쿠로스는 말한다.⁷ "병들었을 때 나는 이 몸뚱이가 겪는 고통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연에 관해 전부터 다루던 으뜸가는 문제들을 계속

탐구했고, 특히 마음은 살덩이 속의 그런 움직임들 함께 겪으면서도 어떻게 동요하지 않고 제 고유한 선을 지키는가 하는 이 한 가지에 매달렸다." 그는 또 말한다. "의사들에게도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듯 으스스할 빌미를 주지 않았고, 내 삶은 잘, 그리고 훌륭하게 흘러갔다." 그러니 병이 들면 병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곤경 속에서도 그가 한 대로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 철학에서 떠나지 않는 것, 자연을 모르는 문외한과 어울려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않는 것은 어느 학파에서나 공통된 원칙이다. 오직 지금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데 쓰는 도구에만 마음을 둘 것.

42 누군가의 뻔뻔함에 비위가 상하거든 곧바로 스스로에게 물어라. 세상에 뻔뻔한 자들이 없을 수 있는가? 없을 수 없다. 그러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마라. 이 사람도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뻔뻔한 자들 가운데 하나다. 교활한 자, 믿을 수 없는 자, 무슨 잘못이든 저지르는 자를 만날 때도 같은 생각을 늘 손 닿는 곳에 두어라. 그런 부류의 사람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떠올리는 순간, 너는 그들 하나하나에게 더 너그러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곧바로 떠올리면 쓸모가 있다. 자연은 이 잘못에 맞서라고 사람에게 어떤 덕을 주었는가? 자연은 몰인정한 자에게 맞설 해독제로 온화함을 주었고, 다른 자에게 맞설 다른 힘도 주었다. 무엇보다 너는 길을 잃은 자를 가르쳐 바로잡을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제 과녁을 빗나가 길을 잃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무슨 해를 입었는가? 네가 화를 내는 이들 가운데 네 마음을 더 나쁘게 만들 만한 짓을 한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너에게 나쁜 것, 해로운 것은 온전히 바로 그 마음에 터를 두고 있다. 못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의 짓을 한다고 해서 새롭거나 이상한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줄 내다보지 못했으니, 오히려 너 자신을 탓해야 하지 않는지 살펴보라. 너에게는 이성에게서 얻은 밑천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법하다고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잊고서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놀라고 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믿을 수 없다거나 은혜를 모른다고 탓할 때는 너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라. 잘못은 뻔히 네게 있다. 그런 뉘뉘이를 지닌 자가 신의를 지키리라 믿었거나, 호의를 베풀면서 베푸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고 베푸는 행위 자체에서 곧바로 열매를 모두 거두었다고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잘해 주고서 무엇을 더 바라는가? 네 본성에 맞게 무언가를 했다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 대가까지 찾는가? 눈이 본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발이 걷는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꼴이다. 눈과 발은 저마다 할 일이 있어 생겼고, 제 본바탕대로 그 일을 하면 제 몫을 다 받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남에게 좋은 일을 하도록 태어났으니, 좋은 일을 하거나 그 밖에 선도 악도 아닌 것들에서 남을 거들었다면 그는 자기가 지어진 목적대로 한 것이고, 제 몫을 이미 받았다.

-
1. 우주의 본성을 가리킨다. 그리스어 physis(자연)가 여성 명사여서 여신이라 했다.
 2. 원문 탈문. 흔히 '영혼'을 보충해 '네 영혼이'로 읽는다.
 3. 에픽테토스의 말을 끌어 쓴 것이다. 4.41에서는 '숨' 대신 '작은 영혼'으로 인용했다.
 4.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제11권. 오디세우스가 죽은 자들의 혼을 불러내 만나는 대목으로, 흔히 '네키아'라 부른다.
 5. 이 대목은 원문이 손상되어 뜻이 분명하지 않다.
 6. 기원전 4세기 말의 아테네 정치가이자 철학자. 마케도니아의 후원을 받아 십 년 동안 아테네를 다스렸다.
 7. 에피쿠로스의 편지에서 따온 것으로 전하는 말이다.

제10권

1 영혼아, 너는 언젠가 선하고 단순하고 하나이며 벌거벗은 모습이 되어, 너를 둘러싼 몸보다 더 또렷이 드러나게 될까? 언젠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맛보게 될까? 언젠가 가득 차서 아쉬울 것이 없고, 쾌락을 누리려고 살아 있는 것이든 살아 있지 않은 것이든 무엇 하나 그리워하거나 탐내지 않게 될까? 더 오래 누릴 시간도, 장소나 고장이나 좋은 날씨도, 마음 맞는 사람들도 바라지 않게 될까? 그 대신 지금 처지에 만족하고 지금 곁에 있는 모든 것을 기뻐하며,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하게 될까? 모든 것은 신들에게서 와서 네 곁에 있고, 모든 것이 너에게 좋으며 앞으로도 좋으리라고. 신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완전한 생명체를 지키려고 신들이 앞으로 내줄 것은 모두 그러하리라고. 그 생명체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며, 모든 것을 낳고 한데 묶고 감싸 안으며, 해체되는 것들을 끌어안아 그와 비슷한 다른 것들이 생겨나게 한다. 너는 언젠가 신들과 사람들과 한 도시의 시민으로 어울려 살면서, 그들을 조금도 탓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비난도 받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될까?

2 자연의 다스림만 받는 존재로서 네 본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피라. 그런 다음 그것을 행하고 받아들여라. 다만 동물로서 네 본성이 그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라. 다음에는 동물로서 네 본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피고, 그것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이성적 동물로서 네 본성이 그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성적인 것은 곧 시민다운 것이기도 하다. 이 잣대들을 쓰되, 그 밖의 일에 쓸데없이 매달리지 마라.

3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네가 본디 견딜 수 있게 일어나거나, 견딜 수 없게 일어나거나 둘 중 하나다. 네가 본디 견딜 수 있게 일어난다면 언짢아하지 말고, 타고난 대로 견뎌라. 견딜 수 없게 일어난다면 그래도 언짢아하지 마라. 그 일은 너를 다 써 버리고 나면 저도 사라질 것이다. 다만 기억하라. 네 판단에 달린 것이라면, 곧 그렇게 하는 것이 네게 이롭다거나 네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여김으로써 견딜 만하고 참을 만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너는 무엇이든 본디 견딜 수 있다.

4 그가 실수하거든 너그럽게 가르치고, 놓친 것을 보여 주어라. 그럴 수 없다면 너 자신을 탓하라. 아니, 너 자신조차 탓하지 마라.

5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영원 전부터 너를 위해 미리 마련되어 있었다. 원인들의 얽힘이 영원 전부터 네 존재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자아 왔다.

6 원자들이거나 자연이거나, 먼저 이것을 확고히 해 두자. 나는 자연이 다스리는 전체의 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나는 나와 같은 종류인 부분들과 한 집안처럼 얼마간 맺어져 있다. 이것들을 기억하는 한, 나는 부분인 만큼 전체가 나눠 주는 어떤 것에도 불만을 품지 않을 것이다. 전체에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 부분에게 해롭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는 자기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품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본성에 공통된 점이지만, 우주의 본성은 여기에 더해 어떤 바깥 원인에게도 강요당해 제게 해로운 것을 낳는 일이 없다. 그러니 내가 이런 전체의 부분임을 기억하는 한 나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고, 나와 같은 종류인 부분들과 맺어져 있는 한 공동체를 거스르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같은 종류인 것들을 헤아리고, 내 모든 충동을 모두에게 이로운 쪽으로 이끌며 그 반대쪽에서는 거두어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삶은 순조롭게 흐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며 나아가고 도시가 나눠 주는 것은 무엇이든 반기는 시민의 삶이 순조롭게 흐르리라고 네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

7 전체의 부분들, 곧 우주가 본디 품고 있는 모든 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소멸이란 변한다는 뜻으로 해 두자. 이것이 부분들에게 본디 나쁜 일이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분들이 변화를 향해 가고 저마다 다르게 소멸하도록 지어져 있는 터에 전체가 훌륭하게 굴러갈 리 없다. 자연이 몸소 제 부분들을 해치려고, 그것들을 악에 쉽게 빠지고 어쩔 수 없이 악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작정했겠는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이 몰랐겠는가? 둘 다 믿기 어렵다. 누가 자연이라는 말을 아예 빼고 이것들이 본디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설명한다 해도 우습기는 마찬가지다. 전체의 부분들이 본디 바뀌게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연에 어긋나는 무슨 일이 벌어진 듯 놀라거나 언짢아하니 말이다. 더구나 해체는 저마다를 이루고 있던 바로 그것들로 돌아가는 일이다. 해체란 무언가를 이루었던 원소들이 흩어지는 일이거나, 단단한 것은 흙 같은 것으로, 숨 같은 것은 공기 같은 것으로 바뀌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들도 전체의 이성 속으로 다시 거두어진다. 그 전체가 주기마다 불에 타 버리든, 영원한 교체로 새로워지든 마찬가지다. 단단한 것도 숨 같은 것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녀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언제나 그제 먹은 음식과 들이마신 공기에서 흘러든 것이다. 그러니 바뀌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지, 네 어머니가 낳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를 저 고유한 성질을 띤 것(idiōs poion)에 아주 단단히 엮어 놓는다고 해 보자. 내 생각에 그 고유한 성질은 지금 하는 이야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

8 선한 사람, 염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마음이 깨어 있는(emphrōn) 사람, 마음을 함께하는(symphrōn) 사람, 마음이 드높은(hyperphrōn) 사람.¹ 스스로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거든,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이름들을 잃더라도 서둘러 되찾아라. 기억하라. '마음이 깨어 있다'는 말은 하나하나를 가려 살피는 주의력과 무엇 하나 건성으로 넘기지 않는 태도를 뜻했다. '마음을 함께한다'는 말은 공통의 자연이 나눠 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뜻했다. '마음이 드높다'는 말은 생각하는 부분이 살의 부드러움이나 거친 움직임 위로, 하찮은 명성과 죽음과 그 밖의 그런 것들 위로 높이 솟는 것을 뜻했다.

남들이 너를 그런 이름으로 불러 주기를 탐내지 않고 이 이름들 안에 너를 지켜 낸다면, 너는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삶으로 들어설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머물면서 이런 삶 속에서 찢기고 더럽혀지는 것은 지독하게 무디고 목숨에 연연하는 자나 할 짓이다. 맹수와 싸우는 투사들 가운데 반쯤 뜯어먹힌 채 상처와 핏덩이로 범벅이 되고서도, 그 몰골 그대로 내일 똑같은 발톱과 이빨 앞에 다시 내던져질 텐데도 하루만 더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이 몇 안 되는 이름을 배 삼아 올라타라. 거기 머물 수 있다면, 축복받은 자들의 섬²으로 옮겨 가 사는 사람처럼 머물러라. 그러나 미끄러져 떨어지고 붙들지 못한다고 느끼거든, 네가 버텨 낼 수 있는 어느 구석으로 담대하게 물러나라. 아니면 아예 삶에서 걸어 나가라. 성내지 말고, 단순하고 자유롭고 염치 있게. 삶에서 적어도 이 한 가지, 그렇게 떠나는 일만은 해낸 사람으로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는 데는 신들을 기억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신들은 아침받기를 바라지 않으며, 이성적인 존재는 모두 자기들을

닭기를,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일을, 개는 개의 일을, 벌은 벌의 일을,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기억하라.

9 광대극, 전쟁, 허둥댐, 무기력, 굴종. 이것들이 날마다 네 성스러운 원칙들을 지워 버릴 것이다. 자연을 탐구하지 않은 채 떠올렸다가 흘려보내는 원칙이라면 모두. 모든 것을 보고 행할 때는 실천하는 힘이 완성되는 동시에 관조하는 힘도 일하게 하고, 하나하나를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은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숨기지도 않고 지켜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제 단순함을 누리겠는가? 언제 진중함을 누리겠는가? 언제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아보는 즐거움을 누리겠는가? 그것이 실제로는 무엇이며, 우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본디 얼마나 오래 버티게 되어 있으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누구에게 속할 수 있으며, 누가 그것을 주고 빼앗을 수 있는지를.

10 거미는 파리 한 마리를 잡고 우쭐한다. 어떤 사람은 토끼 새끼를, 어떤 사람은 그물로 잔고기를, 어떤 사람은 멧돼지 새끼를, 어떤 사람은 꿈을, 어떤 사람은 샤르마티아인³을 잡고 우쭐한다. 원칙을 따져 보면 이들은 다 강도가 아닌가?

11 모든 것이 어떻게 서로 바뀌어 가는지 관조하는 방법을 익히고, 늘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 분야에서 꾸준히 단련하라. 이만큼 도량을 키워 주는 것은 없다. 그런 사람은 몸을 벗어 던졌다. 머지않아 사람들 곁을 떠나며 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정의에, 그 밖에 일어나는 일에서는 우주의 본성에 자신을 온통 내맡겼다. 누가 자기를 두고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거나 자기에게 맞서 무슨 짓을 하든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지금 하는 일을 올바르게 하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온갖 분주함과 열성을 내려놓았고, 법을 따라

곧은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곧은 길을 가는 신을 따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12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볼 수 있는데 넘겨짚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흰히 보이면 흔쾌히,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로 가라. 보이지 않으면 멈추고 가장 좋은 조언자들에게 물어라. 다른 무엇이 이를 가로막으면, 정의로워 보이는 것을 붙든 채 지금 주어진 형편에 따라 따져 가며 나아가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 실패란 결국 거기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서 이성을 따르는 사람은 느긋하면서도 재빠르고, 밝으면서도 침착하다.

13 잠에서 깨자마자 스스로에게 물어라. 정의롭고 훌륭한 일을 남이 비난한다고 해서 너에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무 차이도 없다. 남을 칭찬하고 혈뜬으며 거들먹거리는 이 사람들이 잠자리에서는 어떤 자들이고 밥상머리에서는 어떤 자들인지, 무슨 짓을 하고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좇으며 무엇을 흠치고 무엇을 빼앗는지 잊었는가? 그것도 손발로가 아니라 자기 안의 가장 귀한 부분으로 그런다는 것을. 그 부분은 마음만 먹으면 신의가 되고, 염치가 되고, 진실과 법과 선한 신령이 되는데도 말이다.

14 배우고 염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고 도로 거두는 자연에게 말한다. "주고 싶은 것을 주어라. 거두고 싶은 것을 거두어 가라." 그는 이 말을 허세 부리며 하지 않는다. 그저 순순히 따르며 자연에게 선의를 품고 할 뿐이다.

15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산속에 있는 듯 살아라. 우주를 한 도시로 여기며 어디서나 그렇게 산다면, 거기서 살든 여기서 살든 아무 차이가 없다. 사람들이 보게 하라. 본성에 맞게 사는 참된 사람을 그들이 지켜보게 하라. 견딜 수 없다면 그들이 그를 죽이게 하라. 그렇게 사느니 그 편이 낫다.

16 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두고 더는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어라.

17 영원 전체와 실체 전체를 끊임없이 마음에 그려라. 그리고 개별적인 것은 모두 실체에 건주면 무화과 씨 한 알이고, 시간에 건주면 송곳 한 바퀴라는 것도.

18 눈앞의 것 하나하나에 눈길을 멈추고, 그것이 벌써 해체되며 변하고 있다고, 말하자면 썩거나 흩어지고 있다고, 아니면 저마다 본디 정해진 대로 죽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라.

19 먹고 자고 짹짹 똥 누고 그 밖의 일을 할 때 그들은 어떤 꼴인가? 그다음 주인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리거나, 성을 내며 높은 데서 호통칠 때는 어떤 꼴인가? 조금 전만 해도 그들은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종노릇을 했던가. 그리고 조금 뒤면 또 그런 처지에 놓일 것이다.

20 우주의 본성이 저마다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저마다에게 이롭다. 그것도 우주의 본성이 가져다주는 바로 그때 이롭다.

21 "땅은 비를 사랑하고, 장엄한 하늘도 사랑한다."⁴ 그리고 우주는 장차 일어날 일을 이루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우주에게 말한다. 나도 너와 함께 사랑한다고. "이런 일은 일어나기를 사랑한다(philei)"는 말도 바로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⁵

22 너는 여기서 살며 이미 익숙해졌거나, 바깥으로 떠나며 그것이 네가 바라던 바이거나, 죽으며 네 소임을 다 마쳤거나, 셋 중 하나다.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기운을 내라.

23 이것을 늘 또렷이 보라. 시골이라는 것도 결국 이와 같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산꼭대기나 바닷가나 네가 원하는 어디에 있는 것과 똑같다. 플라톤의 말을 그대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말한다. "산속에 우리를 둘러치고, 우는 양 떼의 젖을搾다."⁶

24 내 지도 이성(hēgemonikon)은 내게 무엇인가? 나는 지금 그것을 어떤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무엇에 쓰고 있는가? 정신이 텅 비어 있지는 않은가? 공동체에서 풀려나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는가? 이 살덩이에 녹아 붙고 뒤섞여서 살덩이와 함께 이리저리 쏠리지는 않은가?

25 주인에게서 달아나는 자는 도망 노예다. 법이 주인이니, 법을 어기는 자도 도망 노예다. 그런데 괴로워하거나 성내거나 두려워하는 자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정해 둔 일 가운데 무언가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나리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곧 법(nomos)이며, 저마다에게 돌아갈 몫을 나누어 준다(nemōn).⁷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성내는 자는 도망 노예다.

26 사람은 씨를 자궁에 떨어두고 물러난다. 그 뒤로는 다른 원인이 넘겨받아 일하고 아기를 빚어낸다. 무엇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또 사람은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긴다. 그 뒤로는 다른 원인이 넘겨받아 감각과 충동을, 요컨대 생명과 힘과 그 밖의 것들(얼마나 많고, 또 어떤 것들인가!)을 만든다. 이렇게 감추어진 채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그 힘을 보라. 무게로 끌어내리는 힘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보듯이, 눈으로는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또렷이.

27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에도 이와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라.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나리라는 것도 생각하라. 네가 몸소 겪었거나 옛 역사에서 알게 된 같은 모양의 연극과 무대를 통째로, 이를테면 하드리아누스의 궁정 전체와 안토니누스의 궁정 전체,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스와 크로이소스의 궁정 전체를 눈앞에 떠올려 보라. 그것들은 모두 지금과 같았고, 다만 다른 사람들이 연기했을 뿐이다.

28 무슨 일에도 괴로워하거나 언짢아하는 사람은 모두 제물로 바쳐지며 발버둥 치고 껍뻑대는 새끼 돼지와 같다고 생각하라. 침상에서 홀로 말없이 신음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우리가 묶여 있는 처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일어나는 일을 기꺼이 따르는 것은 이성적 동물에게만 주어졌고, 그저 따르는 것은 모두에게 필연이라는 것을.

29 네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을 못 하게 된다고 해서 죽음이 무서운 것인가?

30 누군가의 잘못에 비위가 상하거든 곧바로 눈을 돌려 너도 그와 비슷한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따져 보라. 이를테면 돈이나 쾌락이나 하찮은 명성 따위를, 종류야 어떻든 선이라고 판단하는 잘못 말이다. 여기에 마음을 쏟으면 금세 노여움을 잊을 것이다.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함께 떠오를 테니까. 그가 달리 무엇을 하겠는가? 아니면, 할 수 있다면 그를 내모는 것을 그에게서 떼어 내 주어라.

31 사티리온을 보거든 소크라티코스나 에우티케스나 히멘을 떠올려라. 에우프라테스를 보거든 에우티키온이나 실바누스를, 알키프론을 보거든 트로파이오포로스를, 세베루스를 보거든 크리톤이나 크세노폰을 떠올려라.⁸ 너 자신을 들여다보거든 황제들 가운데 누군가를 떠올려라. 누구를 보든 그에 맞먹는 사람을 떠올려라. 그런 다음 이런 생각이 함께 들게 하라.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에도 없다. 아니면 어딘지 모를 곳에 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의 일이 연기이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끊임없이 보일 것이다. 한번 바뀐 것은 끝없는 시간 속에서 다시는 있지 않으리라는 것까지 함께 떠올린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애를 태우는가? 이 짧은 시간을 단정하게 건너가는 것으로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너는 얼마나 좋은 질료와 과제를 피해 다니는가!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들을 정확하게, 자연을

탐구하는 눈으로 꿰뚫어 본 이성이 단련할 거리 말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 이것들까지 네 것으로 만들 때까지 버텨라. 튼튼한 위가 무엇이든 제 것으로 삭이고, 활활 타는 불이 무엇을 던져 넣든 거기서 불꽃과 빛을 일으키듯이.

32 누구도 너를 두고 단순하지 않다거나 선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말이 참이 되게 하지 마라. 너를 두고 그런 생각을 품는 자는 누구든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모두 네게 달려 있다. 네가 선하고 단순한 사람이 되는 것을 누가 막겠는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바에야 더는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성도 네가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33 주어진 이 질료를 두고 가장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너는 그것을 하거나 말할 수 있다. 무엇에 가로막혔다는 핑계를 대지 마라. 쾌락을 좇는 자들에게 사치가 즐거움이듯, 네 앞에 놓고 네 손에 떨어지는 질료를 두고 사람의 본바탕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너에게 즐거움이 되기 전에는, 너는 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기 본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즐거움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원통에게는 어디서나 제 움직임대로 굴러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물도, 불도, 자연이나 이성 없는 영혼이 다스리는 그 밖의 것들도 마찬가지다. 가로막고 버티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과 이성은 맞서 오는 모든 것을 뚫고 본디 생긴 대로, 또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

불이 위로, 돌이 아래로, 원통이 비탈 아래로 가듯 이성이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는 이 수월함을 눈앞에 두고, 더는 아무것도 찾지 마라. 그 밖의 걸림돌은 송장 같은 이 몸뚱이에만 닿는다. 아니면, 판단이

끼어들어 이성이 스스로 굽히지만 않으면, 무엇 하나 부수지도 못하고 조금도 해를 끼치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을 겪는 사람 자신이 곧바로 나빠졌을 것이다. 다른 모든 지어진 것들은 무엇이든 나쁜 일을 당하면 그 때문에 당한 것 자체가 더 나빠지지만,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닥쳐오는 일을 올바르게 쓸 때 오히려 더 나아지고 더 칭찬받을 만해진다. 한마디로 기억하라. 본디 시민인 자에게는 도시를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도 해가 되지 않고, 법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도시도 해치지 않는다. 그런데 불운이라 불리는 이런 것들 가운데 법을 해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법을 해치지 않는 것은 도시도 시민도 해치지 않는다.

34 참된 원칙에 흠뻑 젖은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말, 누구나 아는 흔한 말 한마디로도 괴로움과 두려움을 떨치라는 일깨움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를테면 이런 구절이다. "얕은 바람이 땅 위에 흩뿌리니 / 사람의 세대도 그와 같다."⁹ 네 어린 자식들도 있새다. 그럴듯하게 환호하고 칭송하는 자들도, 반대로 저주를 퍼붓거나 뒤에서 조용히 헐뜯고 비웃는 자들도 있새다. 죽은 뒤의 명성을 이어받을 자들도 똑같이 있새다. 이것들은 모두 "봄철이 오면 돌아난다." 그러다 바람이 떨구고, 숲은 그 자리에 다른 잎을 틔운다. 짧게 사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이다. 그런데 너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피하고 쫓는다. 조금 있으면 너도 눈을 감을 것이고, 너를 무덤까지 메고 간 사람을 곧 다른 누군가가 애도할 것이다.

35 건강한 눈은 보이는 것을 모두 보아야 하고, "푸른 것만 보고 싶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눈병 난 눈이 하는 소리다. 건강한 귀와 코도 들리는 것, 냄새 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한 위는 맷돌이 갈도록 만들어진 모든 것을 대하듯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 그러니 건강한

마음도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 아이들이 무사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든 모두가 칭찬하기를" 하고 말하는 마음은 푸른 것만 찾는 눈이요, 부드러운 것만 찾는 이빨이다.

36 아무리 복 받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을 때 곁에 서서 닥쳐오는 불행을 반기는 자가 몇은 있기 마련이다. 그가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하자.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혼잣말하는 자가 하나쯤 있지 않겠는가? "이 혼장 양반한테서 벗어나 이제 좀 숨을 돌려 볼까? 우리 누구에게도 모질게 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우리를 나무라고 있다는 걸 나는 느꼈거든." 훌륭한 사람의 경우에도 이렇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우리를 떨쳐 버리고 싶어 할 사람이 많을 만한 까닭이 그 밖에도 얼마나 많겠는가. 죽을 때 이것을 생각하면 너는 더 흥가분하게 떠날 것이다. 이렇게 헤아리면서. "나는 이런 삶을 떠난다. 내가 그토록 애쓰고 빌고 마음 썼던 동료들, 바로 그들이 어찌면 그 덕에 무슨 다른 편안함이라도 얻을까 바라며 내가 떠나기를 바라는 삶을." 그런데 누가 여기 더 오래 머무르려고 매달리겠는가? 그렇다고 그들에게 덜 너그러운 마음으로 떠나지는 마라. 네 본래의 성품을 지키며 다정하고 호의적이고 온화하게 떠나라. 또 억지로 끌려 나가듯 떠나지도 마라. 편안히 죽는 사람의 작은 영혼이 몸에서 수월하게 빠져나오듯,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도 그래야 한다. 자연이 너를 그들과 이어 붙이고 한데 엮었으나, 이제는 풀어 준다. 나는 가까운 이들에게서 떠나는 셈이지만, 뒤로 끌려가며 버티지 않고 억지 없이 풀려난다. 이것 역시 자연에 따른 일 가운데 하나다.

37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될 수 있는 대로 속으로 이렇게 묻는 버릇을 들여라. "이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이 일을 하는가?" 그러나 너 자신부터 시작하라. 너 자신을 먼저 따져 보라.

38 기억하라. 줄을 당겨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것은 저 안에 숨은 것이다. 그것이 말하는 힘이고, 그것이 생명이며,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것이 사람이다. 그것을 마음에 그릴 때 그 둘레를 감싼 그릇 같은 몸과 거기 빚어 붙인 이 자잘한 기관들까지 함께 그리지 마라. 그것들은 자귀와 다를 바 없고, 몸에 붙어 자란다는 점만 다르다. 이 부분들을 움직이고 멈추게 하는 원인이 없다면, 그것들은 베 짜는 여인 없는 북, 글 쓰는 이 없는 갈대 펜, 마부 없는 채찍보다 조금도 더 쓸모 있지 않다.

-
1. 세 낱말은 모두 '마음'을 뜻하는 phrēn에 '안에(en-)', '함께(syn-)', '위에(hyper-)'를 붙여 만든 말이다.
 2.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아끼는 영웅들이 죽은 뒤 옮겨 가 산다는 세상 끝의 섬.
 3. 도나우강 너머에 살던 유목 민족. 마르쿠스는 170년대에 이들과 전쟁을 치렀다.
 4. 에우리피데스의 단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8.1에도 인용된다.
 5. 그리스어 philei는 '사랑한다'는 뜻과 함께 '흔히 ~한다'는 뜻으로도 쓴다. '흔히 일어난다'는 관용 표현을 글자 그대로 '일어나기를 사랑한다'로 읽은 말놀이이다.
 6. 플라톤 《테아이테토스》 174d~e. 성벽 안에 갇혀 사는 통치자를 산속 우리에서 가축을 치는 목자에 빗댄 대목이다.
 7. 법(nomos)과 '나누어 준다(nemein)'를 엮은 말놀이.
 8. 에우프라테스는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활동한 스토아 철학자다. 세베루스는 1.14의 세베루스로 보는 견해가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9. 호메로스 《일리아스》 6.147~149. 뒤의 "봄철이 오면 돌아난다"도 같은 대목이다.

제11권

1 이성적 영혼의 고유한 특성. 영혼은 자기를 보고, 자기를 마디마디 나누어 살피고, 자기를 원하는 대로 빛는다. 제가 맺은 열매를 제가 거둔다(식물의 열매나 동물에게서 그에 견줄 만한 것은 남들이 거두어 간다). 삶의 끝이 어디서 닥치든 제 목적에 이른다. 춤이나 연극 같은 것은 무언가가 중간에 끊어 버리면 행위 전체가 미완으로 남지만, 영혼은 어느 대목에서 어디서 붙잡히든 제 앞에 놓인 일을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해 놓아서 "내 몫은 다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영혼은 온 우주와 그 둘레의 허공과 우주의 생김새를 두루 돌아보고, 끝없는 시간 속으로 뻗어 나가며, 만물이 주기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끌어안아 헤아린다. 그리고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이 더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우리 앞에 간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꿰뚫어 본다. 어떤 의미에서 마흔 살 먹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한 모양이니 지나간 일과 앞으로 올 일을 이미 다 본 셈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진실함과 염치, 그리고 무엇도 자기보다 귀히 여기지 않는 것 역시 이성적 영혼의 특성이다. 이것은 법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니 올바른 이성과 정의의 이성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2 흥겨운 노래도, 춤도, 판크라티온 경기도 우습게 보게 될 것이다. 가락 있는 소리를 음 하나하나로 쪼개어 놓고, 하나씩 "내가 이것에 졌는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면 된다. 낮이 뜨거워질 테니까. 춤도 동작

하나, 자세 하나마다 그렇게 해 보고, 판크라티온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덕과 덕에서 나온 것만 빼고는, 무엇이든 그 낱알의 부분으로 곧장 달려들어 그것을 쪼개 봄으로써 우습게 여기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같은 일을 삶 전체에도 해 보라.

3 지금 당장 몸에서 풀려나야 한다 해도, 그래서 꺼지든 흠어지든 그대로 남든 해야 한다 해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 그런 영혼은 얼마나 대단한가! 다만 이 준비는 그리스도교도처럼¹ 그저 맞서고 보자는 고집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에서 나와야 한다. 곰곰이 따져 본 끝에, 의연하게, 남도 수긍하게 할 만큼, 비극 배우처럼 요란 떨지 않고.

4 나는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이득을 보았다. 이 생각이 언제나 손 닿는 곳에 있다가 너를 맞이하게 하라. 그리고 어디서든 멈추지 마라.

5 네 기술은 무엇이나?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원리 없이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한편으로는 우주의 본성에 관한 원리,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고유한 본바탕에 관한 원리 말이다.

6 처음에 비극을 무대에 올린 것은, 사람들이 겪는 일을 떠올리게 하고, 그런 일은 본디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 무대 위에서 너희를 사로잡던 일들 때문에 더 큰 무대에서는 괴로워하지 말라고 일러 주기 위해서였다. 너희가 보다시피 그런 일은 그렇게 끝나야 하고, "아, 키타이론이여!"² 하고 울부짖는 사람들도 결국 그것을 견딘다. 극작가들은 쓸모 있는 말도 더러 한다. 특히 이런 말이다. "신들이 나와 내 두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면, / 그것에도 까닭이 있다." 또 "세상일에 대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문 이삭을 베듯 삶을 거두어야 한다."³ 그 밖에 이런 것들. 비극 다음에는 옛 희극이 들어왔다. 옛 희극은 스승처럼 거침없이 말하는 자유를 누렸고, 바로 그 직설로

허영을 부리지 말라고 일깨웠으니 쓸모가 없지 않았다. 디오게네스가 이런 것을 가져다 쓴 것도 비슷한 목적에서였다. 그 뒤의 중기 희극과, 조금씩 흥내 내는 숨씨를 뿜내는 쪽으로 흘러내려 간 마지막 신희극은 대체 무엇을 위해 받아들여졌는지 곰곰이 살펴보라. 이들도 쓸모 있는 말을 더러 한다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그런 시와 극작은 통틀어 대체 어떤 목표를 바라보았던 말인가?

7 철학을 하기에 지금 네가 놓인 이 삶의 처지만큼 알맞은 처지는 달리 없다. 이것이 얼마나 또렷하게 와닿는가.

8 옆 가지에서 잘려 나간 가지는 나무 전체에서도 잘려 나갈 수밖에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에게서 갈라져 나온 사람은 공동체 전체에서 떨어져 나간다. 가지는 남이 잘라 내지만, 사람은 이웃을 미워하고 등을 돌려 제 손으로 자기를 떼어 내면서도 그와 동시에 시민 공동체 전체에서 자기를 잘라 냈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도 공동체를 세운 제우스가 준 선물이 하나 있다. 우리는 옆 가지와 다시 붙어 자라 다시 전체를 채우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갈라섬이 자주 되풀이되면 떨어져 나간 쪽은 다시 하나 되기도,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접붙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처음부터 함께 돌아나 한 숨결로 붙어 지낸 가지는 잘려 나갔다가 다시 접붙인 가지와 같지 않다. 한 덩불에서 함께 자라라. 그러나 원칙까지 같이할 것은 없다.

9 네가 올바른 이성을 따라 나아갈 때 앞을 가로막는 자들이 너를 건전한 행동에서 돌려세우지 못하듯, 너를 그들을 향한 선의에서 밀어내지도 못하게 하라. 두 가지를 똑같이 지켜라. 굳건한 판단과 행동만이 아니라, 너를 막으려 들거나 달리 너를 못마땅해하는 자들을 대하는 온화함도. 겁에 질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물러서는 것이 나약하듯, 그들에게 성을 내는 것도 나약하다. 둘 다 똑같이 대열을 버린

병사다. 하나는 겁이 나서, 다른 하나는 본디 친족이자 벗인 사람을 남처럼 등져서.

10 "어떤 자연도 기술보다 못하지 않다." 기술은 자연을 흉내 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자연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많은 것을 아우르는 자연이 기술의 솜씨에 뒤질 리 없다. 그런데 모든 기술은 더 나은 것을 위해 더 못한 것을 만든다. 그러니 공통의 자연도 그렇다. 바로 여기서 정의가 생겨나고, 정의에서 나머지 덕들이 자리를 잡는다. 우리가 선도 악도 아닌 것에 매달리거나, 쉽게 속고 성급하고 변덕스럽다면 정의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11 쫓고 피하느라 너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너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네가 그것들에게 가는 것이라면, 그것들에 대한 판단만이라도 잠잠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들도 가만히 머물 것이고, 너도 쫓아가거나 달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12 영혼은 이럴 때 제 모양을 지킨 둥근 구가 된다. 무엇을 향해 뻗어 나가지도, 안으로 움츠러들지도, 흩어지지도, 주저앉지도 않고, 빛으로 환히 빛나 그 빛으로 만물의 진실과 제 안의 진실을 볼 때.

13 누가 나를 업신여길까? 그건 그가 볼 일이다. 내가 볼 일은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짓이나 말을 하다가 들키지 않는 것이다. 누가 나를 미워할까? 그건 그가 볼 일이다. 나는 누구에게나 선의와 호의를 품을 것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도 그가 놓친 것을 보여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꾸밈듯이 하지도, 내가 참아 주고 있다고 내세우듯이 하지도 않고, 저 포키온⁴처럼 진심으로, 착하게. 그가 그런 착한 것이 아니었다면 말이다. 속이 이래야 하고, 신들이 보기에든 무엇에도 분개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네가 지금 네 본성에 맞는 일을 하고 지금 우주의 본성에 때맞은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길로든 공동의

이익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몸을 뺏치고 서 있는 사람인 너에게 무슨 나쁜 일이 있겠는가?

14 서로 업신여기면서 서로 비위를 맞추고, 서로 위에 서려 하면서 서로 앞에 몸을 굽힌다.

15 "나는 너를 꾸밈없이 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가짜인가. 사람아, 무얼 하는 거냐? 그런 말은 미리 할 필요가 없다.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이마에 쓰여 있어야 한다. 목소리에서 곧바로 그렇게 울리고, 눈에서 곧바로 비쳐 나와야 한다. 사랑받는 이가 사랑하는 이들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알아채듯이. 단순하고 선한 사람은 한마디로 압내 나는 사람 같아야 한다. 곁에 다가선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가서자마자 알아챌 수 있도록. 꾸며 낸 단순함은 단검이다.⁵ 늑대의 우정보다 부끄러운 것은 없다. 무엇보다 이것을 피하라. 선하고 단순하고 선의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눈에 담겨 있어서 숨겨지지 않는다.

16 가장 훌륭하게 사는 힘은 영혼 안에 있다. 선도 악도 아닌 것 (adiaphora)을 선도 악도 아닌 것으로 대할 줄 알면 된다. 그렇게 대하려면 그것들 하나하나를 쪼개어 보고 또 통째로 보아야 하며,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자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안에 만들어 넣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가만히 있고,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낳아 이를테면 우리 안에 써 넣는 것은 우리 자신인데,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다 모르는 사이에 써 넣었다 해도 곧바로 지울 수 있다. 또 이렇게 마음을 써야 할 시간은 잠깐이고, 그 뒤엔 삶이 끝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달리 되어 있다 한들 무엇이 그리 어렵겠는가? 그것이 자연에 따른 것이면 기뻐하고 가볍게 여겨라. 자연에 어긋난 것이면 네 본성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그쪽으로 서둘러 가라. 명성이 따르지 않더라도. 자기의 선을 찾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받는다.

17 저마다 어디서 왔는가. 저마다 어떤 바탕으로 이루어졌는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바뀌고 나면 어떤 것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아무 나쁜 일도 겪지 않으리라는 것.

18 그리고 첫째. 나는 그들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또 다른 이치로 보면, 나는 숫양이 양 떼 앞에 서고 황소가 소 떼 앞에 서듯 그들 앞에 서도록 태어났다. 더 근본에서부터, 곧 '원자들이 아니라면 전체를 다스리는 자연'이라는 데서부터 짚어 가라. 자연이라면 못한 것은 나은 것을 위해 있고, 나은 것들은 서로를 위해 있다. 둘째. 그들이 식탁에서, 잠자리에서, 그 밖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무엇보다 그들이 세워 둔 원칙에 얼마나 꼼짝없이 매여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런 짓을 얼마나 허영에 차서 하는가.

셋째. 그들이 그런 짓을 옳게 한다면 언짢아할 까닭이 없다. 옳지 않게 한다면 분명 본의 아니게, 몰라서 하는 것이다. 어떤 영혼도 원해서 진리를 잃지 않듯이, 사람을 저마다 합당하게 대하는 능력도 원해서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하다, 배은망덕하다, 탐욕스럽다, 한마디로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자라는 말을 들으면 괴로워한다. 넷째. 너 자신도 잘못을 많이 저지르며, 너도 그들과 같은 부류다. 어떤 잘못은 삼간다 해도 그런 잘못으로 기우는 성향은 너에게도 있다. 비겁해서든, 평판이 신경 쓰여서든, 그 밖의 어떤 나쁜 까닭으로든 비슷한 잘못을 삼가고 있을 뿐이라 해도.

다섯째.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지조차 너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많은 일이 사정을 헤아려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남의 행동을 두고 확신을 갖고 무어라 말하려면 대체로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여섯째. 몹시 분개하거나 속이 상할 때면, 사람의 삶은 한순간이고 머지않아

우리는 모두 시신이 되어 늡는다는 것. 일곱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다. 그 행동은 그들의 지도 이성(hēgemonikon) 안에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니 그 판단을 걷어 내라. 끄찍한 일이라는 판단을 놓아 버리기로 마음먹어라. 그러면 화는 이미 떠나고 없다. 어떻게 걷어 내는가?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님을 헤아려서. 수치스러운 것만이 악이 아니라면, 너도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도둑이 되든 무엇이 되든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여덟째. 이런 일 때문에 품는 분노와 괴로움이, 우리가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그 일 자체보다 얼마나 더 혹독한 결과를 불러오는가. 아홉째. 선의는 꺾이지 않는다. 그것이 진짜이고 억지웃음이나 연기가 아니라면. 더없이 오만한 자라도, 네가 끝까지 그에게 선의를 품고 기회가 닿는 대로 부드럽게 타이르며 그가 너를 해치려 드는 바로 그때에 차분히 고쳐 가르친다면,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얘야, 그러지 마라. 우리는 다른 일을 하려고 태어났다. 나는 결코 해를 입지 않는다. 해를 입는 것은 너다, 얘야."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벌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고 무리 지어 살게 생겨난 어떤 짐승도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큰 이치에 비추어 보여 주어라. 비꼬거나 나무라듯이 해서는 안 된다. 다정하게, 마음에 가시 없이 해야 한다. 학교에서처럼 훈계하지도 말고, 곁에 선 누군가가 감탄하라고 하지도 마라. 다른 사람들이 둘러서 있더라도 오직 그 사람 하나에게 하라.

이 아홉 가지 머리를 무사 여신들에게서 받은 선물처럼 기억하라.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 이제라도 사람이 되기 시작하라.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 아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둘 다 공동체를 거스르고 해를 부른다. 화가 치밀 때는 이것을 손 닿는 곳에 두어라. 성을 내는 것은 사내다운 일이 아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더 사람다운 만큼 더 사내답기도 하며, 힘과 근력과 용기는 분개하고

투덜대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있다. 흔들림 없음(apatheia)에 가까울수록 힘에도 가깝기 때문이다. 괴로움이 약한 자의 것이듯 분노도 그렇다. 둘 다 상처를 입고 무릎을 꿇은 자들이다.

원한다면 무사 여신들을 이끄는 신에게서⁶ 열째 선물도 받아라. 못된 자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불가능한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남에게는 그렇게 굴도록 내버려 두면서 너에게만은 잘못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몰지각하고 폭군 같은 짓이다.

19 특히 지도 이성이 빗나가는 네 가지 길을 늘 지켜보다가, 잡아내는 대로 지워 버려야 한다. 하나하나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인상은 꼭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공동체를 허문다." "이것은 네 속에서 우러난 말이 아니다." 속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더없이 해괴한 일로 여겨라. 넷째는 네가 너 자신을 꾸짖어야 할 일로, 네 안의 더 신성한 부분이 덜 귀하고 죽게 마련인 뒀, 곧 몸과 몸의 거칠거나 매끄러운 움직임에 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20 네 안의 숨과 거기 섞여 든 불의 성분은 모두 본디 위로 오르려 하지만, 그래도 전체의 질서에 따라 여기 이 뭉쳐진 덩어리 속에 붙들려 있다. 네 안의 흙 성분과 물 성분도 모두 본디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만, 그래도 일으켜 세워져 제 본래 자리가 아닌 곳에 서 있다. 이처럼 원소들조차 어딘가에 억지로 배치되면 전체에 복종하여, 전체에서 다시 해체의 신호가 울릴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 그런데 네 지성적 부분만 말을 듣지 않고 제자리를 못마땅해한다면 끔찍하지 않은가? 게다가 그것에게는 억지로 시키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 본성에 맞는 일만 맡겨지는데도, 그것은 참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내닫는다. 불의와 방종으로,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으로 쏠리는 움직임은 자연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의 움직임일 뿐이다. 지도 이성은 정의 못지않게 거룩함과

신을 공경하는 일을 위해서도 지어졌으니, 일어난 일 가운데 무엇을 못마땅해할 때에도 지도 이성은 제자리를 버리는 셈이다. 이것들도 공동체를 잘 이루는 일의 한 갈래이며, 아니 오히려 정의로운 행위보다 앞선다.

21 "삶의 목표가 언제나 하나이고 같지 않은 사람은 평생 하나이고 같은 사람일 수 없다." 이 말만으로는 모자란다. 그 목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덧붙이지 않는다면. 대다수가 어떻게든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판단이 같지 않고 어떤 특정한 것들, 곧 공동의 것들에 대해서만 같듯이, 목표도 공동체적이고 시민다운 것으로 세워야 한다. 자기의 충동을 모두 이 목표로 곧게 향하게 하는 사람은 모든 행동을 한결같이 해낼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같은 사람일 것이다.

22 산골 쥐와 집쥐, 그리고 그 쥐가 겁에 질려 허둥대던 꼴.⁷

23 소크라테스는 못사람의 원칙도 라미아라고, 아이들 겁주는 귀신이라고 불렀다.

24 스파르타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있을 때 손님에게는 그들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자기들은 아무 데나 앉았다.

25 소크라테스는 페르디카스⁸에게 가지 않는 까닭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가장 비참한 파멸로 망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곧, 은혜를 입고도 갚지 못하는 처지가 되지 않으려고.

26 에피쿠로스학파⁹의 글에, 옛사람 가운데 덕을 실천한 누군가를 끊임없이 떠올리라는 가르침이 있었다.

27 피타고라스학파의 말. 새벽에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늘 같은 법칙을 따라 같은 모양으로 제 일을 해내는 것들을, 그리고 그것들의

질서와 맑음과 벌거벗음을 우리가 떠올리도록. 별에는 아무 가리개도 없다.

28 크산티페가 겹옷을 들고 나가 버려서 소크라테스가 양가죽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 차림을 보고 민망해서 물러서는 벗들에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

29 쓰고 읽는 일에서도 먼저 지도를 받아 보지 않고는 남을 지도할 수 없다. 삶에서는 더욱 그렇다.

30 "너는 종으로 태어났다. 네게는 말할 몫이 없다."

31 "내 가슴은 속으로 웃었다."¹⁰

32 "그들은 모진 말을 내뱉으며 덕을 탓하리라."¹¹

33 겨울에 무화과를 찾는 것은 미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더는 허락되지 않을 때 자식을 찾는 사람이 그렇다.

34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이에게 입을 맞출 때는 속으로 "내일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되뇌어야 한다고. "그건 불길한 말이다." "자연이 하는 어떤 일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불길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이삭을 베어 들인다는 말도 불길하겠지."

35 꽃포도, 익은 송이, 건포도. 모두 변화다.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없는 것으로.

36 의지를 흠치는 도둑은 없다. 에픽테토스의 말이다.

37 그는 말했다. "동의하는 데에는 기술을 찾아내야 하고, 충동의 영역에서는 주의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충동이 단서(hypexairesis)를 달고, 공동체를 향하고, 대상의 값어치에 맞게 일어나도록. 욕구는 아예 멀리하고, 기피는 우리에게 달리지 않은 것 어디에도 쓰지 말아야 한다."

38 "그러니 이 싸움은 하찮은 일을 두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했다. "미치느냐 마느냐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다."

39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희는 무엇을 바라느냐? 이성적인 존재의 영혼을 갖기를 바라느냐, 이성 없는 존재의 영혼을 갖기를 바라느냐?" "이성적인 존재의 영혼." "어떤 이성적인 존재 말이냐? 건전한 존재냐, 못된 존재냐?" "건전한 존재." "그러면 왜 그것을 찾지 않느냐?"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왜 싸우고 다투느냐?"

1. 이 책에서 그리스도교도가 나오는 유일한 대목이다. '그리스도교도처럼'이라는 구절은 후대에 누군가 여백에 적어 넣은 말이 본문에 섞여 들어갔다는 설이 있다.

2.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1391. 제 운명의 진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가, 갓난아기 때 버려졌던 키타이론산을 부르며 울부짖는 대목이다.

3. 모두 에우리피데스의 전하지 않는 비극에서 나온 구절로, 차례로 《안티오페》, 《벨레로폰테스》, 《힉시필레》의 단편이다. 제7권 41·38·40장에도 인용되었다.

4.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장군이자 정치가.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고도 아들에게 아테네인을 원망하지 말라고 일렀다고 전한다.

5. 원문 skalmē는 트라키아 사람들이 쓰던 칼이다. 살마시우스는 '굵은 막대기'(skambē)로 고쳐 읽었다. '늑대의 우정'은 양들과 화친하는 척한 늑대의 우화에서 나온 말로, 거짓 우정을 뜻한다.

6. 아폴론을 가리킨다.

7. 이솝 우화 「시골 쥐와 도시 쥐」. 호라티우스 《풍자시》 2.6에도 나온다.

8. 마케도니아 왕 페르디카스 2세. 다른 전승에는 소크라테스를 궁정에 부른 이가 그의 아들 아르켈라오스로 되어 있다.

9. 사본에는 '에페소스 사람들'로 되어 있으나, 저본은 17세기 학자 가타커의 추정을 따라 '에피쿠로스학파'로 고쳐 읽었다.

10.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9.413. 오디세우스가 '아무도 아니'라는 거짓 이름으로 키클롭스를 속여 넘기고 속으로 웃는 대목이다.

11. 헤시오도스 《일과 날》 186을 조금 바꾼 구절. 원래는 늙은 부모를 모진 말로 탓하는 자식들을 두고 한 말이다.

제12권

1 먼 길을 돌아서라도 닿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너는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다. 네가 너 자신에게 그것을 아까워하지만 앓는다면. 곧 지나간 일은 모두 내려놓고, 앞일은 섭리에 맡기고, 오직 지금만을 거룩함과 정의 쪽으로 바로잡으면 된다. 거룩함 쪽으로 바로잡는 것은 네게 나누어진 몫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자연이 그 몫을 너에게, 너를 그 몫에게 가져다주었으니까. 정의 쪽으로 바로잡는 것은 자유롭게, 에두르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고, 법에 맞게, 저마다의 값어치에 맞게 행하기 위해서다. 남의 악덕도, 남의 판단도, 남의 말소리도, 네 몸에 자라 붙은 살덩이의 감각조차도 너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그건 겪는 쪽이 볼 일이다. 그러니 언제든 떠날 때가 가까워졌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네 지도 이성(hēgemonikon)과 네 안의 신성한 것만을 받들며, 언젠가 삶을 그친다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맞게 살기를 한 번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너는 너를 낳은 우주에 걸맞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향에서 나그네로 사는 일도, 날마다 일어나는 일을 뜻밖의 일처럼 놀라워하는 일도, 이것저것에 매달리는 일도 그칠 것이다.

2 신은 모든 지도 이성을 질료로 된 그릇과 껍질과 찌꺼기를 벗긴 맨몸으로 본다. 신은 오직 자기의 지성적인 부분으로, 자기에게서 이것들 속으로 흘러 들어와 물질처럼 갈라져 나온 것만을 만지기 때문이다. 너도 이렇게 하는 버릇을 들이면 너를 이리저리 잡아끄는

술한 번잡함을 벗어 버릴 것이다. 제 몸을 둘러싼 고깃덩이조차 보지 않는 사람이 하물며 옷이며 집이며 명성이며 그런 걸치레와 무대 장치를 바라보느라 바쁘겠는가?

3 너를 이루는 것은 셋이다. 몸뚱이, 숨, 정신. 이 가운데 앞의 둘은 돌봐야 하는 한에서만 네 것이고, 셋째만이 참으로 네 것이다. 그러니 네가 너 자신에게서, 곧 네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떼어 낸다고 하자. 남들이 하거나 말하는 것, 너 스스로 했거나 말한 것, 앞으로 닥칠 일이라며 너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 너를 둘러싼 몸뚱이나 그와 함께 자라난 숨에 네 의지와 상관없이 들러붙은 것, 바깥에서 휘돌아 흐르는 소용돌이가 휘감아 돌리는 것을. 그리하여 지성적인 힘이 운명으로 함께 엮인 것들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홀로 풀려나 제 힘으로 살며,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일어나는 일을 원하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된다고 하자. 다시 말하지만, 네가 이 지도 이성에서 애착으로 들러붙은 것들을 떼어 내고 시간에서 앞으로 올 것과 지나간 것을 떼어 내고, 너 자신을 엠페도클레스의 "사방이 둥글어 저를 두른 고요를 기뻐하는 구"¹처럼 만들고, 오직 네가 사는 것, 곧 지금만을 사는 데 힘쓴다면, 죽을 때까지 남은 삶을 평정 속에서, 선의를 품고, 네 신령과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4 나는 자주 이상하게 여겼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자기의 판단은 남들의 판단보다 가볍게 여기니 어찌 된 일인가. 어떤 신이나 슬기로운 스승이 곁에 와서, 떠올리는 즉시 소리 내어 밖으로 말하지 못할 것은 속으로 하나도 생각하지도 꾀하지도 말라고 명령한다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더 어려워한다.

5 신들은 모든 것을 훌륭하게,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배치해 놓고서 어찌 이것 하나만은 놓쳤을까?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선량했고, 신성한 것과 이를테면 술한 약조를 맺었으며, 거룩한 행실과 제사로 오래도록 신성한 것과 가까이 지냈는데, 그런 이들도 한번 죽으면 다시는 생겨나지 못하고 아주 꺼져 버린다는 것 말이다. 정말로 그렇다면, 달리 되어야 했다면 신들이 그렇게 했으리라는 것을 잘 알아 두어라. 그것이 정의로웠다면 가능하기도 했을 것이고, 자연에 맞았다면 자연이 그렇게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달리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달리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그 점에서 달리 되어서는 안 되었다고 믿어라. 너도 보다시피 이런 것을 캐묻는 것은 신과 시비를 가리려 드는 일이다. 신들이 더없이 훌륭하고 더없이 정의롭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들과 따지고 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들은 우주의 질서 안에 있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정의롭지 못하게, 이치에 어긋나게 소홀히 다뤄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6 해낼 수 없겠다 싶은 일도 몸에 익혀라. 왼손은 길이 들지 않아 다른 일에는 굼뜨지만 고삐만은 오른손보다 단단히 쥔다. 그 일에는 길이 들었기 때문이다.

7 죽음이 덮칠 때 몸과 영혼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삶의 짧음. 뒤로도 앞으로도 아득히 입을 벌린 시간. 모든 질료의 무력함.

8 원인적인 것을 껍질을 벗겨 맨몸으로 바라볼 것. 행위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고통은 무엇인가. 쾌락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명성은 무엇인가. 누가 제 번잡함의 원인인가. 어째서 아무도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가. 모든 것은 판단이라는 것.

9 원칙을 쓸 때는 검투사가 아니라 판크라티온 선수처럼 해야 한다. 검투사는 쓰던 칼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 들어야 하지만, 판크라티온 선수는 손이 늘 제게 붙어 있으니 주먹만 쥐면 된다.

10 사물이 어떤 것인지 볼 것. 질료와 원인과 지향점으로 나누어서.

11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가. 신이 칭찬할 일 말고는 하지 않을 수 있고, 신이 나누어 주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 이어지는 것.

12 신들을 탓하지 마라. 신들은 알면서든 본의 아니게든 잘못하는 일이 없다. 사람들도 탓하지 마라.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모두 본의 아니게 한다. 그러니 아무도 탓할 것 없다.

13 살면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무엇에든 놀라는 사람은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낮은 나그네인가.

14 운명의 필연과 어길 수 없는 질서이거나, 달랠 수 있는 섭리이거나, 다스리는 이 없이 아무렇게나 뒤섞인 혼돈이거나. 어길 수 없는 필연이라면 왜 버티느냐? 달랠을 받아 주는 섭리라면 신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이끄는 이 없는 혼돈이라면, 이런 거센 물결 속에서도 네 안에 너를 이끄는 정신 하나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 물결이 너를 휩쓸어 가거든 휩쓸어 가라고 해라. 살덩이도, 숨도, 그 밖의 것도. 정신만은 휩쓸어 가지 못할 것이다.

15 아니면, 등불의 빛은 꺼질 때까지 비추며 제 광채를 잃지 않는데, 네 안의 진실과 정의와 절제는 너보다 먼저 꺼져 버린단 말인가?

16 누가 잘못했다는 인상을 줄 때. 그게 잘못인지 내가 어떻게 아는가? 설령 잘못했다 해도, 그는 이미 스스로 자기를 단죄했다. 그러니 이것은 제 얼굴을 할퀴는 것과 같다. 못된 자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무화과나무가 열매에 즙을 품지 않기를, 갓난아기가 칭얼대지 않기를, 말이 히힃 울지 않기를,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다. 그런 성향을 지닌 사람이 달리 어찌겠는가? 그러니 네가 그리 날카로운 사람이라면 그 성향을 고쳐 주어라.

17 마땅히 할 일이 아니면 하지 마라. 참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네 충동은 〈...〉²

18 어떤 경우에도 늘 살피라. 네게 인상을 일으키는 바로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원인과 질료적인 것과 지향점과, 그것이 끝나야 할 시한으로 나누어 펼쳐 보라.

19 이제는 깨달아라. 네 안에는 걱정을 일으키는 것들, 한마디로 너를 꼭두각시처럼 줄로 당기는 것들보다 더 낮고 더 신령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차 있는가? 두려움은 아닌가? 의심은 아닌가? 욕망은 아닌가? 그 비슷한 다른 무었은 아닌가?

20 첫째, 아무렇게나, 지향점 없이 하지 말 것. 둘째, 공동체를 위하는 목적 말고는 다른 무엇에도 행동을 겨누지 말 것.

21 머지않아 너는 아무도 아니고,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지금 네가 보는 것들도, 지금 살아 있는 이 사람들도 무엇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본디 바뀌고 뒤집히고 스러지게 되어 있다. 다른 것들이 뒤이어 생겨나도록.

22 모든 것은 판단이고, 판단은 네게 달려 있다. 그러니 원할 때 판단을 걷어 내라. 그러면 곶을 돌아 나온 뱃사람처럼 너도 잔잔한 바다를 만날 것이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만에는 물결 하나 없다.

23 어떤 활동이든 하나가 제때 그치면, 그쳤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나쁜 일을 겪지는 않는다. 그 행위를 한 사람도 그 행위가 그쳤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나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가 모여 이룬 짜임, 곧 삶도 제때 그치면 그쳤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나쁜 일을 겪지 않으며, 이 이어짐을 제때 끝낸 사람도 나쁜 처지에 놓인 것이 아니다. 그때와 한계를 정해 주는 것은 자연이다. 늙었을 때처럼 때로는 그 사람 자신의 본성이 정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든 결국은 우주의 본성이 정한다. 우주의 본성은 그 부분들이 바뀌어 가면서 온 우주를

언제나 젊고 한창인 채로 지켜 간다. 전체에 이로운 것은 언제나 모두 아름답고 때에 맞다. 그러므로 삶이 그치는 것은 누구에게도 나쁜 일이 아니다.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고 공동체를 거스르는 일도 아니니 수치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그것은 좋은 일이다. 전체에 때맞고, 전체에 이롭고, 전체와 함께 실려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과 같은 길로 실려 가고 마음으로도 신과 같은 곳을 향해 실려 가는 사람은, 신에게 실려 가는 사람(theophorētos)이다.³

24 이 세 가지를 늘 손 닿는 곳에 두어야 한다. 첫째,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지, 정의의 여신 디케가 몸소 했을 법한 것과 다르게 하지 않는지 살필 것.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연이거나 섭리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 우연을 탓해서도 안 되고 섭리를 나무라서도 안 된다. 둘째, 저마다 씨앗에서 영혼을 얻기까지, 영혼을 얻은 때부터 영혼을 돌려줄 때까지 어떤 것인지, 무엇들이 모여 이루어지고 무엇들로 풀려 흩어지는지. 셋째, 네가 갑자기 하늘 높이 들어 올려져 사람의 일과 그 천태만상을 내려다본다면, 대기와 하늘 높은 곳에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한눈에 보면서 그것을 업신여기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몇 번을 들어 올려지든 너는 같은 것을 보리라는 것. 똑같은 모양, 짧은 수명.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두고 허영을 부린다.

25 판단을 내던져라. 그러면 너는 무사하다. 누가 내던지지 못하게 막는가?

26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할 때, 너는 잊었다. 모든 것은 우주의 본성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잘못된 저지른 자의 몫이라는 것을.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모두 언제나 그렇게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며 지금도 어디서나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이 온 인류와 얼마나 가까운 친족인지를. 피 몇 방울, 씨 몇 방울을 나눈 사이가

아니라 정신을 나눈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너는 또 잊었다. 저마다의 정신은 신이며 거기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무엇도 누구의 것이 아니며, 자식도, 몸뚱이도, 이 작은 영혼조차도 거기서 왔다는 것을. 모든 것은 판단이라는 것을. 저마다 오직 지금만을 살고, 잃는 것도 지금뿐이라는 것을.

27 무언가에 몹시 분개했던 사람들, 더없이 큰 명성이나 불운이나 원한이나 그 밖의 어떤 처지로 한때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떠올려 볼 것. 그리고 생각해 볼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어디 있는가? 연기와 재와 옛이야기, 아니 옛이야기조차 못 된다. 이런 것도 모두 함께 떠올려라. 시골 영지의 파비우스 카툴리누스, 정원 속의 루시우스 루푸스, 바이아이의 스테르티니우스, 카프레아이의 티베리우스, 그리고 벨리우스 루푸스.⁴ 한마디로 무엇에든 자만에 차서 기를 쓰던 일들. 그리고 그렇게 기를 쓰고 매달린 것이 모두 얼마나 하찮은지, 주어진 질료 안에서 정의롭고 절제 있게, 신들을 꾸밈없이 따르는 사람으로 자신을 내보이는 것이 얼마나 더 철학다운지를. 허영 없는 척 그 밑에서 피어오르는 허영이 무엇보다 고약하다.

28 이렇게 캐묻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신들을 어디서 보았기에, 또 신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기에 그렇게 섬기는가?" 첫째, 신들은 눈으로도 보인다.⁵ 다음으로, 나는 내 영혼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존중한다. 신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들의 힘을 번번이 겪고, 그 겪은 일에서 그들이 있음을 깨닫고 경외한다.

29 삶을 구하는 길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질료적인 것은 무엇이고 원인적인 것은 무엇인지 보는 것, 그리고 온 영혼을 다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다음엔 무엇이 남는가? 좋은 일에 좋은 일을 이어 붙여 아주 작은 틈도 남기지 않으며 삶을 누리는 것 말고.

30 햇빛은 하나다. 벽과 산과 그 밖의 수많은 것에 가로막혀 나뉘어도. 공통의 실체는 하나다. 저마다 성질이 다른 수많은 몸으로 나뉘어도. 영혼은 하나다. 수많은 본성과 저마다의 태두리로 나뉘어도. 지성적 영혼은 하나다. 갈라져 있는 듯 보여도. 앞서 말한 것들의 다른 부분들, 이를테면 숨이나 바탕 물질 같은 것은 감각이 없고 서로 친밀함도 없지만, 그것들 역시 하나로 묶는 힘과 같은 곳으로 기우는 무게가 붙들어 준다. 그러나 마음은 유독 제 동족을 향해 뻗어 나가 그와 하나로 맺어지며, 공동체를 향한 이 정은 가로막히지 않는다.

31 무엇을 더 바라느냐? 계속 숨 쉬는 것? 아니면 느끼는 것? 충동을 품는 것? 자라는 것? 그러다 다시 자라기를 그치는 것? 목소리를 쓰는 것? 생각하는 것? 이 가운데 무엇이 그리워할 만해 보이느냐? 하나하나가 다 업신여기기 쉬운 것이라면 마지막 것으로 나아가라. 이성과 신을 따르는 것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는 것, 곧 죽어서 그것들을 잃게 될까 봐 괴로워하는 것은 이성과 신을 따르는 일과 맞서 싸운다.

32 끝없고 아득한 시간 가운데 얼마나 작은 조각이 저마다에게 떼어 주어졌는가. 그것은 금세 영원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온 실체 가운데 얼마나 작은 조각인가. 온 영혼 가운데 얼마나 작은 조각인가. 온 땅 가운데 얼마나 작은 흙덩이 위를 너는 기어 다니는가.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네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하고 공통의 자연이 가져다주는 대로 겪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대단하게 여기지 마라.

33 지도 이성은 자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 나머지는 의지에 달렸든 달리지 않았든 송장이고 연기다.

34 죽음을 업신여기게 하는 데 무엇보다 힘이 되는 생각. 쾌락을 선으로, 고통을 악으로 판단한 사람들⁶조차 죽음은 업신여겼다.

35 오직 때에 맞는 것만을 선으로 여기는 사람, 올바른 이성에 따른 행위를 더 많이 하든 더 적게 하든 매한가지인 사람, 우주를 더 오래 바라보든 더 짧게 바라보든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36 사람아, 너는 이 큰 도시에서 시민으로 살았다. 그것이 다섯 해였든 세 해였든 너에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법에 따른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그렇다면 너를 도시에서 내보내는 것이 폭군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고 너를 이 도시에 들여보낸 자연이라면, 무엇이 끔찍하단 말이나? 희극 배우를 데려다 쓴 법무관⁷이 그를 무대에서 내려보내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나는 다섯 막을 다 하지 못했다. 세 막뿐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삶에서는 세 막이 극의 전부다. 무엇이 완결된 극인지는 한때 결합의 원인이었고 지금은 해체의 원인인 그가 정한다. 너는 그 어느 쪽의 원인도 아니다. 그러니 너그러이 떠나라. 너를 놓아 보내는 이도 너그러우니.

1. 엠페도클레스 단편(딜스·크란츠 B27·B28). 사랑이 만물을 하나로 묶었을 때 우주가 이루는 완전한 구를 노래한 구절이다.

2. 원문이 여기서 끊겼다. '네 손에 달려 있게 하라'는 뜻으로 메워 읽기도 한다.

3. 원문은 '이롭다(sympheron)', '함께 실려 가다(sympheromenon)', '신에게 실려 가다(theophorêtos)'로 '나르다(pherein)'를 되풀이하는 말놀이이다. theophorêtos는 흔히 '신들린'을 뜻한다.

4. 티베리우스 말고는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은거나 사치로 이름났던 로마의 유력자들로 본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말년을 카프레이아섬(지금의 카프리)에 틀어박혀 보냈고, 바이아이는 나폴리만의 호화 휴양지였다.

5. 해와 별 같은 천체를 신으로 여긴 스토아학파의 생각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6. 에피쿠로스학파를 가리킨다.

7. 로마에서 경기와 공연은 법무관 같은 정무관이 주관했다. 원문은 그리스어로 '장군 (stratēgos)'이라 썼다.

판권면

명상록

원제 · Ταῖς ἑαυτοῦ (자기 자신에게)

지은이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Marcus Aurelius Antoninus, 121~180)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저본 · J. H. 레오폴트 역음 《M. Antoninus Imperator Ad Se Ipsum》(1908). 전자 텍스트는 페르세우스 디지털 도서관(Perseus Digital Library, Trustees of Tufts University) 공개본, CC BY-SA 4.0. 그리스어 원전에서 옮겼으며, 영어 번역(조지 롱 1862, 메릭 카소본 1634)은 대조에만 썼다.

분량 · 원문 그리스어 약 29,300단어 · 12권 487장 · 원문 533문단, 번역 533문단 · 옮긴이 주 118개

바로잡은 곳 · 저본 전자 텍스트의 오자. 원문이 상한 자리는 「일러두기」에 밝힌 방식으로 표시했다.

저작권 · 2세기에 쓰인 글로, 원저작물은 대한민국·미국·유럽연합 모두에서 퍼블릭도메인이다. 저본 비판본(1908)도 보호기간이 끝났다.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11